



홍성문화원



- 논 단 | 갈산면 지역의 지명 변천 탐구 2 (조원찬)
| 유교의 현재화와 우리 교육 1 (김경수)
| 풍수지리는 음양이다 (김시환)
- 특 별 기 고 | 홍성에서의 한용운 정신 계승 (김광식)
- 홍 성 의 전 설 | 죽도의 아름다운 대나무 숲과 전설 (김정현)
| 전염병으로부터 마을을 지켜낸 차효부의 넋이 서린 느티나무
- 기 행 문 | 싱가포르의 다양한 무늬를 읽다 (정명순)
- 나의 삶 나의 예술 | 동화작가 장수민 (조성미)
- 홍성의 문화예술동아리 | 달빛아모디언합주단 (서다래)
- 시 & 수 필 | 장터-참꼬막 (현자)
| 흰 갈꽃 바람에 흔들리고 (김기정)
| 산행 (조종수)
| 월급통장 (송미경)
| 따리 (박미연)



[홍성문화 표지]
+
2020년 홍성군 문화관광 디카시 공모전 수상작

내포 섬나라

조 남 민

내가 섬에서 사는구나

수영도 못하면서

헤엄치며 살아 왔구나

문화비전 선언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는 문화시대에 살면서 세계인과 한 가족으로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책무를 지닌다.

지방문화원은 전통문화예술의 발굴과 육성, 문화예술교육 기회의 제공, 문화자원의 확보와 활용에 앞장서 온 지역문화발전의 주역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제 인간의 창의성 계발, 우리 문화의 세계화,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화적 책임 등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선도하는 문화원이 되기 위해 역할의 재정립을 가다듬어야 한다.

지방문화원은 도약을 다짐하는 뜻에서 ‘문화원의 날’을 제정하고 우리의 공고한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여러 문화 주체들의 힘을 모으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 지방문화원은 이 시대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식정보와 다문화 시대의 매개자가 된다.
- 지방문화원은 문화 소외층이 없도록 함께 나누며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펼친다.
- 지방문화원은 일회적·단기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지속적·장기적인 활동을 추진한다.
- 지방문화원을 문화경영의 전문조직으로 적극 육성한다.

2007년 10월 10일

2020 하반기
Vol. 188



발행인 : 홍성문화원장 유환동
발행일 : 2020년 12월
발행처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절로951번길 16 홍성문화원
전 화 : 041-632-3613
홈페이지 : <http://www.hsccl.co.kr>
E-mail : hscult@naver.com

편집주간 : 조성미
편집위원 : 김정현 · 조원찬 · 조남민 · 서다래 · 이경진
편집디자인 : 김기연
인쇄처 : 충남인쇄사 (041-634-3114)

Contents

- 04 논 단 | 갈산면 지역의 지명 변천 탐구 2 (조원찬)
| 유교의 현재화와 우리 교육 1 (김경수)
| 풍수지리는 음양이다 (김시환)
- 32 특 별 기 고 | 홍성전에서의 한용운 정신 계승 (김광식)
- 48 홍 성 의 전 설 | 죽도의 아름다운 대나무 숲과 전설 (김정현)
| 전염병으로부터 마을을 지켜낸 차효부의 님이 서린 느티나무
- 56 기 행 문 | 싱가포르의 다양한 무늬를 읽다 (정명순)
- 68 나의 삶 나의 예술 | 동화작가 장수민 (조성미)
- 76 홍성의 문화예술동아리 | 달빛아코디언합주단 (서다래)
- 80 시 & 수 필 | 장터-참꼬막 (현자)
| 흰 갈꽃 바람에 흔들리고 (김기정)
| 산행 (조종수)
| 월급통장 (송미경)
| 파리 (박미연)
- 86 홍성문화원 소식 | 2020 대한민국 문화원상
| 2020 제2회 홍성의 무형문화재 작품전시회
| 2020 문화의날 기념식 행사
| 2020 제1회 보광서각회 작품전시회

논 단

갈산면 지역의 지명 변천 탐구 2

조 원 찬 (갈산고등학교 교사)

3. 원삼국시대와 갈산

백제에 편입되기 전 원삼국시대¹⁾에 갈산면 지역을 비롯한 홍성군 지역은 마한의 영역에 속했다. 삼한이 각각 언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많지만, 이른 지역의 경우 기원전 3세기 무렵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비파형동검과 거친무늬거울이 사라지면서 세형동검과 잔무늬거울을 사용하였다. 아울러 북쪽으로부터 전개된 철기문화의 유입과 유이민의 이주는 토착민들의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철제 농기구의 보급은 농업 생산력을 증대시켰고, 나아가 큰 마을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잉여생산물이 많아지면서 소유와 비소유, 지배와 피지배의 구조를 만들었고, 이는 곧 소국(小國)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갈산면 지역에서 주목되는 곳이 동성리 일대이다. 이곳은 홍성군에서 추진했던 홍성 일반산업단지 조성 부지와 관련된 문화유적 발굴 조사 과정에서 신석기시대부터 백제시대까지의 유적과 유물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²⁾ 그 중에서 원삼국시대와 관련된 유적은 주구토광묘³⁾가 있다. 매장 주체부가 확인된 주구토광묘는 1기이고, 무덤 둘레에 판 긴 도랑만 확인된 것으로 4기가 발견되었다.



▲ [그림1] 홍성 동성리 유적(발굴보고서에서 옮김)

1호 주구토광묘는 조사 지역의 북동쪽에서 발견되었는데, 능선의 정상 부분에서 경사면으로 이어지는 해발 49.6m ~ 52.5m 사이에 해당된다. 무덤의 묘광 주위에 긴 도랑을 판 주구(周溝)는 전체적인 평면

1) 원삼국시대는 초기철기시대 이후 ~ 삼국시대 이전의 시대로서 서기전 100년경부터 서기 300년경까지의 약 400년간의 기간을 이른다. 이 시기에 나타나는 문화적 특징으로는 청동기의 실용성 소멸, 철기생산의 보급 및 확대, 김해토기의 출현, 농경(벼농사)의 발전, 고인돌의 소멸, 돌덧널무덤의 발달 등을 들 수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2)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홍성 동성리 유적』, 2014,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3) 일반적으로 일정한 모양으로 긴 도랑(주구周溝)을 파서 돌리고 그 안에 나무널 또는 나무덧널을 사용한 토광묘이다. 주구 형태는 눈썹형, 사각형, 'ㄷ'자형 등 다양하다. 나무널을 기본적인 매장시설로 하는 광의의 마한계 묘제로 볼 수 있다.(고고학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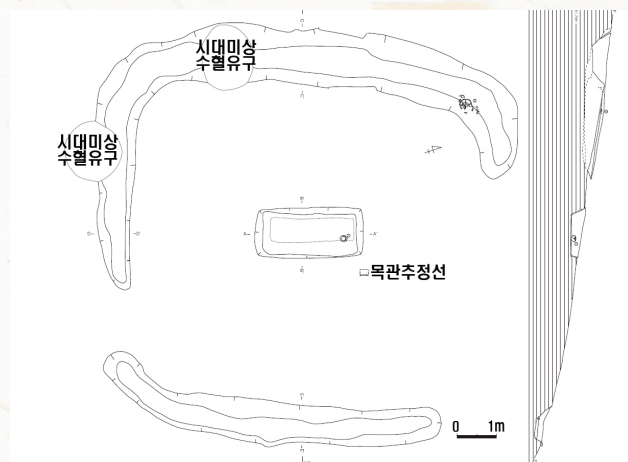
형태가 매장 주체부를 가운데에 두고 ‘ㄷ’형태를 띠고 있다. 주구의 북쪽은 경사면과 골짜기로 이어지는 부분이어서 자연적으로 무너졌고, 남동쪽은 암반 때문에 이어지지 않았다. 주구의 단면 형태는 가운데가 가장 깊고 양쪽 끝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U’자형으로 바닥 부분은 비교적 평탄하다. 크기는 최대 길이 1,154cm, 최대 너비 1,022cm, 깊이 52cm이다. 주구 내부에서 밑 부분이 둥글고 짧은 목을 한 원저단경호 1점이 발견되었다. 원저단경호는 입과 몸체 부분의 일부가 떨어진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입술 부분은 각지게 처리하였다. 몸체의 바깥면에는 평행선 무늬와 나선상으로 둘러진 17조의 침선이 있다. 아래 부분에는 침선문이 불규칙적으로 거듭된 두드림무늬가 있다. 크기는 높이 25.5cm, 입 부분의 지름은 18.5cm, 그릇의 두께는 0.6cm이다.

매장 주체부는 목곽과 껍묻거리 칸은 없었고 나무널만 확인되었다. 무덤방의 벽면은 풍화암반층을 거의 수직으로 파서 만들었고 바닥은 풍화암반토인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무덤방의 크기는 긴 쪽 276cm, 짧은 쪽 122cm, 깊이 76cm이며, 나무널의 크기는 긴 쪽 214cm, 짧은 쪽 56cm이다. 유물을 넣기 위한 껍묻거리 칸은 따로 없었으나 나무널의 북동쪽 모서리 가까운 곳에서 양이부호 1점이 발견되었다.

그릇의 어깨 부분에 두 개의 귀를 붙인 양이부호는 입 부분 일부가 떨어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그릇의 최대 지름은 중간 부분에 있고 귀는 양쪽 어깨에 대칭이 되도록 사각형의 고리형 귀를 붙였다. 그릇의 안과 바깥면에는 회전 물손질의 흔적이 있으며 무늬는 확인되지 않았다. 크기는 높이 12.5cm, 입 부분의 지름 10.4cm, 그릇의 두께 0.3~0.8cm이다.



▲ [그림3] 1호 주구토광묘에서 발견된 원저단경호와 양이부호(발굴보고서에서 옮김)



▲ [그림2] 1호 주구토광묘 평·단면도(발굴보고서에서 옮김)

전체적으로 동성리 유적의 주구토광묘와 양이부호가 사용되었던 시기는 대략 4세기 후반으로 알려졌다.

주구토광묘를 사용한 시기에 갈산면 지역은 마한의 영역에 속했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마한에는 54국의 소국이 있었다. 이때 갈산면 지역을 중심으로 한 홍성군 지역에는 소위건국, 감해비리국, 점비리국, 사로국 등이 있었을 것으로 비정되고 있어 최소 하나 이상 최대 4개의 소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왔다.⁴⁾ 이와 관련하여 백제시대에 군·현이 설치된 곳으로서 와룡천 주변의 갈산면 일대, 금리천 주변의 결성면 일대, 무한천 주변의 장곡면 일대, 환호유적이 나온 삼교천 주변의 흥북면 석택리 일대 등은 각각 소국과 읍락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생각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그러나 한강유역에서 부여계 온조 집단이 남하하고 새로운 형태의 결속기반이 형성되면서 마한 연맹체의 세력은 크게 위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홍성군을 비롯한 갈산면 지역에도 점진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홍성지역의 소국과 읍락이 마한 연맹체에서 점차 백제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질서체제 안으로 편입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백제시대와 갈산

백제시대에 갈산면 지역에는 우견현이 있었다. 『삼국사기』 지리지에 의하면, 현재의 홍성지역에는 마시산군(예산군 덕산면 일대)의 영현이었던 우견현(홍성군 갈산면 일대), 결기군(홍성군 결성면 일대)과 그 영현이었던 사시량현(홍성군 장곡면 일대)이 있었다. 그러나 백제의 지방제도가 대체로 사비(현재의 부여)에 도읍했던 시기에 정비된 것을 고려하면, 우견현이 설치된 갈산면 지역이 본격적으로 백제의 지배질서 안에 편제되었던 것도 웅진 도읍 시기에서 사비 도읍 시기로 이어지는 시기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는 갈산면 지역이 지리적으로 왕성에 가깝고, 웅진과 사비 도읍 시기에 걸쳐 중국과의 외교를 위한 교통로 상에 위치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갈산면 지역에서 살던 주구토광묘의 주인공과 주변 사람들이 마한의 한 소국에서 백제 편으로 옮긴 것은 이보다 앞선 한성 도읍 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와룡천과 천수만을 같은 생활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남겨 놓은 결성면 신금성 백제 생활 유적에서 한성 백제시대의 토기류가 출토되었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발견된 토기는 세발달린 토기, 깊은 바리형 토기, 곧선입 짧은목 구형 항아리, 높은 굽이 달린 접시, 그릇 받침 등이 있다. 이 토기들은 그릇의 형태나 제작 방법 등에서 원삼국시대의 토착적인 문화 기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한성 백제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새로운 기술의 소산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몽촌토성에서 출토된 것들과 비교할 때 대체로 4세기 중엽을 전후로 한 시기의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적어도 4세기 중엽이면 결성면 일대를 중심으로 중부 서해안 지역에 백제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신금성 백제 생활 유적에서 3세기 후반 중국 서진(西晉) 때 유행한 것으로 알려진 ‘돈 무늬 도기’도 주목되는 사례이다. 이는 몽촌토성에서 출토된 돈 무늬 도기와 같은 유형인만큼 결성지역의 정치체가 서해안의 해상 교통로를 통해 한성 백제와의 대외 교섭을 추진한 결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결성

4) 소위건국(素謂乾國, 충남 홍성군, 정인보설, 『조선사연구』), 감해비리국(監奚卑離國, 충남 홍성군, 이병도설, 「삼한 문제의 신고찰」, 『한국고대사연구』), 점비리국(占卑離國, 홍성 장곡면, 천관우설, 「마한 제국의 위치 시론」, 『동양학』9), 사로국(騶盧國, 홍성 장곡면, 이병도설, 앞의 글)

지역의 정치체가 중국 서진과의 대외 교역을 통해 얻은 교역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당시 한성 백제가 이미 연맹 왕국의 단계에서 고대 국가로의 발전 도상에 있었고, 적어도 근초고왕 때에는 홍성지역 또한 백제의 지배 질서 안에 편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결성면 지역의 정치체가 백제의 지배 질서 속에서 편제되는 한편으로 한성 백제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자신들의 지배적 특권을 보장받았을 무렵, 원저단경호와 양이부호가 발견된 동성리 1호 지구토광묘의 주인공과 함께 갈산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점차 결성면 지역의 사람들처럼 백제의 영역으로 포함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은 홍북읍 지역에서 발견된 사례를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4세기 이후 홍북읍 석택리에서는 원삼국시대의 환호 마을이 점차 쇠퇴하고, 금동 귀걸이와 흑색 마연 직구광견호를 겨문거리로 넣은 백제 토광묘가 만들어졌다. 신경리 자경동에서도 백제 토광묘가 마한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던 분구묘를 파괴하며 새로운 양식의 무덤으로 등장하였다. 나아가 석택리 토광묘에서 발견된 흑색 마연 직구광견호와 금동 귀걸이, 신경리 자경동 토광묘에서 발견된 환두대도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흑색 마연 직구광견호는 백제 중양 왕실에서 내려 준 위세품이고, 환두대도와 금동 귀걸이 역시 지배층 소유물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한편 4세기 무렵 갈산면을 비롯한 홍성지역에서 있었던 일련의 상황은 백제의 정세와 무관하지 않다. 백제는 낙랑군과 대방군이 고구려에 의해 멸망되면서 종래 한 군현이 갖고 있었던 동아시아 해상 교역권을 장악하였다. 나아가 새롭게 확보한 지역의 수장층에게는 그 지역의 지배권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인정해 주는 대신 대외교역권이나 징세권 등의 행사를 통제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 백제는 각 지역의 유력한 수장층들에게 당시 최고급품의 위신재를 나누어 줌으로써 그들을 매개로 거점지역을 통제하거나 지배하고자 하였다.⁵⁾ 이와 관련하여 백제는 홍성지역을 장악하기 위하여 두 곳으로 진출하였다. 하나는 서해안~아산만~삼교천 지류를 이용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서해안~천수만~금리천 지류를 활용한 것이다. 백제는 전자를 위해 홍북읍 지역 세력을, 후자를 위해 결성면 금곡리의 신금성⁶⁾ 세력을 포섭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때 백제의 영역으로 포함된 두 곳은 백제 말기 군현제를 편성할 때 ‘군(郡)’으로 지정되었다. 홍북읍 지역은 지리적 여건 상 마시산군(현재 예산 덕산면 일대)으로 발전하였고, 결성면 일대는 결기군(현재 홍성 결성면 일대)으로 성장하였다.⁷⁾ 이와 관련하여 홍북읍 봉신리에서 발견된 고분군과 삼교읍 목리·신리 유적에서 발견된 고분군을 비롯한 주거지, 건물지, 토기요지 등은 웅진·사

5) 아울러 백제는 서산지역에서 가장 유력한 재지세력인 부장리 세력과 관계를 맺어 태안반도 지역을 지배하려고 하였고, 부장리 세력도 마한 지역에서 중심 세력으로 대두한 백제의 후광을 배경으로 전통적인 지배력을 유지하려 하였다.(양기석, 2012, 〈홍성지역의 고대사회-지배세력의 성장과 변화를 중심으로〉, 『백제문화』 74집)

6) 이곳에서는 4세기 중엽 한성 백제의 중양으로부터 받은 삼족토기와 중국 서진 전문도기가 출토되었다.

7) 백제시대 결기군은 현재의 홍성군 결성면을 중심으로 은하, 광천, 구항, 보령시 천북면 일대를 관리하였고, 마시산군은 현재의 예산군 덕산면과 삼교읍 일대를 관리하였다.

비 백제시대에 홍성지역에서 살던 사람들과 관련이 깊다.

그러면 현재 갈산면 지역에 있었던 우견현의 중심지는 어디에 있었을까?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곳이 취생리에 있는 봉화산성이다. 봉화산성은 갈산면 취생리와 서산시 고북면 신송리 사이에 자리한 봉화산(228m)에 있다. 봉화산성과 관련된 내용이 처음 기록에 보이는 것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이다. 이 책의 홍주목 ‘봉수’조에 보면 “고구성산(高丘城山) 봉수는 남쪽으로 결성현 고산과 호응하고, 서쪽으로는 서산군 도비산(都飛山)과 호응한다.”라고 하여 봉화산이 조선시대에는 ‘고구성산’, 또는 ‘성산’으로 불렸음을 알 수 있다. ‘고구성산’은 다시 나누면 ‘고구성이 있는 산’, 또는 ‘고구의 성이 있는 산’으로 생각할 수 있고, ‘성산’은 ‘성이 있는 산’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고구’는 고려시대에 갈산지역의 지명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 홍주목 ‘고적’조에 의하면, “고구폐현(高丘廢縣)은 주 서쪽 30리에 있다. 본래 백제의 우견현(牛見縣)이었는데, 신라 때에 목우(目牛)로 고쳐 이산군(伊山郡)의 속현으로 삼았고, 고려 초기에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으며, 현종 9년에 본주에 붙였다.”라고 하여 조선시대에 폐지된 고려시대의 ‘고구현’이 백제시대의 ‘우견현’이었음을 알게 한다. 이는 곧 지금의 봉화산성이 고려시대에는 고구현의 성이고, 백제시대에는 우견현과 관련된 ‘산성’이었음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백제시대 우견현의 중심지는 지금의 봉화산성이 있는 곳에서 가까운 곳, 즉 봉화산성의 동쪽은 산줄기가 대부분이니까, 서쪽에 해당된 지역이고 남쪽에서 북쪽까지 이어진 지역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곳은 현재 갈산면 취생리에서 동성리를 거쳐 오두리에 이르는 지역과 서산시 고북면에 해당되는 곳이다. 백제시대의 우견현은 지금의 갈산면보다 더 넓은 지역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5. 통일신라시대와 갈산

신라는 삼국을 통일하면서 새롭게 확대된 백제와 고구려 방면의 영토에 대해 685년(신문왕 5) 9주 5소경 체제로 군·현을 정비하고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였다.⁸⁾ 그런데 홍성군 지역에 있었던 이산군의 영현인 목우현(현재 갈산면 일대)을 비롯하여 결성군(현재 결성면 일대)과 그 영현이었던 신량현(현재 장곡면 일대) 등이 설치된 것은 757년(경덕왕 16)의 일이다. 그러면 경덕왕 이전에 홍성군 지역의 군·현 편제 및 지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백제시대의 군·현명을 그대로 유지한 채 신라 정부의 명령·통제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의 검토가 필요하다.

8) 홍성군 지역은 663년 11월 백제부흥운동이 실패로 끝난 뒤 당이 백제의 옛 땅에 웅진을 비롯하여 마한·동명·사연·덕안에 각각 도독부를 설치했다가, 곧 이어 웅진도독부를 설치하고, 그 아래에 동명·지심·노산·고사·사반·대방·분차 등 7주·52현을 두었을 때 대략 지심주에 속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심주 아래의 지심현은 현재 예산군 대흥면에 속한다.

- ① “봄 정월에 교서를 내려, 관직의 이름을 모두 옛 것으로 회복시켰다.”⁹⁾ (『삼국사기』 권 제9, 신라 본기 제9, 해공왕 12년)
- ② “12도(道)에 사신을 파견해 군(郡)·읍(邑)의 경계를 정하였다.”(『삼국사기』 권 제10, 신라본기 제10, 애장왕9)
- ③ “3월에 웅천주 도독 헌창(憲昌)이 아버지 주원(周元)이 왕이 되지 못함을 이유로 반란을 일으켜, 국호를 장안(長安)이라 하고 연호를 세워 경운(慶雲) 원년이라 하였다. 무진, 완산, 청주, 사벌의 4개 주 도독과 국원경, 서원경, 금관경의 사신, 여러 군현의 수령을 협박해 자기 소속으로 삼았다. 청주도독 향영(向榮)은 몸을 빼 추화군(推花郡, 현재 경남 밀양)으로 달아났고, 한산주, 우두주, 삼량주, 패강진, 북원경 등은 헌창의 역모 사실을 미리 알고 병사를 일으켜 스스로 수비하였다.(『삼국사기』 권 제10, 신라본기 제10, 헌덕왕14)

앞의 기록에서 ①, ②의 자료에 따르면, 백제시대의 ‘우견현’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도 백제 때의 지명으로 계속 사용되다가 757년(경덕왕 16)에 ‘목우현’으로 바뀌었지만, 19년만인 776년(해공왕 12)에 다시 ‘우견현’으로 돌아갔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808년(애장왕 9) 즈음에 ‘목우현’이 된 갈산면 지역은 822년(헌덕왕 14) 3월 초에 김헌창이 웅주(지금의 공주)에서 난을 일으켜 국호를 ‘장안(長安)’이라 하였다가 3월 말에 진압된 사이에는 짧지만 장안국에 속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은 홍성군 장곡면에 있는 장곡산성에서 발견된 기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장곡산성에서 통일신라시대의 기와이지만 백제시대의 지명과 관련된 ‘사시량(沙尸良)’, ‘사라범초(沙羅凡草)’, ‘사량관(沙良官)’이란 글자가 새겨진 기와가 출토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례는 갈산면 지역이 여전히 지금의 결성면·장곡면 지역과 함께 백제시대에 이어 통일신라시대에도 홍성지역의 행정과 문화의 중심 지역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고려시대와 갈산

고려시대에 갈산면 지역은 홍주목 고구현에 속했는데, ‘홍주’는 ‘운주’¹⁰⁾에서 바뀐 지명이다. 『고려사』에 의하면 다음과 내용을 볼 수 있다. “운주는 995년(성종 14)에 도단련사¹¹⁾가 파견된 후 1012년(현종 3)에

9) 이와 관련하여 해공왕 10년(774)에 상대등이 된 김양상이 중심이 되어, 중대 전제왕권을 부정하고 귀족연합정권을 지향해 나가는 표징이라는 견해(이기백)와 녹읍이 부활되었던 경덕왕 시기의 지명 및 관호와 관련된 일련의 개혁 정치 자체가 애초부터 의미가 약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이영호, 「신라 해공왕 12년 관호복고의 의미」, 『대구사학』39, 1990.)

10) 운주는 후삼국시대에 호족 공준이 고려 태조에게 항복하기 전 10세기 초의 궁예 통치기에 후고구려의 남방 기지로서 중요성을 인정받으며 등장하였다.

11) 4도호부 10도 체제에서 하남도에 속했다. 도단련사는 지방 세력의 통제 강화와 국방력의 강화를 위해 설치한 것으로 절도사가 파견된 곳보다 작은 주(州)에 보냈다. ‘운주’와 환주가 태조 때 중앙군이 배치되었던 군사적 요충지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도단련사는 군사적 성격이 강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는 지주사가 파견되었다. 그 뒤 ‘운주’는 ‘홍주’로 지명을 바꾸고¹²⁾ 양광도 아래에서 3군 11현을 관할하였다.¹³⁾ … 고구현(高丘縣)은 본래 백제의 우견현(牛見縣)으로, 신라 경덕왕 때 이름을 목우(目牛)로 고치고, 이산군(伊山郡)의 영현이 되었다. 고려 초에 지금 이름으로 바꾸었다. 현종 9년(1018)에 홍주에 내속(來屬)하였다.”¹⁴⁾ 그런데 백제시대 이후 통일신라시대까지 이산군(백제 때에는 마시산군) 소속이었던 목우현(백제 때에는 우견현)이 홍주 지주사 소속의 고구현이 되는 과정은 그 동안 지방 행정 중심이 갈산면, 결성면, 장곡면 지역에서 홍성을 지역으로 이동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계기는 나말여초의 역사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934년 왕건과 궁준 사이에서 벌어진 운주 전투가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는 왕건이 궁준을 이긴 것이 그 뒤 견훤을 압박하는 계기가 되면서, 935년 신라의 항복을 받고, 936년 후백제를 멸망시켜 민족을 재통일할 수 있는 기초를 닦은 사건이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이 전투 이후 왕건의 편에 선 궁준이 후삼국 통일에 큰 공을 세우면서 운주가 내포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역사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예컨대 궁준이 태조로부터 홍씨 성을 하사받고 이름을 ‘홍규’¹⁵⁾로 바꾸면서 그의 딸은 태조의 12번째 왕비인 ‘홍복원부인’이 되었다. 아울러 손녀인 공주 ‘일후’는 태조의 제 3비 신명왕후의 태자 ‘태’에게 출가하였는데¹⁶⁾, 신명왕후의 둘째 아들이 정종이고, 셋째 아들이 광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홍복원부인과 그 집안이 태조 이후에도 큰 세력을 유지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후삼국시대 이전에는 사료 상에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홍성을 지역의 운주가 후삼국시대를 거치면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부상하였음을 시사하며, 내포지역의 명실상부한 거점 세력으로서 고려시대는 물론 조선시대까지 그 명성을 이어가게 된 큰 힘이 되었다.

그 후 고구현을 포함한 홍주의 지역세는 공민왕 시기에 중앙의 정치적 변화와 관련하여 크게 흔들렸다. 1356년(공민왕 5)에 홍주는 왕사 보우의 내향이라 하여 목으로 승격되었다. 그러나 1368년(공민왕 17)에 지주사로 강등되었다가 1371년(공민왕 20)에 다시 목으로 승격되었기 때문이다.¹⁷⁾ 이와 같은 과정은 1368년에 보우가 신돈에게 보복을 당하며 속리산에 갇혔던 시기이고, 1371년은 보우가 소설산으로 돌아온 후 국사에 올랐던 해와 관련이 있다.

12) 1018년(현종 9) 세상의 운세를 바꿀 수 있는 고을 운주는 큰 고을 홍주(洪州)로 지명을 바꾸면서 주변의 3군 11현을 관할하며 명실상부한 내포의 큰 고을이 된다.

13) 홍주는 “성종 14년에 운주도단련사를 두었다. 현종 3년에 지주사로 고쳤다가 뒤에 지금 이름으로 고쳤다. 공민왕 5년에 왕사 보우의 내향이라 하여 목으로 승격시켰다. 17년에 지주사로 강등시켰다가 20년에 다시 목으로 하였다. 별호는 안평, 또는 해풍이다(모두 성종이 정함). 또 해흥으로 부르기도 한다. 속군이 3개, 속현이 11개이다.

14) 『고려사』 지 권제10 지리1 양광도 홍주, 내속(來屬)은 속부(屬府)·속읍(屬邑)·속현(屬縣)의 총칭으로, 관내(管内)·임내(任內)·겸현(兼縣)·합속현(合屬縣)·부읍(附邑)·지현(支縣) 등으로 기록되기도 한다. 지방관이 파견된 주현(主縣)과 구별되며, 행정체계상으로는 주현을 통해 중앙정부의 간접통치를 받았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15) 윤용혁, 『고려시대』, 『홍주대관』 상, 2002, 262쪽.

16) 『고려사』 권90, 열전3, 종실1, 태조 공주조.

17) 『고려사』 권56, 지제10, 지리1 양광도 홍주

그러면 고구현의 영역은 어느 정도일까? 고구현과 관련된 내용 가운데 조선시대의 기록을 바탕으로 고구현의 영역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료들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 ① 홍주목(洪州牧) … 속현 5, 고구현(高丘縣)은 본래 백제의 우견현(牛見縣)인데, 신라에서 목우현(目牛縣)으로 고쳐 이산군(尼山郡)의 영현을 삼았고, 고려에서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다. … 현종 9년에 모두 운주(運州) 임내에 붙였다.(『세종실록』지리지 홍주목)
- ② 고구폐현(高丘廢縣), 주 서쪽 30리에 있다. 본래 백제의 우견현(牛見縣)이었는데, 신라 때에 목우(目牛)로 고쳐 이산군(伊山郡)의 속현으로 삼았고, 고려 초기에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으며, 현종 9년에 본주에 붙였다.(『신증동국여지승람』 권19 충청도 홍주목, 고적)
- ③ 삼존산(三尊山), 주 서쪽 17리에 있다. … 바다, 신평(新平), 고구(高丘), 흥양(興陽)은 모두 바다와 접하고 있다.(『신증동국여지승람』 권19 충청도 홍주목, 산천)

①과 ②에 의하면, 고려시대에 홍주목의 간접 통치를 받던 고구현은 조선시대에는 완전히 현이 폐지되어 홍주목의 직접 관할 지역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위치는 홍주목의 서쪽으로 30리에 있는데, ③을 보면 홍주목 서쪽 17리에 있는 삼존산 보다 더 서쪽에 있고 바다와 인접한 곳임을 알 수 있다. ‘尊’은 ‘존’과 ‘준’으로 읽히기 때문에 삼존산은 ‘삼준산’으로도 읽을 수 있는데 지금은 높다는 뜻의 ‘준(峻)’으로 쓰고 읽어 ‘삼준산’이라고 한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고려시대의 고구현 영역 가운데 현재의 갈산면 지역은 그 중심부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고구현의 영역은 현재의 홍성군 갈산면을 넘어 서산시 고북면과 해미면까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기록들이 있다. 조선 후기 1860년대에 편찬된 것으로 알려지는 『대동지지』 ‘방면’조에 의하면, “고남(高南)은 서쪽으로 처음은 10리 끝은 30리, 고북(高北)은 서북쪽으로 처음은 30리 끝은 50리, 위의 두면(面)은 옛 고구현(高邱縣)이다.”라고 하여 고구현이 조선시대에 고남면과 고북면으로 나뉘었음을 알게 한다. 이 중에서 고남면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고도면, 갈산면으로 지명이 변경되었고, 고북면은 지금까지 지명이 이어지면서 서산시 고북면이 되었다. 즉 현재의 홍성군 갈산면과 서산시 고북면 지역이 고려시대의 고구현과 관련된 지역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고구현의 영역이 지금의 서산시 해미면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 ① 해미현(海美縣), 정해현(貞海縣)은 … 고려 태조 때 몽웅역(夢熊驛)의 아전 한(韓)가가 큰 공이 있어서, … 고구현 땅을 떼어 정해현으로 하고, … 현종 9년에 운주(運州) 임내에 붙이었다가, 뒤에 감무를 두었다. 여미현(餘美縣)은 본래 백제의 여촌현(餘村縣)인데, 신라에서 여읍현(餘邑縣)으로 고쳐 해성군의 영현을 삼았고, 고려에서

여미현으로 고쳐, 현종 9년에 운주 임내에 붙이었다가, 예종 원년 병술에 비로소 감무를 두었다. 본조 태종 7년에 2현을 합쳐서 해미(海美)로 하고, 13년에 현감으로 고쳤다.『세종실록』지리지 해미현)

② 해미현(海美縣), … 고구현을 분할하여 정해현으로 만들고 … 여미현 … 본조 태종 7년에 두 현을 병합하여 지금의 이름으로 고치고, 정해를 그 다스리는 곳으로 삼았는데, 13년에 현감으로 삼았다.『신증동국여지승람』 건치연혁)

③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의 병영(兵營)은 현 동쪽 3리에 있다. 돌로 쌓은 성이 있는데, 주위가 3천 1백 72척에, 높이가 15척이며, 안에 세 개의 우물이 있고, 또 군창(軍倉)이 있다.『신증동국여지승람』 관방)

①과 ②를 보면, 해미현은 고려의 고구현에서 갈라진 정해현과 여미현을 합쳐 만든 곳이고 치소는 정해현이 있던 곳에 두었음이 확인된다. 이를 ③과 비교하면 해미현의 치소는 현재의 ‘해미읍성’이라고 불리는 조선 초 병마절도사의 병영에서 서쪽으로 3리에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현재의 서산시 해미면의 반양리와 ‘반양리산성’일 가능성이 높다.

이를 바탕으로 해미현을 구성했던 정해현과 여미현의 영역을 구분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정해현의 영역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정해현의 치소는 해미현의 치소와 같은 장소이고, 둘째, 정해현은 고려의 고구현에서 갈라진 곳이며, 셋째는 고려의 정해현과 관련된 조선시대의 해미현 영역은 조선시대의 홍주목 고북면과 가까운 곳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고려시대 정해현은 현재 해미면 반양리와 읍내리를 중심으로 서쪽과 남쪽 방향에 있어야 하고, 남쪽의 경계는 현재의 서산시 고북면이어야 한다. 반면에 여미현은 반대 방향으로 현재 해미면의 북쪽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고구현의 중심지는 어디일까?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기록이 옛 고구현 자리에 설치된 봉수와 관련된 내용이다. 다음의 자료를 살펴보자.

① 봉화가 2곳이다. 흥양산성 … 고구성(高丘城), 주(州) 서쪽에 있는데, 남쪽으로 결성 고산에, 서쪽으로 해미 성산(城山)에, 또 서산 도비산(都飛山)에 응한다.『세종실록』지리지 홍주목)

② 고구성산(高丘城山) 봉수(烽燧), 남쪽으로 결성현 고산과 호응하고, 서쪽으로는 서산군 도비산(都飛山)과 호응한다.『신증동국여지승람』 권19 충청도 홍주목, 봉수)

③ 봉수, 고구봉수(高丘烽燧), 4칸으로 고북면에 있는데 관문으로부터 거리는 40리이다. 남쪽은 결성 고산봉수를 마주하고 서쪽은 서산 도비산봉수에 맞대응한다.『여지도서』 해미현 봉수)

①과 ②를 보면 고구성(산) 봉수가 결성 고산과 해미 성산 사이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봉수가 있는 산의 지명인 고구(高丘)는 고려시대에 지금의 갈산면 지역에 있었던 고구현(高丘縣)의 지명과 같

다. 즉 고구성(산) 봉수는 옛 고구현의 성이 있는 산에 설치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곳은 현재 갈산면 취생리와 대사리, 서산시 고북면 신송리 사이에 있는 봉화산일 가능성이 높다. 지명이 같고, 봉수의 흔적뿐만 아니라 산성이 지금까지 남아 있기 때문이다.¹⁸⁾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고려시대의 고구현 영역을 정리하면, 조선시대 홍주목 고남면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현재의 홍성군 갈산면, 홍주목 고북면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현재의 서산시 고북면 일대, 고려시대의 정해현 영역에 해당하는 곳으로 현재의 서산시 해미면 반양리와 읍내리를 비롯한 서쪽과 남쪽 지역에 해당된 영역임을 알 수 있다. 그 중심지는 갈산면과 고북면의 경계에 있는 봉화산성이다.

7. 조선시대와 갈산

가. 조선 전기

고려에서 조선으로의 전환은 단순한 왕조의 교체를 의미하는 것 외에 정치·경제·사회·사상 등 모든 면에 걸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 강화는 매우 주목되는 것이다.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그 아래에 부·목·군·현을 두면서 모든 군·현에 지방관을 파견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홍성군 지역에는 1413년(태종 13)에 실시된 지방 행정구역의 개편 결과에 따라 갈산면 지역에 있었던 고구현이 폐지되고 홍주목¹⁹⁾과 결성현이 설치되었다.

이 과정에서 홍주목은 육로와 해로 교통의 요지로서 고려시대의 고구현을 비롯하여 신평·여양·홍양·합덕 등을 속현으로 삼아 직접 관할하였으며, 태안·서산·면천의 3개군을 영군으로, 해미·당진·덕산·예산·청양·결성·보령·대흥 등 8개현을 영현으로 삼았다. 세조 때에는 '진'이 설치되면서 진관 체제에 따른 지방 행정구역으로 개편되었다. 또한 첨절제사를 겸한 목사가 파견된 홍주진관은 이전 시기보다도 확대된 면적을 관할하게 되었는데, 서천군과 온양군이 새롭게 편입되었으며, 현으로는 평택·홍산·비인·남포·아산·신창 등이 편입되었다. 이로써 홍주진관은 서천·서산·태안·면천·온양 등의 5개 군과 평택·홍산·덕산·청양·대흥·비인·남포·결성·보령·아산·신창·예산·해미·당진 등의 14개 현을 관할하게 되었다.

그러면 현재의 갈산면 지역은 조선시대에 어떤 변천 과정을 겪었을까? 이와 관련하여 조선시대에 현

18)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삼태기형 산성은 그 지역을 통치했던 '성'들이 취했던 평면 형태로 알려져 있다. 그런 점에서 봉화산성은 홍성지역의 지방통치와 관련된 산성으로 믿어지는데, 봉화산성이 자리하고 있는 곳은 백제의 우견현, 통일신라의 목우현, 그리고 고려시대 고구현이 자리하고 있던 곳이기 때문이다. 그 관할구역은 홍성의 갈산면에서 서산의 고북면, 해미면 일대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지역에서 치성(治城)으로 생각되는 산성은 봉화산성 하나뿐이다. 그런 점에서 봉화산성은 이 지역에 설치되어 있었던 현의 치소였던 것으로 믿어진다. 다만 그것이 백제 우견현의 치소였는지, 아니면 통일신라시대 목우현의 치소였는지가 문제일 뿐이다.(서정석, 『홍성지역의 산성과 백제의 군현』, 『백제문화』47, 공주대 백제문화연구소, 2012.

19) 운주(漣州), 안평(安平), 해풍(海豊), 해흥(海興), 홍양(洪陽) 등의 명칭도 있다.

재의 갈산면 지역에 해당하는 지명의 변천 과정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살펴보았다. 먼저 조선 전기의 자료는 『세종실록』 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조선 후기의 자료는 『여지도서』, 『호구총수』, 『홍주지도』 등을 참고하였다. 먼저 조선 전기의 갈산면 지역에 대하여 1454년(단종 2)에 완성된 『세종실록』 지리지와 1530년(중종 25)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바탕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 ① 홍주목(洪州牧) 사(使) 1인, 판관(判官) 1인. … 속현(屬縣)이 5 … 이다. 고구현(高丘縣)은 본래 백제의 우견현(牛見縣)인데, 신라에서 목우현(目牛縣)으로 고쳐 이산군(伊山郡)의 영현을 삼았고, 고려에서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다. … 위 4현은 현종 9년에 모두 운주(運州) 임내(任內)에 붙였다. 고구(高丘)의 성이 20이니, 전(全)·이(李)요, 망성이 30이니 임(任)·신(申)·노(盧)이다. … 고구현의 토산(土產)은 큰 새우, 홍어, 송어이다. … 봉화가 2곳이니, 흥양산성(興陽山城), 고구성(高丘城)은 주(州) 서쪽에 있는데, 남쪽으로 결성 고산에, 서쪽으로 해미 성산(城山)에, 또 서산 도비산에 응한다.(『세종실록』 지리지 충청도 홍주목)
- ② 금정도(金井道)의 관할 역이 110이다. 광시(光時)·세천(世川)·용곡(龍谷)·급천(汲泉)·순성(順成)·흥세(興世)·풍전(豐田)·하천(下川)·몽웅(夢熊)·해문(海門)·청연(靑淵)²⁰⁾ (『세종실록』 지리지 충청도)
- ③ 역(驛)이 10이니, 몽웅(夢熊)이다. 봉화가 1곳이니, 안국산(安國山)이다. 현의 북쪽에 있는데, 동쪽으로 고구(高丘) 성산(城山)에, 서쪽으로 서산(瑞山) 도비산(都飛山)에 응한다.(『세종실록』 지리지 충청도 홍주목 해미현)
- ④ 【성씨】 고구(高丘), 이(李), 전(全), 임(任), 신(申), 노(盧)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9 충청도 홍주목, 성씨)
- ⑤ 【산천】 삼존산(三尊山), 주 서쪽 17리에 있다. … 바다 고구(高丘), 신평(新平), 흥양(興陽)은 모두 바다와 접하고 있다.(『신증동국여지승람』 권19 충청도 홍주목, 산천)
- ⑥ 【봉수】 흥양곶 봉수(興陽串烽燧) 동쪽으로 보령현(保寧縣) 조침산(助侵山)과 호응하고, 북쪽으로 결성현(結城縣) 고산(高山)과 호응한다. 고구성산 봉수(高丘城山烽燧) 남쪽으로 결성현 고산과 호응하고, 서쪽으로는 서산군 도비산(都飛山)과 호응한다.(『신증동국여지승람』 권19 충청도 홍주목, 봉수)
- ⑦ 【불우】 삼존사(三尊寺) 삼존산(三尊山)에 있다.(『신증동국여지승람』 권19 충청도 홍주목, 불우)
- ⑧ 【고적】 고구폐현(高丘廢縣) 주 서쪽 30리에 있다. 본래 백제의 우견현(牛見縣)이었는데, 신라 때에 목우(目牛)로 고쳐 이산군(伊山郡)의 속현으로 삼았고, 고려 초기에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으며, 현종 9년에 본주에 붙였다. …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9 충청도 홍주목, 고적)
- ⑨ 【성지】 고구고성(高邱古城), 지금 성산(城山)이라 하는데 옛터가 있다.(『신증동국여지승람』 권19 충청도 홍주목, 성지)

20) 금정도(金井道)는 충청도 중로(中路) 중 서부로 연결된 소로(小路) · 소역(小驛)을 관장하였고, 중심 역은 청양의 금정역이다. 뒤에 시흥도(時興道)가 금정도에 병합되었다. 처음에는 역승(驛丞)의 역도였다가 뒤에 찰방(察訪)의 역도로 승격하였다. 청양~대흥, 청양~결성~홍주~보령~해미~서산~태안으로 연결되는 역로를 관장하였다. 이에 속한 역은 대흥의 광시(光時), 결성의 해문(海門), 보령의 청연(靑淵), 홍주의 세천(世川) · 용곡(龍谷), 해미의 몽웅(夢熊), 태안의 하천(下川), 서산의 풍전(豐田) 등 8개이다. 시흥도(時興道)는 온양의 시흥역을 중심으로 한 역도(驛道)이다. 관할범위는 아산(牙山)~온양(溫陽)~신창(新昌)~예산(禮山)~덕산(德山) 역로와 신창~면천(沔川)~당진(唐津)에 이어지는 역로이다. 이에 속하는 역은 신창의 창덕(昌德), 예산의 일흥(日興), 덕산의 급천(汲泉), 면천의 순성(順城), 당진의 흥세(興世), 아산의 장시(長時), 평택의 화천(花川) 등 7개 역이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앞에 제시된 자료 가운데 ①, ⑧의 내용을 보면, 현재의 갈산면 지역에는 고려시대에 홍주목의 간접통치를 받는 고구현이 있고 그 거점성으로서 고구성(현재의 봉화산성)이 있었다. 조선시대에도 이어져 고구현은 홍주목의 속현이 되었다가 『동국여지승람』이 편찬된 1481년(성종 12) 이전에 속현마저 폐지되었다.²¹⁾

이와 함께 갈산면 지역과 관련된 조선 전기의 지명으로서 삼존사(三尊寺) 삼존산(三尊山), 고구성(高丘城), 고구성산(高丘城山), 고구고성(高邱古城), 성산(城山) 등이 있는데 이와 관련된 오늘날의 지명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삼존산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 갈산면 가곡리에 있는 삼존산이다. 따라서 삼존사는 삼존산 중턱에 있는 절이 이와 관련이 있다. 고구성(高丘城), 고구성산(高丘城山), 고구고성(高邱古城), 성산(城山)은 모두 같은 곳을 가리킨다. 봉수가 설치되었고 고려의 고구현 성(城)과 관련된 지명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①, ③, ⑥에 의하면 고구성(산) 봉수가 결성 고산과 해미 성산 사이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⑤, ⑧에 의하면 그 위치는 홍주목의 서쪽으로 30리에 있는데, 삼존산(현재의 삼존산) 보다 더 서쪽에 있고 바다와 인접한 곳임을 알 수 있다. 이곳은 현재 갈산면 취생리와 대사리, 서산시 고북면 신송리 사이에 있는 봉화산일 가능성이 높다. 지명이 같고, 봉수의 흔적뿐만 아니라 산성이 지금까지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세종실록』 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을 토대로 살펴본 조선 전기의 갈산면 지역의 교통로는 금정도²²⁾를 따라 이동하였다. 북쪽으로 올라가면 금정도에 속한 해미의 몽웅역에 이르고, 남쪽으로 내려가면 결성의 해문역을 지나 홍주의 세천역으로 나아간다. 한양으로 올라갈 경우에는 몽웅역에서 북쪽으로 당진이나 서산으로 이동하여 시흥도를 따라 올라갈 수 있고, 뱃길을 이용할 수도 있다. 동쪽으로 가야산을 넘어가면 덕산현을 지나 급천역(현재 예산군 삼교읍 역리)에서 구만포를 따라 뱃길을 이용하거나, 육로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시흥도²³⁾를 따라 예산~신창~아산~평택을 이용할 수도 있다.

21) 고구현이 폐지된 시기는 분명하지 않는데 여양현의 사례를 고려하면 1408년(태종 8) 즈음으로 생각된다. 태종 8년 무자(1408) 10월 13일(정해), 여양현(驪陽縣)을 홍주(洪州)에 합치고 비로소 판관(判官)을 두었으니, 여양이 홍주와의 거리가 겨우 20리 이기 때문이다.([『태종실록』])

22) 금정도(金井道)는 충청도 중로(中路) 중 서부로 연결된 소로(小路)·소역(小驛)을 관장하였고, 중심 역은 청양의 금정역이다. 뒤에 시흥도가 금정도에 병합되었다. 처음에는 역승(驛丞)에서 뒤에 찰방(察訪)으로 승격하였다. 청양~홍주~결성~해미~서산~태안, 청양~대흥, 청양~보령으로 연결되는 역로를 관장하였다. 이에 속한 역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홍주의 용곡(龍谷, 청양군 화성면 용당리 용곡)·세천(世川, 홍성군 홍동면 원천리 세천), 결성의 해문(海門, 홍성군 결성면 무량리 역말), 해미의 몽웅(夢熊, 해미면 동암리 역말), 서산의 풍전(豊田, 서산군 인지면 풍전리 역말), 태안의 하천(下川, 태안군 태안읍 인평리 역리), 대흥의 광시(光時, 예산군 광시면 광시리), 보령의 청연(靑淵, 보령군 주포면 관산리 역말) 등 8개이다.

23) 시흥도(時興道)는 온양의 시흥역을 중심으로 한 역도(驛道)이다. 관할 범위는 평택~아산~온양~신창(新昌)~예산~덕산 역로와 신창~면천~당진에 이어지는 역로이다. 이에 속하는 역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평택의 화천(花川, 평택시 팽성읍 추팔리 역말), 아산의 장시(長時, 아산군 영인면 역리), 온양의 시흥(時興, 아산시 송악면 역촌리 역말), 신창의 창덕(昌德, 아산군 신창면 창암리 역말), 예산의 일흥(日興, 예산군 오가면 역탑리 역말), 덕산의 급천(汲泉, 예산군 삼교읍 역리 역말), 면천의 순성(順城, 당진시 순성면 양유리 대촌), 당진의 흥세(興世, 당진시 당진2동 용연동) 등 7개 역이다.

나. 조선 후기

조선 후기 갈산면 지역의 지명은 홍주목의 면과 리의 변천 과정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다. 갈산면 지역이 속해 있던 홍주목은 일반적으로 27면(面)을 관할하였는데, 『여지도서』에는 해도가 포함되면서 28면이 되었고, 『호구총수』에서는 해도와 서문외면이 추가되어 29면이 되었다. 이 외에도 1793년(정조 17)에는 홍주목의 고북면을 나누어 해미면에 줄 것인지의 문제로 갈등이 있는 이후 고북면과 고남면을 각각 고북상도면과 고북하도면, 고남상도면과 고남하도면으로 분할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1872년에 제작된 규장각본 ‘홍주지도’에 의하면, 주북, 주남, 궁경, 변천, 홍천, 오사, 성지, 상전, 치사, 용천, 고남, 고북, 운천, 대감개, 송지곡, 홍안송, 금동, 평리, 유곡, 얼방, 화성, 홍구향, 합북, 합남, 신북, 신남, 현내 등 27개 면이 보이는데, 『호구총수』에서 보였던 해도와 서문외면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의 갈산면 지역에 해당하는 조선 후기 지명을 1757년(영조 33)~1765년 사이에 편찬된 『여지도서』와 1789년(정조 13)에 제작된 『호구총수』 및 1872년에 작성된 규장각본 「홍주지도」의 고남면을 중심으로 각각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여지도서』, 『호구총수』, 「홍주지도」에 나타난 고남면의 마을 지명

『여지도서』 편호(編戶) 653호 男 1,910口, 女 2,241口	『호구총수』 원호(元戶) 789호 남 1,611, 여 1,715	「홍주지도」	
		기존 지명	새 지명
취생리吹笙里	취생리吹笙里	취생吹笙	동곡東谷, 신대新垔
암동리巖洞里	암동리巖洞里	—	산직山直, 장항獐項
—	석사리石寺里	석사石寺	내갈內葛, 노상路上
저전리楮田里	저전리楮田里	저전楮田	하리下里, 강변江邊
성치리城峙里	성치리城峙里	성치星峙	행촌杏村, 상촌上村
동화산리東花山里	동화산리東花山里	동화東花	노동魯東, 신기新基
사천리沙川里	사천리沙川里	사천沙川	이동梨洞, 산직山直
—	서촌리西村里	—	입리甘里, 동곡東谷
내기리內基里	내기리內基里	내기內基	이화梨花, 해두蟹頭
부귀동리富貴洞里	부귀동리富貴洞里	부귀富貴	다산茶山, 소성小城
소기리小基里	소기리小基里	소기小基	
조양리朝陽里	조양리朝陽里	—	
—	산정리山井里	—	
정자동리亭子洞里	정자동리亭子洞里	정자亭子(고북)	
진죽리鎭竹里	진죽리鎭竹里	진죽鎭竹	
오두리鰲頭里	오두리鰲頭里	오두鰲頭	
—	갈두리架頭里	—	
사혜리思惠里	사혜리思惠里	사혜思惠	
언내리堰內里	언내리堰內里	언두堰頭	
대박동리大朴洞里	대박동리大博洞里	—	

-	용계리龍峴里	-	
나부촌리羅浮村里	나부촌리羅浮村里	-	
운정리雲亭里	운정리雲亭里	운정云井	
-	방곡리芳谷里	방곡芳谷	
수한리水漢里	수한리水閑里	수한水閑(고북)	
지곡리紙谷里	지곡리紙谷里	지곡紙谷	
증산리甌山里	증산리甌山里	증산甌山	
오도곡리吾道谷里	오도곡리吾道谷里	-	
수척리水尺里	수척리水尺里	-	
용암리龍巖里	용암리龍巖里	용암龍岩	
음산리陰山里	음산리陰山里	음산陰山	
-	동성리東城里	-	
쌍천리雙川里	쌍천리雙川里	쌍천雙川	
신리新里	신리新里	신촌新村	
신작동리新作洞里	-	-	
아내동리牙乃洞里	안악동리安樂洞里	안악安樂	
구성동리九城洞里	구성동리九城洞里	구성九城	
삼존리三尊里	-	삼존三尊	
-	취운동리翠雲洞里	-	
-	평리坪里	평리坪里	
동막리東幕里	동막리東幕里	동막東幕	
갈오개리葛五介里	갈오개리葛五介里	갈오葛五	

〈표 1〉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하나의 특징은 조선 후기에 홍주목 고남면의 호구(戶口) 수 변화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여지도서』에 보이는 편호(編戶)는 653호이고, 『호구총수』에 나타난 원호(元戶)는 789호로서 자연스러운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인구수는 오히려 줄고 있기 때문이다. 즉 『여지도서』에서 남자는 1,910명이고 여자는 2,241명인데, 『호구총수』에서는 남자가 1,611명, 여자가 1,715명 이어서 남·녀 모두 줄어들었음이 확인된다. 『여지도서』와 『호구총수』의 기록에서 불과 30여년 차이지만 인구수의 감소는 마을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어 지명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변화 가운데 첫째, 『여지도서』에 있던 마을 가운데 『호구총수』가 편찬될 무렵에 이미 없어진 마을이 있는가 하면, 둘째, 『여지도서』와 『호구총수』에는 지명이 있지만 『홍주지도』에는 보이지 않는 지명도 있고, 셋째, 『호구총수』에서 처음 보이는 지명이지만 『홍주지도』부터 나타나지 않는 지명이 있다. 먼저 첫 번째의 경우로는 ‘신작동리新作洞里’가 있다. 『여지도서』가 작성될 무렵에는 지명의 뜻처럼 ‘새롭게 만들어진 마을’로서 신작동리였지만 30여년만에 『호구총수』가 편찬될 무렵에는 마을의 지명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여지도서』에 의하면, 신작동리는 편성된 호(戶)가 9호이고 남자는 10명, 여자는 14명이었다.

두 번째 경우로는 나부촌리羅浮村里, 대박동리大朴洞里(『호구총수』에서는 大博洞里), 암동리巖洞里,

오도곡리吾道谷里, 조양리朝陽里 등이 있다. 나부촌리羅浮村里는 『여지도서』에 의하면 편성된 호(戶)는 44호이고 남자는 305명, 여자는 414명이었다. 대박동리大朴洞里(『호구총수』에서는 大博洞里)는 편성된 호는 18호, 남자는 45명, 여자는 50명이었다. 암동리巖洞里는 편성된 호가 24호, 남자는 89명, 여자는 95명이었다. 오도곡리吾道谷里는 편성된 호가 22호, 남자는 27명, 여자는 25명이었다. 조양리朝陽里는 편성된 호가 10호, 남자는 13명, 여자는 27명이었다. 오도곡리와 조양리의 경우는 호구수가 적은 편이라 「홍주지도」가 작성될 무렵에는 마을이 없어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부촌리와 대박동리, 암동리의 경우는 호구수를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는 생각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세 번째의 경우는 산정리山井里, 용계리龍岬里, 갈두리笊頭里, 취운동리翠雲洞里, 서촌리西村里, 동성리東城里 등이 있다. 그런데 세 번째의 사례는 현재까지 알려진 기록을 바탕으로 그 위치는 물론이고 호구수도 알기 어렵다. 『여지도서』와 『호구총수』를 비교할 때 불과 30여년 차이지만 전체적으로 호(戶)의 수는 늘었지만 인구수가 감소되어 마을 자체가 없어졌다면 이와 같은 사례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고남면은 조선 후기에 서산시 고북면과 더불어 ‘~상도면’과 ‘~하도면’으로 나뉘었는데 정확한 시기는 알기 어렵다. 다만 1793년(정조 17) 고북면의 소속 문제로 고북면을 나누어 해미현에 속하도록 했다가 홍주에 돌려주는 문제로 갈등이 있는 이후 고북면과 고남면을 각각 고북상도면과 고북하도면, 고남상도면과 고남하도면으로 분할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²⁴⁾

이와 같은 지명의 변천은 1872년에 이르러 「홍주지도」가 제작될 무렵에 다시 한 번 더 큰 변화를 보인다. 새로운 지명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홍주지도」에만 지명이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동곡東谷, 신대新垆, 산직山直, 장항獐項, 내갈內葛, 노상路上, 하리下里, 강변江邊, 행촌杏村, 상촌上村, 노동魯東, 신기新基, 이동梨洞, 산직山直, 입리廿里, 동곡東谷, 이화梨花, 해두蟹頭, 다산茶山, 소성小城 등의 지명이 새롭게 나타났는데, 이 중에서 소성小城, 강변江邊, 이화梨花, 입리廿里는 「홍주지도」에만 보인다. 새롭게 나타난 지명은 대부분 바닷가와 와룡천 주변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24) 이번 5월 27일 비변사 품사당상(稟事堂上), 충청도 암행어사, 이조·병조당상이 함께 입시하였을 때에 유사당상 정민시(鄭民始)·김문순(金文淳)·심이지(沈頤之)·윤행임(尹行任)이 아뢰기를, 정민시 등이 말하기를, “하나는 해미(海美) 선창에 물이 고이지 않아 만약 조수의 넘칠 때가 아니면 배를 운행할 길이 없고 봄이나 가을에 개를 파면 백성의 폐단이 너무 심합니다. 홍주(洪州)의 고북면(高北面)에 한 갈래 큰 길이 있는데 만약 횡으로 잘라서 두 지경을 만들어 길 위로는 홍주에 소속시키고 길 아래는 베어서 본 현에 주면 실제로 양쪽이 편리한 방도가 된다고 합니다. 선창의 개를 파는 폐단이 연해의 곤수(閭帥, 조선·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를 통틀어 이르던 말)가 있는 읍은 대부분 이와 같아서 해미만 그러할 뿐이 아닙니다. 고북면도 전에 이미 당해 현에 획급하였으나 바로 홍주(洪州) 사람들의 호소로 인하여 본읍에 환부(還付)하였는데 지금에 이르러 다시 획급을 의논하면 다만 번거롭고 설만할 뿐이니 그대로 두는 것이 어떨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비변사등록』 제181책 정조 17년 계축 5월) 한편 토지박물관 소장의 1794년 토지매매문서에 따르면 “홍주 고남상도면의 밭 3두락 여를 14냥에 매매” 한다는 문서가 있다. (토지박물관, 소장문서번호 : 20-토5-173, 등록번호 : MF0008609, 제어번호 : 1108084) 그러나 규장각본 「홍주지도」에는 이러한 내용이 적용되지 않아 혼란이 있다.

다. 그 중에서 현재의 지명으로 볼 때 와룡천 주변의 행산리, 상촌리, 내갈리 등이 있고, 바닷가에 위치한 마을로는 오두리, 동성리, 기산리 등이 있다.

그 후 갈산면 지역은 1895년(고종 32) 5월 26일 칙령 제98호로 지방제도가 개정되면서 ‘도’제가 폐지되고 전국이 23부제로 개편되었을 때에는 홍주부 아래의 홍주군 관할이 되었고, 1896년(건양 원년) 8월 4일 칙령 제36호에 따라 지방제도가 다시 개정되어 23부제가 폐지되고 13도제로 개편되었을 때에는 충청도가 갈라진 충청남도 홍주군에 소속되었다.²⁵⁾ 1913년 12월 군의 명칭과 관할구역이 개정되고, 1914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군·면 통폐합에 따라 홍주군²⁶⁾과 보령군 일부²⁷⁾가 합쳐져 홍성군이 되었을 때 갈산면 지역은 홍성군 갈산면이 되었다.

8. 근·현대의 갈산

1914년 군·면 통·폐합령은 홍주군과 결성군을 통합시키고 보령군의 일부를 편입하여 홍성군을 형성시켰다. 이 과정에서 충청남도령 제3호에 따라 개정된 면은 <표 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홍주, 홍북, 금마, 홍동, 장곡, 고도, 장곡, 은하, 구항, 광천, 서부 등 11개 면이다. 이때 조정된 홍성군은 일방, 홍구향, 화성, 상전 등 4개 면이 청양군으로 넘어갔고, 고남상도와 고남하도의 2개 면을 합쳐 ‘고도면(→갈산면)’이라 하였다. 아울러 현내, 은하, 구항, 화산, 용천, 가산, 광천, 두암, 상서, 하서 등의 결성군²⁸⁾ 10개 면, 보령군 청소면의 청촌, 양촌, 음촌, 석포리 일부를 병합한 웅암리, 오천군의 천북, 창리, 구창동, 두실동, 벌리, 덕두리 일부 지역, 청양군 상서면의 하강리 일부 지역, 대흥군 일남면의 화암리 일부 지역, 덕산군 덕산면의 수촌리 일부 지역 등이 병합되어 홍성군 권역을 형성하게 되었다.²⁹⁾

25) 이때 홍주군은 충청남도 산하 37군 가운데 1등군 공주에 이어 2등군으로 편제되었으며, 결성군은 4등군에 편제되었다. 아울러 홍주군 소속이던 합남, 합북, 현내, 신남, 신북 등 5개 면이 당진군으로 옮겨지고, 용천면이 오천군에 옮겨졌으며, 고북, 운천 2개 면이 해미군으로 옮겨졌다. 군에는 군수를 두고 그 아래로 향장, 서기를 두었는데, 향장은 뒤에 폐지하고 군주사를 두었다.

26) 이때 홍주의 일방면, 홍구향면, 화성면, 상전면 등 4개 면을 청양군으로 옮겼다.

27) 이때 청소면 소속의 웅암리, 음촌, 양촌, 청촌 등 4개리를 홍주로 옮겼다.

28) 1925년에 간행된 『홍성군지』에 따르면, “결성의 옛 기록에는 10면 89동리가 결성군 소속이었지만, 면을 폐지하고 합칠 당시에 사곡면(巴谷面)이 용천면(龍川面)으로 되고, 구항면(仇項面)이 구항면(龜項面)이 되며, 두척면(斗尺面)이 두령면(斗嶺面)이 된 시기는 알기 어렵다.”라고 하였다.

29) 1925년에 간행된 『홍성군지』에 따르면, “홍주면은 처음에는 홍양(洪陽)이라 하였다가 뒤에 지금의 명칭으로 고쳤다. 옛 홍주군 주북면 20동리, 주남면 15동리를 포함한다. 홍북면은 옛 홍주군 홍천면 17동리, 치사면 11동리, 대감개면 18동리를 포함한다. 금마면은 옛 홍주군 평리면 22동리, 송지곡면 18동리를 포함한다. 홍동면은 옛 홍주군 금동면 28동리, 홍안송면 27동리, 번천면 36동리를 포함한다. 장곡면은 옛 홍주군 유곡면 26동리, 성지곡면 23동리, 오사면 17동리를 포함한다. 고도면은 옛 홍주군 고남상도면, 고남하도면을 포함한다.(고남면 51동리) 결성면은 처음에는 용천이라 하고 뒤에 지금의 명칭으로 고쳤다. 옛 결성군 현내면 10동리, 용천면 44동리를 포함한다. 은하면은 옛 결성군 은하면, 가산면 12동리를 포함한다. 구항면은 옛 결성군 구항면 3동리, 두령면 7동리, 화산면 9동리를 포함한다. 광천면은 옛 결성군 광천면 8동리 일원, 옛 홍주군 궁경면 24동리를 포함한다. 서부면은 옛 결성군 상서면 7동리, 하서면 12동리를 포함한다.”라고 하였다.

〈표 2〉 1914년 충청남도령 제3호 개정 면 명칭 및 구역

면 명칭	옛 군 및 면 명칭과 구역
홍주면	(처음에는 홍양(洪陽)이라 하였다가 뒤에 지금의 명칭으로 고쳤다.) 옛 홍주군 주북면 20동리, 주남면 15동리 일원.
홍북면	옛 홍주군 홍천면 17동리, 치사면 11동리, 대감개면 18동리 일원
금마면	옛 홍주군 평리면 22동리, 송지곡면 18동리 일원
홍동면	옛 홍주군 금동면 28동리, 홍안송면 27동리, 번천면 36동리 일원
장곡면	옛 홍주군 유곡면 26동리, 성지곡면 23동리, 오사면 17동리 일원
고도면	옛 홍주군 고남상도면, 고남하도면 일원(고남면 51동리)
결성면	(처음에는 용천이라 하고 뒤에 지금의 명칭으로 고쳤다.) 옛 결성군 현내면 10동리와 용천면 44동리 일원
은하면	옛 결성군 은하면, 가산면 12동리 일원
구항면	옛 결성군 구항면 3동리, 두령면 7동리, 화산면 9동리 일원
광천면	옛 결성군 광천면 8동리 일원, 옛 홍주군 궁경면 24동리 일원
서부면	옛 결성군 상서면 7동리, 하서면 12동리 일원

이 때 조정된 면·리 구역 조정 현황은 〈표 3〉과 같다.

〈표 3〉 1914년 군·명 명칭 개정 및 구역 조정 현황

면 명	리 명
홍주면	－ 고암·남장·신성·학계·송월리(이상 옛 홍주군 주남면), 대교·오관·옥암·월산·소항리(이상 옛 홍주군 주북면)
홍동면	－ 수란·금당·대영·효학·신기리(이상 옛 홍주군 금동면), 팔괴·구정·금평·문당리(이상 옛 홍주군 홍안송면), 구룡리(이상 옛 홍주군 송지곡면), 원천·월현·월림·운월·화신·홍원·운룡·대평리(이상 옛 홍주군 번천면)
고도면	－ 행산·쌍천·동산·갈오·신안·가곡리(이상 옛 홍주군 고남하도면), 내갈·상촌리(이상 옛 홍주군 고남상도면), 오두·부기리(이상 옛 홍주군 고남하도면), 기산·동성·취생·운곡리(이상 옛 홍주군 고남상도면)
장곡면	－ 산성리(이상 옛 홍주군 유곡·얼방면), 옥계·월계·행정·대현·천태리 (이상 옛 홍주군 유곡면), 신동·도산·신평·상송리(이상 옛 홍주군 성지면), 가송·죽전·화계·오성·광성리(이상 옛 홍주군 오사면), 지정리(이상 옛 홍주군 유곡면)
홍북면	－ 신경·대동·용산·석택리(이상 옛 홍주군 치사면), 중계·상하·봉신·내법·내덕리 (이상 옛 홍주군 홍천면), 신정·갈산·산수·노은·대인리(이상 옛 홍주군 대감개면)
금마면	－ 가산·인산·봉서·월암·덕정·부평·송암·용흥리(이상 옛 홍주군 평리면), 죽림·신곡·장성·송강·화양리(이상 옛 홍주군 송지곡면)
결성면	－ 성곡·금곡·읍내·무량·성호·성남리(이상 옛 결성군 현내면), 중·교항·용호·와·형산리(이상 옛 결성군 용천면)
은하면	－ 목현·덕실·대판·화봉·장척리(이상 옛 결성군 가산면), 장곡·유송·대천·학산·금곡·대율리(이상 옛 결성군 은하면)
서부면	－ 판교·신·양곡·남당·어사리(이상 옛 결성군 하서면), 거차·이호·상황·궁·광리 (이상 옛 결성군 상서면)
구항면	－ 장양·남산·공·오봉·황곡리(이상 옛 결성군 화산면), 마온·청광·지정·대정·신평리 (이상 옛 결성군 두령면), 내현·태봉리(이상 옛 결성군 구항면)
광천면	－ 광천·담산·가정·내죽·소암리(이상 옛 결성군 광천면), 웅암리(이상 옛 보령군 청소면), 신진·매현·벽계·상정리(이상 옛 홍주군 궁경면)

한편 이때 충청남도 고시 제46호에 의해 변경된 홍성군 동리 구역 및 명칭 가운데 갈산면 지역과 관련 된 지명은 <표 4>와 같다.

〈표 4〉 1914년 홍성군 동리 구역 및 명칭(1925년간 『홍성군지』에 따른 갈산면 지역)

면 명	리 명	옛 면	옛 동리 구역 명칭
고도면 (高道)	행산리 (杏山里)	홍주군 고남하도	신기리新基里, 행촌杏村, 이동梨洞, 장항리獐項里 일부 편입, 용천用川(결성)面 와리臥里 일부 편입, 이동 일부 쌍천리雙川里로 편입
	쌍천리 (雙川里)	홍주군 고남하도	이동梨洞 일부 편입, 쌍천리雙川里, 수척리水尺里, 용암리龍岩里, 쌍천리 일부 동산리東山里로 편입, 용암리 일부 동산리로 편입
	동산리 (東山里)	홍주군 고남하도	동촌東村, 음산리陰山里, 후동後洞, 용암리 일부 편입, 쌍천리 일부 편입, 다산리茶山里 일부 편입, 신촌新村 일부 편입, 구항면龜項面 화리禾里 일부 편입, 구항면 대야리大也里 일부 편입
	갈오리 (葛五里)	홍주군 고남하도	갈오리葛五里, 예산군 덕산면 낙천리樂川里 일부 편입, 갈오리 일부 예산군 덕산면 낙상리樂上里로 편입
	신안리 (新安里)	홍주군 고남하도	원성리元城里, 구성동九城洞, 안악동安樂洞, 노상리路上里 일부 편입, 신촌新村, 다산리 일부 편입, 원성리 일부 예산군 덕산면 복당리卜唐里 · 낙상리로 편입, 구성동 일부 예산군 덕산면 복당리로 편입, 신촌 일부 동산리로 편입
	가곡리 (嘉谷里)	홍주군 고남하도	노상리路上里, 평리坪里, 동막리東幕里, 삼준리三峻里, 예산군 덕산면 복당리 일부 편입, 예산군 덕산면 평리 일부 편입, 예산군 덕산면 내라리內羅里 일부 편입, 노상리 일부 신안리로 편입
	내갈리 (內葛里)	홍주군 고남상도	중산리鰲山里, 다산리茶山里, 내갈리內葛里, 상촌上村 일부 편입, 다산리 일부 동산리 · 신안리新安里로 편입
	상촌리 (上村里)	홍주군 고남상도	노동老洞, 상촌上村, 하리下里, 상촌 일부 내갈리 · 운곡리로 편입
	오두리 (鰲頭里)	홍주군 고남하도	장항리獐項里, 언두리堰頭里, 사혜리思惠里, 해두리蟹頭里, 오두리鰲頭里, 장항리獐項里 일부 행산리로 편입, 오두리 일부 부기리로 편입
	부기리 (富基里)	홍주군 고남하도	진죽리鎭竹里, 부귀리富貴里, 소기리小基里, 오두리鰲頭里 일부 편입, 산직리山直里 일부 편입, 소기리 일부 취생리吹笙里로 편입
결성면	기산리 (基山里)	홍주군 고남상도	산직리山直里, 내기리內基里, 사천리沙川里, 동화리東化里 일부 편입, 산직리 일부 부기리富基里로 편입, 사천리 일부 취생리로 편입
	동성리 (東星里)	홍주군 고남상도	동화리東化里, 동곡리東谷里, 성포리星浦里, 성촌星村, 동화리 일부 기산리基山里로 편입, 성촌 일부 취생리 · 서산군 고북면 양천리로 편입
	취생리 (吹笙里)	홍주군 고남상도	백야리白野里, 석사리石寺里, 취생리吹笙里, 저전리楮田里, 서산군 고북면 소정리小亭里 일부 편입, 사천리 일부 편입, 소기리小基里 일부 편입, 성촌星村 일부 편입, 백야리 일부 서산군 고북면 양천리楊川里로 편입
고북면	운곡리 (雲谷里)	홍주군 고남상도	운정리雲井里, 방곡리芳谷里, 지곡리紙谷里, 신대리新岱里, 상촌上村 일부 편입, 서산군 고북면 수한리水閑里 일부 편입, 방곡리 일부 서산군 고북면 대사리大寺里로 편입
	대사리 (大寺里)	해미군 고북면	대사동大寺洞, 계곡리桂谷里, 수한리水閑里, 고남면 방곡리芳谷里 일부 편입, 수한리 일부 고도면 운곡리雲谷里로 편입

그 후 갈산면 지역이 속한 홍성군의 변화는 1941년 홍주면이 홍성읍으로 승격하고, 1942년 10월 광천면이 읍으로 승격하였으며, 고도면이 갈산면으로 변경되었다. 1983년 2월 전국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서산군 고북면 대사리와 결성면 와리를 갈산면에, 홍동면 월림 · 대평 · 운용리를 광천읍에, 결성면 중리를 서부면에, 홍북면 내법리와 홍동면 구룡리를 홍성읍에 각각 편입하여 홍성 · 광천읍, 갈산 · 장곡 · 구항 · 금마 · 서부 · 은하 · 장곡 · 홍동 · 홍북 등 2개읍 9개면으로 개편되었다. 2017년 8월 1일 홍북면이 홍북읍으로 승격하여 3읍 8면 150개 법정리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갈산면은 1983년 2월 행정구역 개편 이후 현재 16개 법정리 29개 마을로 형성되었다. 

논 단

유교의 현재화와 우리 교육 1¹⁾

김 경 수 (청운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1. 들어가며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모두 귀가한 교정에서 깨진 유리조각을 줍는 페스탈로치의 모습은 언제나 그 리움의 대상이다. 아침마다 아파트 뒷산 등산로의 낙엽을 쓸고 있는 퇴직하신 교장선생님의 모습은 항상 감사함으로 다가온다. 누구나 할 수 있는 평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정작 본인에게 하라고 하면 실천하기 쉽지 않다.

첨단 과학의 시대에 과거의 교육 철학과 교육 사상을 분석하고, 이들의 주장에 귀 기울이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일까? 이들의 교육철학과 방법이 이 시대 교육(교육 현장)에 유의미한 영감을 줄 수 있을까? 생각과 문화가 상당히 달라진 상황에서 원활한 소통이 가능할까? 라는 의문이 든다. 그러나 다가올 미래에는 오래전 교육사상가들이 주장했던 교육 철학과 사상을 다시 도입해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일반적으로 교육 당사자라고 하면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말한다. 이들은 각기 다른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학생은 교육을 받을 권리, 학부모는 훌륭한 교사와 현대식 편의 시설을 갖춘 교육기관에 자녀의 교육을 맡길 권리, 교사는 학생을 교육할 권리가 그것이다. 그런데 각자가 주장하는 권리는 융화보다 갈등의 골이 깊은 것이 현재의 모습이다. 교육 당사자의 권리 충돌로 인한 갈등이 깊어질수록 교육은 퇴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권리의 충돌 속에서 학생의 학습권과 부모의 교육권, 교사의 교육권을 슬기롭게 조

1) 이 글은 백록학회(2020. 10.23. 논산시 종학당)에서 발표한 글이며, 세 번에 나누어 연재하고자 한다. 연구 논문이라기보다 시사성을 띤 제안 성격이 강한 글이라는 전제에서, 각주를 달지 않았다. 독자의 해량을 구한다.

화시켜 긍정적인 발전성을 도모해야 하는 고민과 성찰, 대안의 강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교육 당사자 중 교사들의 권리와 직결되는 ‘교권’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해를 거듭할수록 누적되는 상황에서 더욱 중요하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학교 현장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교사의 교육권이 근본부터 흔들렸다.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코로나 이후에 야기될 교육문제에 대한 위기감을 걱정하고 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일부 교사들은 거칠어진 학생들을 교실에서 만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한다는 것이다.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중·고교시절 교실에서 잠만 자던 습관이 체질화된 일부 학생들이, 대학 입학 후에도 그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성인으로 독립적인 자신을 구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모든 학생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초·중·고를 넘어 대학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교실 붕괴 현상이 사회 전체의 위기로 확산되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이유이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대안이 교육이라는 점에서, 오늘 현재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진지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접근하고 고민해야 할 것이다.

1960년대 이후 우리 사회는 산업화와 근대화를 이루면서, 세계적으로도 전무후무한 고도성장과 함께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되었다. 그런데 고도성장에 따른 풍요로운 삶의 향유라는 긍정적인 요소 외에, 부정적인 요소도 동시에 드러났다. 물질만능주의와 가족 해체,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윤리·도덕의 해이, 인간성 상실 및 전통 문화와 사상의 경시 풍조, 쾌락주의적 사고방식의 팽배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 세대 간, 지역 간, 젠더 간 갈등과 대립이라는 복잡한 문제까지 동반되었다. 더욱이 학교 교육 현장의 붕괴가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면서, 스승과 제자 사이의 정은 찾아보기 어렵게 된 것이 사실이다.²⁾

이런 상황에서 누적된 우리 사회(교육)의 폐단을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들이 모아지면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모색되기 시작했다. 예의와 인성 등 인간의 기본적인 도덕 질서가 붕괴된 상황에서, 인류의 공통 이념인 자유와 복지, 행복과 사랑의 회복이 당면 과제로 대두된 것이다.

이상의 문제 해결을 위해 조선왕조 이후 오늘 현재까지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유교 문화와 유교 사상(의식)을 근간으로 대안을 강구하자는 논의는 유의미하게 다가온다. 삼국시대 수용된 이래 조선왕조에서 만개하였던 유교(문화, 사상)는 사회 질서 유지의 기준이자, 실천 윤리, 정치 이념과 정

2) 학생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학생을 위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가르치고 지도한다는 교육 방침에 따라, 학생의 인권은 상당한 수준으로 보장되고 확장되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교권의 실추라는 반대 현상이 나타났다. ‘스승의 날’ 폐지를 요청하는 교사들의 청원은, 교권 실추의 상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되기 어려운 정도로 무너진 교실 분위기는, 일반인들의 상상을 허락하지 않는 상황까지 초래되었다. 거칠어진 학생들의 언행과 학부모의 엄청난 민원 제기, 인성 교육이 불가능한 교육 현실의 문제점 등은 작금의 우리 교육 현실을 잘 보여준다. 이런 문제에 대한 교사들의 고민이 명퇴로 이어지면서, 교육 현장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치 운영의 원리로 작용하였다. 현재까지도 그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는 전제의 성립을 바탕으로 과제의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는 결국 유교를 통한 대안 찾기가 전혀 엉뚱한 방법이 아니라는 판단에서 출발하는 것이다.³⁾

그런데 물질만능주의로 타락한 현대 사회의 윤리와 도덕을 바로 세우는데, 유교가 유일한 정답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단정이 결코 쉽지 않지만, 근사치 답은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행실에 앞선다.’는 증자의 말과 ‘가정은 도덕의 학교’라는 페스탈로치의 말은 유효 기간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유·무형의 유교 정신(사상)과 문화유산의 적절한 활용을 통해 우리 교육의 방향성을 찾고, 붕괴된 윤리·도덕과 사제 간의 정을 복원시켜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2. 우리 교육의 어제와 오늘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경제 성장과 산업화라는 경제 논리에 종속되어, 교육 현장은 교과서 지식을 암기하고, 전문 지식을 습득하여 노동시장에 참여하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되어 있었다. 교사에게 입시에 필요한 지식 전달자의 역할만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고조되다 보니, 학생이나 교사 모두 교육 철학과 교육 목표, 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요구하기 어려웠다. 그러다 보니 입시에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인성과 도덕,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관심,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고민했던 역사 속 지도자의 리더십과 헌신, 살신성인의 희생정신에 대한 이해와 교훈 찾기가 교실에서 사라진지 이미 오래되었다.⁴⁾

단언컨대 미래 사회에서 안정된 직업이란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인문학적 소양과 감수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기획하는 능력과 창의력을 가지고 유연하게 삶을 디자인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교육계에서는 학생의 삶 전체를 바라보는 ‘온전한 교육’에 대한 비전 설정이 필요하고, 이를 일깨울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 and 구체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가 알고 있던(알고자 했던) 교육사상가들의 일관된 고민은 올바른 학생의 삶을 바라보는 ‘온전한 교육’에 대한 꿈이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전제 역시 오래전에 꾸었던 미래라고 생각된다.

교육학에서 말하는 교육(敎育)에 대한 정의는, ‘인간 행동의 계획적 변화’이다. 좋은 상황(가치 있는 일)에 적용할 수 있는 의도된 교육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강아지의 변화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3) 유교 외에 불교나 기독교적 관점에서, 현실 교육의 해결 대안 강구도 가능하다. 본고에서는 유교의 입장에서 접근하였음을 밝힌다.

4) 현재 학교 현장에서 윤리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 어렵다는 고백을 하는 교사들이 많다. 바닥에 떨어진 휴지를 치우라는 교사의 말에, 학생의 대답은 ‘직접 치우세요’라고 했다는 것이 현장의 소리이다.

이지, 교육에 의한 것이라고 하지 않는다. 조폭 두목이 부하를 교육시킨다는 말 역시 맞지 않는다, 이들이 추구하는 행위는 좋은 일, 가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가 교육을 한다는 것은 특정 대상에 대해 ‘가치 있는 일’을 가르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간’으로 변화시킨다는 의미이다. 부모가 자녀는 직접 가르치기 어렵다는 격언(易子敎之)과 가정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자.

공자가 하나뿐인 아들을 직접 가르치지 않자, 공손추가 스승 맹자에게 물었다. “군자가 자기 아들을 직접 가르치지 않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르치는 사람은 반드시 바름으로 해야 하는데 바름으로 가르쳤는데도 행하지 않으면 노여움이 따르게 되고, 그러면 부자 사이의 정리가 상하게 된다. ‘아버지가 내게 바름으로 가르치지만 아버지 역시 바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부자간의 정리가 상하게 되고, 부자간의 정리가 상하게 되면 미워하게 된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서로 자식을 바꾸어 가르쳤고(易子而敎之), 부자 사이에는 잘하라고 책망하지 않았던 것이다. 잘하라고 책망하면 사이가 멀어지게 되고, 멀어지면 그보다 상서롭지 못한 일은 없게 된다.”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식은 직접 가르치지 않는다(易子敎之)’는 교훈이다.

공자의 아들 공리(孔鯉)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공자의 문하에서 공부했다. 일부 제자들은 스승이 자기들보다는 아들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진항(陳亢)이 백어(伯魚, 공리)에게 물었다. “그대 역시 특별한 것을 들었소?(아버지에게서 특별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소?)” 공리가 대답했다. “없소. 일찍이 혼자 계실 때 정원을 지나가는데 시를 배웠냐고 물으셔서 배우지 않았다고 대답했더니, 시를 배우지 않으면 말을 할 수 없다고 하시기에 물러 나와 시를 배웠다오.

또, 한번은 혼자 계실 때 정원을 지나가는데 예를 배웠냐고 물으셔서 배우지 않았다고 대답했더니 예를 배우지 않으면 바로 설 수가 없다고 하시기에 물러 나와 예를 배웠다오. 이 두 가지를 들었다오.” 진항은 물러 나와 기뻐하며 말했다. “한 가지를 물었는데 세 가지를 얻었구나. 시를 듣고 예를 들었으며, 군자는 자기 자식을 멀리한다(자기 자식만을 특별히 따로 가르치지 않는)는 것을 들었다.”⁶⁾ 이 이야기는 ‘문일득삼(問一得三)’과 ‘뜰에서의 가르침(庭訓)’, 즉 가정교육을 의미한다.

공자의 사례를 통해 가정교육의 어려움과 중요성, 가치와 의미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서양의 교육사상가 페스탈로치(1746.1.12.~1827.2.17.)⁷⁾ 역시 무엇보다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

5) 公孫丑曰, 君子之不敎子, 何也. 孟子曰, 勢不行也. 敎者必以正, 以正不行, 繼之以怒. 繼之以怒, 則反夷矣. 夫子敎我以正, 夫子未出於正也則是父子相夷也. 父子相夷, 則惡矣. 古者易子而敎之, 父子之間不責善, 責善則離, 離則不祥莫大焉(『맹자』 「離婁上」).

6) 陳亢問於伯魚曰, 子亦有異聞乎. 對曰, 未也. 嘗獨立, 鯉趨而過庭, 曰學詩乎. 對曰, 未也. 不學詩, 無以言. 鯉退而學詩. 他日, 又獨立, 鯉趨而過庭, 曰學禮乎. 對曰未也. 不學禮, 無以立. 鯉退而學禮. 聞斯二者, 陳亢退而喜曰, 問一得三. 聞詩聞禮, 又聞君子之遠其子也(『논어』 「季氏」).

7) 요비명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 편히 쉬다. 하인리히 페스탈로치. 1746년 1월 12일 취리히에서 태어나서 1827년 2월 17일에 브루크에서 잠들다. 노이호프에서는 빈인의 구원자, 린하르트와 게르트루트에서는 민중의 목자, 슈탄쓰에서는 고아의 아버지, 부르크도르프와 뮌헨브흐제에서는 새로운 민중학교의 창설자, 이벨당에서는 인류의 교육자. 참된 인간, 참된 기독교도, 참된 시민, 모든 것을 남을 위해 바치고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의 이름 위에!”

다. 가정교육에서 가장 중시해야 하는 것은 시민적 도덕성의 기본이 되는 믿음, 감사, 신뢰, 사랑의 감정 교육이자 시민 생활의 기본이 되는 질서 있는 생활태도, 순수한 감정, 자연스러운 기초교육, 자발적 학습 의욕의 고취라고 하였다. 즉 인류의 타락은 인간의 타락, 인간의 타락은 가정의 타락, 가정의 타락은 모성의 타락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가정의 재건, 안방의 정화, 어린이 교육 책임의 가정 귀속성, 모성을 일깨워 주는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증자(曾子)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온갖 행실에 앞선다(孝慈者 百行之先)”고 했다. 가정은 삶의 기본 바탕이며, 가정이 안정되어야 사회가 안정되고 국가가 발전한다고 하여, 페스탈로치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 “마음속에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고 한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부모가 손을 맞잡고 화기애애한 모습으로 가정을 꾸려간다면 자식들은 이를 보고 배울 것이다. 그런 점에서 페스탈로치는 “가정은 도덕의 학교”라고 했고, “훌륭한 한 명의 어머니는 백 명의 교사보다 낫다”고 했다. 가정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동·서양의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공자와 페스탈로치 등 동서양을 대표하는 교육사상가의 사례를 볼 때, 교육의 중요성, 특히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지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물질적 풍요 속에 금전만능주의 사고방식과 극단적 이기주의가 팽배하였고, 쾌락주의적 사고방식이 만연하였다. 결혼 가정의 증가와 전통적 가치관의 붕괴, 부권(父權)의 부재와 모권(母權)의 포기 등 가정의 교육적 기능이 상당히 무너진 것이 사실이다. 유흥업소의 폭발적인 증가와 ‘N번방’과 같은 통제 불가능한 성문란 사례의 범람으로,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 파괴와 이에 따른 청소년 범죄의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청소년 범죄가 흉포화하고 학교가 무너진 것은 특정 계층만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 모두의 책임인 만큼, 다함께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혈연적인 만남처럼, 학교에서 스승과 제자의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하다. 학생은 스승을 존경하고 스승은 학생을 사랑하며,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전인교육(인성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학교는 우정을 키워가는 장, 삶의 지혜와 호연지기를 길러주고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곳, 가고 싶은 곳, 머물고 싶은 곳, 즐거운 삶의 장(場)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문제의 해결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교육문제는 개인과 가정에서 출발하여 학교와 지자체, 교육담당 부서 및 정부가 모두 지혜를 모으고 감당해야 할 몫이다. “사람의 천성은 비슷하지만 습관으로 인하여 서로 멀어진다(性相近也 習相遠也)”(『論語』陽貨篇)는 말처럼, 교육문제에 관련해서는 가정과 학교, 사회와 국가 모두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 개인은 도덕성을 갖춘 품성(人格)을, 가정에서는 올바른 가풍(家風)을, 사회는 보다 나은 사회기풍(社風)을, 학교에서는 스승을 존경하고 제자를 사랑하며 우정을 키워가는 새로운 교풍(校風)을 세워야 한다. 이를 종합하여 국가에서는 정권 유지를 위한 인기영합적인 단발의 교육정책보다, 백년을 내다보는 큰 그림을 그려 나라의 품격(國格)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교육이 국가의 백년대계(百年大計)라는 함의는 오래전에 형성되었지만, 입시위주의 교육 현실은 학교(교육) 붕괴를 부채질하고 있다. 더군다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나름 획기적인(?) 교육정책을 발표하다 보니, ‘교육 백년대계’가 아니라, ‘교육 5년 소계(小計)’가 되고 말았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함몰된 현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덕과 인 등을 바탕으로 하는 배려와 관용을 중시하는 유교 문화(유교 의식)는 전통시대에나 어울리는 진부한 사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유교를 특정 지식인 집단의 전유물로 인식되지 않게 하면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유교의 긍정적인 면이 부각되어 물질만능주의에 빠져 인간성이 상실된 현대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유교문화(의식)에서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이 정립되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유교문화가 우리 교육 현실에 적용되어 최상의 대안 강구가 가능할 것이다.

우리나라 곳곳에 광범하게 존재하는 유교 문화(유교 문화유산 및 유교의식)는 전통과 현대를 접목시킬 수 있는 중요한 가교이다. 유교 문화 자원의 개발과 추진은 산업화만큼이나 급속하게 붕괴된 인간성 상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써 시의적절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어떠한 사상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생성, 변화, 발전, 소멸의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유교 역시 원형 그대로의 복원보다는 현대인의 삶과 문화 인식에 맞추어 재구성 혹은 재탄생시킬 때, 실효성이 담보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

- 다음 호에 이어



논 단

풍수지리(風水地理)는 음양(陰陽)이다.

김 시 환 (원광대대학원 박사수료)

풍수지리의 사전적 의미는 “산세(山勢), 지세(地勢), 수세(水勢) 따위를 판단하여 이것을 인간의 길흉 화복(吉凶禍福)에 연결시켜 설명하려는 이론이나 주장”으로 설명되고 있지만, 원래 풍수지리는 음양(陰陽)에서 시작되어 음양(陰陽)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천지(天地) 자연(自然)과 인간의 삶 역시 음양을 바탕으로 배태(胚胎)되어 조화되기 때문에 이 또한 음양일 수밖에 없다.

풍수지리(風水地理)라는 용어를 가지고 음양(陰陽)을 구분하면 풍수는 동정론(動靜論)이 전제가 되는데 바람, 물, 땅 중에서 바람은 물이 있는 곳에서 생겨서 움직임이 있어서 양(陽)이 되고, 물은 동적(動的)이기 때문에 양(陽)으로 분류하고, 땅은 움직임이 없이 정적(靜的)이기 때문에 음(陰)으로 규정한다.

그러면 풍수지리는 음양학(陰陽學)인데 어떻다는 말인가? 다른 아닌 산(山)에 해당하는 음(陰)과 물에 해당하는 양(陽)이 조화(調和)를 이루면 혈(穴)이 되고 부조화(不調和)가 되면 혈(穴)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혈(穴)을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보금자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음양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돌아가신 분의 보금자리인 묘(墓)는 음택(陰宅)이라 하고 살아있는 자의 보금자리인 집은 양택(陽宅)으로 부르고 있다.

음양에 대하여 표(表)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번호(番號)/음양(陰陽)	양(陽)	음(陰)
1	천(天)	지(地)
2	부(父)	모(母)
3	일(日)	월(月)
4	남(男)	여(女)
5	좌(左)	우(右)
6	전(前)	후(後)
7	주(晝)	야(夜)
8	춘하(春夏)	추동(秋冬)
9	귀(貴)	부(富)
10	수(水)	산(山)
11	명(明)	암(暗)
12	강(強)	약(弱)
13	동(動)	정(靜)
14	선(先)	후(後)
15	대(大)	소(小)
16	강(剛)	유(柔)
17	면(面)	배(背)
18	철(凸)	요(凹)
19	좌선용(左旋龍)	우선용(右旋龍)
20	좌선수(左旋水)	우선수(右旋水)

위 표(表)에서 구분한 음양(陰陽)을 사례별(事例別)로 비교하고 분석해서 조화(調和)에 따른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보면,

1. 천(天)과 지(地)는 주역(周易) 설괘전(說卦傳) 제(第) 3장(章)에 “천지정위(天地定位) 산택통기(山澤通氣) 뇌풍상박(雷風相搏) 수화불상사(水火不相射) 팔괘상착(八卦相錯) 수왕자순(數往者順) 지래자역(知來者逆) 시고(是故) 역(易) 역수야(逆數也).” 즉 “양(陽)인 하늘은 위에 음(陰)인 땅은 아래에 자리함으로 바르게 자리를 잡고, 산과 연못은 서로 기운을 통하고, 우레와 바람은 서로 부딪치고, 물과 불이 서로 쓰지 아니하며, 팔괘가 서로 섞이니, 가는 것을 수놓음은 순하고, 오는 것을 얹은 거슬리는 것이니, 이러한 까닭으로 역은 수를 거스름이다.”라고 하였고,

2. 부모(父母)는 “부생아신(父生我身) 모국아신(母鞠我身)” 즉 “아버지는 나의 몸을 낳으시고 어머니는 나의 몸을 기르셨다.”고 하였으며,

3. 일월(日月)은 낮과 밤을 상징하며 인간에게 행운(幸運)과 수명(壽命)을 내려주는 신령(神靈)으로 일신(日神)과 월신(月神)이 신장사상(神將思想)으로 발전하였다.

4. 남녀(男女)는 성혼기(成婚期)에 조화(調和)가 이루어지면 명당에 혈이 맺히거나 과일나무에 열매가 열리듯이 가정을 꾸려 자식을 낳고 백년해로(百年偕老)를 한다.

5. 좌우(左右)는 사신사(四神砂)에서 좌청룡(左靑龍)은 양(陽)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침 해가 용처럼 솟구치고 완연(蜿蜒)하고 있으나, 우백호(右白虎)는 음(陰)이기 때문에 지는 해가 웅크리고 있는 호랑이같이 준거(蹲踞)하는 모양을 해야 한다.

6. 전후(前後)는 명당(明堂)에서 혈장(穴場)이 되기 위해서는 전저후고(前低後高)해야 한다. 정혈(定穴)을 하는데 있어 음래양수(陰來陽受) 처(處)에 혈이 맺히는 원리이다.

7. 주야(晝夜)는 조선시대 사대부(士大夫)들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서 낮에는 유학서적을 보았으나 저녁에는 풍수서적을 탐닉(耽溺)하는 주유야풍(晝儒夜風)을 하였다.

8. 춘하추동(春夏秋冬)은 춘하(春夏)는 양(陽)이 팽창(膨脹)하는 시기로 주역(周易) 지천태(地天泰)에서 천산돈(天山遯)괘에 이르고, 추동(秋冬)은 음(陰)이 응축(凝縮)하는 시기로 천지비(天地否)에서 지택림(地澤臨)괘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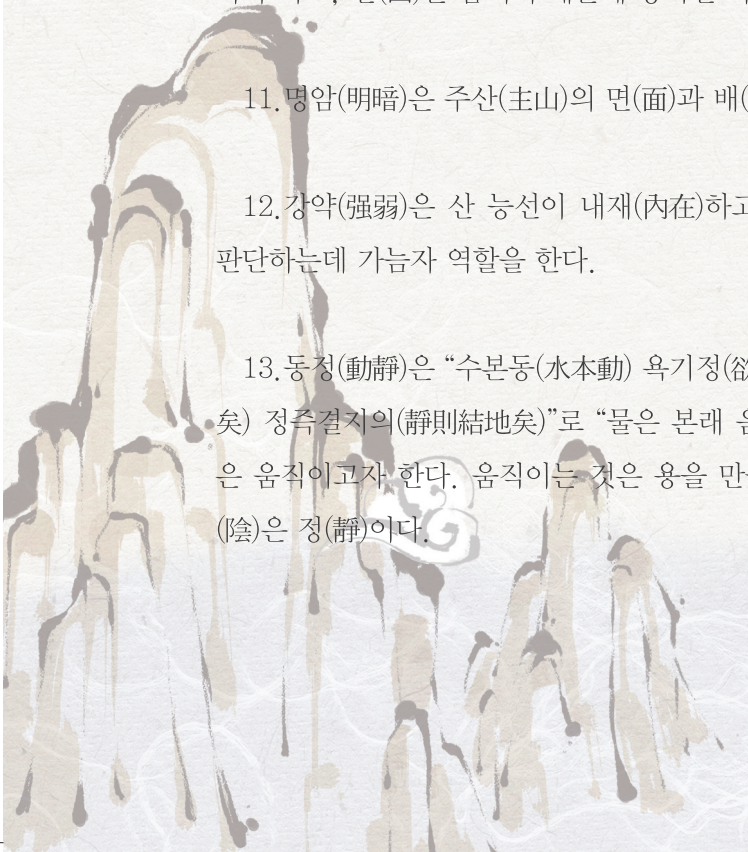
9. 귀부(貴富)는 귀(貴)가 양(陽)이고 부(富)가 음(陰)에 해당하는데, 사신사에서 좌청룡은 귀에 해당하고, 우백호는 부에 해당한다. 또한 오형산(五形山)에서 양산(陽山)인 목(木), 화(火)는 귀인(貴人)이 나오고, 음산(陰山)인 토(土), 금(金)은 거부(巨富)가 나온다.

10. 수산(水山)은 수(水)는 양이기 때문에 음적인 운동성에 해당하는 천천히 느리게 파구(破口)로 흘러가야 하고, 산(山)은 음이기 때문에 양적인 지현굴곡(之玄屈曲)하는 모습으로 입수(入首)해야 한다.

11. 명암(明暗)은 주산(主山)의 면(面)과 배(背)를 구분하는데 얼굴은 밝아야하고 등은 어두워야 한다.

12. 강약(強弱)은 산 능선이 내재(內在)하고 있는 기운(氣運)이 강룡(強龍)이나 약룡(弱龍)이나 여부를 판단하는데 가늠자 역할을 한다.

13. 동정(動靜)은 “수본동(水本動) 욕기정(欲其靜) 산본정(山本靜) 욕기동(欲其動), 동즉성룡의(動則成龍矣) 정즉결지의(靜則結地矣)”로 “물은 본래 움직임으로 물은 고요하고자 하며, 산은 본래 고요함으로 산은 움직이고자 한다. 움직이는 것은 용을 만들고 고요한 것은 혈을 맺는다.” 즉 양(陽)은 동(動)이요, 음(陰)은 정(靜)이다.



14. 선후(先後)는 용두마신(龍頭馬身)의 하도(河圖)와 신구(神龜)의 낙서(洛書)를 구분하고, 선천수와 후천수를 분류하고 선천팔괘(先天八卦)와 후천팔괘(後天八卦)를 상징한다.

15. 대소(大小)는 “양래일편(陽來一片) 음래일선(陰來一線)”으로 “주택으로 삼을 자리는 용맥(龍脈)이 넓고 크게 들어오고, 묘지로 쓸 곳은 용맥(龍脈)이 가늘고 작게 들어온다.”

16. 강유(剛柔)는 형세론(形勢論)에서 세(勢), 형(形), 혈(穴)과 태(胎), 식(息), 잉(孕), 육(育)으로 이론을 나누는데, 세산(勢山)은 세력이 있는 석산(石山)으로 강해야 하고, 형산과 혈은 토산(土山)으로 부드러워야 한다. 또한 태, 식은 기결차게 강해야 하고 잉과 육은 부드러워야 한다.

17. 면배(面背)는 산에 얼굴과 등으로 면(面)은 경사가 완만하고 토색이 밝은데 반해 배(背)는 급경사이면서 거친 바위가 돌출하고 토색이 어둡다.

18. 철요(凸凹)는 철(凸)은 양(陽)의 모양을 하였기 때문에 음(陰)에 해당하는 묘지를 써야하고, 요(凹)는 음(陰)의 모양을 하였기 때문에 양(陽)에 해당하는 주택을 건축해야 한다.

19. 좌선용, 우선용(左旋龍, 右旋龍)은 주산(主山)이나 현무정(玄武頂)에서 분벽(分關)한 능선(稜線)이 우(右)에서 좌(左)로 돌아 혈(穴)로 들어오면 좌선룡이고, 좌(左)에서 우(右)로 돌아 들어오면 우선용이다.

20. 좌선수, 우선수(左旋水, 右旋水)는 내청룡(內靑龍)이나 내백호(內白虎) 밖에 처음 보이는 물이 혈장(穴場)을 지나서 파구(破口)로 흐르는 물길이 좌(左)에서 우(右)로 향해 좌수도우(左水到右)하면 좌선수이고, 우(右)에서 좌(左)로 향해 우수도좌(右水到左)하면 우선수에 해당이 된다.

용(龍)과 수(水)를 정리하면 용(龍)이 좌선용이면 수(水)는 우선수여야 음과 양이 배합(配合)이 되고, 용(龍)이 우선용이면 수(水)는 좌선수여야 음양이 조화되어 음양합국(陰陽合局)이 되는 것이다.

중국 한(漢)나라 때 청오자(靑鳥子)라는 분이 저술(著述)한 풍수 장경(葬經)인 청오경(靑鳥經)에 “음양부합(陰陽符合) 천지교통(天地交通) 내기맹생(內氣萌生) 외기성형(外氣成形) 내외상승(內外上乘) 풍수자성(風水自成)”이란 내용이 있는데, 이는 “음과 양이 서로 부합하고 하늘과 땅이 서로 사귀어 통하고 안에 있는 기운으로 인해 싹이 나오고 밖에 기운으로 인해 모양을 갖추고 밖에 기운과 안에 기운이 함께 상승하면 풍수는 스스로 이루어진다.”라는 말로 음양(陰陽)을 대신하고자 한다. ☸

특별기고

홍성에서의 한용운 정신 계승



김 광 식

1. 서언

만해 한용운의 고향은 충남 홍성이다. 만해는 홍성에서 태어나, 서당에서 한문과 유학을 공부하였다. 그리고 부친(한응준)이 별세하자 3년 상을 치루었고, 결혼을 하였고, 그의 아들(한보국)이 태어났다. 그리고 홍성에는 집안의 물적 토대가 있었고, 그의 집안의 가족(모친, 처자식)과 친인척들이 살고 있었다. 그러나 만해는 1차 출가(19세, 1897)를 해서 백담사 등지에서 승려의 길을 갔다. 그러나 적응을 하지 못하고 고향에 돌아와서 가족과 함께 지내다가, 2차 출가(25세, 1904)를 단행하였다. 만해는 그로부터 입적할 때(1944)까지 홍성에 돌아오지 않았던 것으로 전한다. 그러나 홍성에는 만해에 대한 연고지, 다양한 기록, 구전, 소문 등이 전해져 오고 있다.

그런데 1980년대 초반부터 독립기념관 건립 운동의 영향, 충청의 일이라는 자부심 및 민족정신의 고취, 지역 관광 사업의 추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홍성의 주민 및 지자체(군청, 문화원 등)에서는 만해 사업을 추진하였다. 지금도 홍성에서는 홍성 출신인 만해를 높이 평가하고, 만해정신을 계승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홍성에서의 만해 삶, 만해정신의 계승, 만해 사업에 대한 정리 및 연구는 매우 희박하다.¹⁾ 홍성에서의 만해에 대한 연구는 만해학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홍성 지방사의 정리 및 만해사업의 기반 구축 등에서도 중요한 대상이다. 홍성에서의 만해 사업은 시비

1) 한계진, 「만해 한용운 사상형성과 배경」, 『선청어문』 29호, 2001.

이변영, 「한용운」, 『용감했던 홍성사람들』, 글을 읽다, 2006.

김광식, 「한용운의 아들, 한보국 삶」, 『한용운 연구』, 동국대출판부, 2011.

, 「한용운의 불교사상과 독립정신」, 『내포의 불교사상과 문화』,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2015.

한건택, 「홍성에서의 만해 한용운」, 『홍성문화』 32권 1호, 2013.

, 「홍성에서의 만해 한용운과 한보국」, 『만해학보』 16호, 2016.

(1982) 및 동상(1985)의 건립, 생가 복원(1992), 만해제(1995)²⁾, 민족시비 공원(2005), 만해체험관 건립(2007), 만해기념사업회(2014) 설립 등 다양하다.

만해정신의 계승의 문제를 연구 주제로 인식하고 있는 필자는 만해와 홍성의 관련성을 중요하게 수용하였다. 그러나 관련 자료의 부족, 분석할 기회의 부재 등의 요인으로 이에 대한 문제를 연구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홍성과 만해 연구와 관련된 시비 및 동상 건립, 생가지 조성, 만해 묘소 이전 등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만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정리가 만해학, 만해정신 계승, 홍성 지방사 등의 연구에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2. 시비 및 동상 건립

홍성에 만해 시비가 처음으로 건립된 시점은 1982년 6월 26일이었다. 홍성읍 남산 공원에 만해 시비가 추진된 시점은 1980년 7월이었는데, 그는 당시 전국적으로 추진된 선비정신 되살기운동에서 나왔다. 당시 국문학을 전공하는 학자 김동욱(연세대 교수)이 주도한 전국시가비 건립 동호회(1978년 발족)는 선비정신 회복 차원에서 각처에 선비, 지사들의 시가비 건립운동을 추진하였다. 그 운동의 일환으로 홍성에 만해 시비의³⁾ 건립을 추진하였던 것이다.⁴⁾ 이런 움직임에는 홍성 출신이었던 김동욱의 고향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 만해 시비의 제작비는 국문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의 십시일반의 모금(당시 1인당 1~2만원)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만해 시비는 2년여의 준비를 거쳐 1982년 6월 26일에 제막되었다.



▲ 남산공원의 한용운 시비

2) 만해제를 본격적으로 개최하기 이전, 1992년 6월 29~30일 수덕사 및 홍성군청에서 만해 48주기 추모회, 문학의 밤, 강연회, 만해학회 창립총회 및 학술세미나(30일) 등이 열렸다. 그날, 『만해학보』 창간호가 나와, 만해 영전에 봉정되었다. 이날의 행사가 계기가 되어 만해제가 기획되었다. 『만해세월』 창간호, 1996, p.43, 「만해제 준비위원회 황규철 홍성문화원장을 찾아서」와 『동아일보』 1992.7.1, 「만해학회 창립」 참고, 『경향신문』 1992.6.25, 「만해 48주기 추모행사 다채」.

이 행사의 참가자는 박두진, 조병화, 고은, 한계전, 오세영, 김재홍, 유안진, 김종철, 김상현, 허우성, 고재석, 한영숙, 김관호, 설산스님(정토사), 법장스님(수덕사), 홍주문학회 회원 등이다. 황규철은 고교동창인 김재홍(경희대)교수와 협력하여 만해제를 기획, 추진하였다.

3) 그런데 문헌 기록에는 만해의 어느 시를 제작하였는지는 나오지 않는다. ‘알수 없어요’가 남산 입구에 박두진의 친필로 새겨져 있는 데, 이것이 그 대상이라 이해된다.

4) 『동아일보』 1980.7.8, 「선비정신 되살리기 운동」, 만해 시비를 세우자는 제안을 인물은 알 수 없다. 김동욱은 홍성 출신인데, 그가 제안했을 가능성이 있다. 홍성읍 남산공원에 김동욱 문학비가 세워져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만해 생가터의 민족시비 공원에 이전되었다.

만해 한용운 시비 제막식이 오는 26일 오전 11시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남산 공원에서 있다. 이날 제막식에 있어 시 낭송과 김관호씨의 「만해 독립정신과 말년」, 정한모 교수의 「만해의 시세계」 등에 관한 강연이 있다.⁵⁾

시가비 건립 동호회가 건립한 만해의 시 「알 수 없어요」 비석의 제막식에는 이송녕(학술원), 박두진(시인), 김동욱(학술원), 김선규(홍성군수), 김혜숙(시 낭송) 등이 참여하였다. 즉 홍성 지역 및 외부 인사들의 많은 관심속에 거행되었다.

한편 홍성의 남산공원에 만해 시비가 세워진 때로부터 3년 후인 1985년 12월 2일, 그곳에 만해 동상이 건립되어 제막식을 가졌다.⁶⁾

만해 한용운 선생의 동상이 세워져 2일 하오 2시 선생의 출생지인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남장리에서 각계 인사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됐다. 만해동상 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최창규의원)가 지난 83년 9월 국비 8천 5백만원과 성금 7천만원 등 모두 1억 5천 5백만원을 들여 8천 3백평방m의 성지 한 복판에 건립한 이 동상은 높이 5.2m(좌단 2m, 입상3.2m)로 이화여대 강태성교수가 제작한 것이다.⁷⁾

이와 같은 보도기사에 나오듯이 2천여명이 참가한 행사이었음을⁸⁾ 고려할 때 상당히 규모가 큰 사업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동상과 관련된 제반 개요는 동상 인근에 세워진 건립문에 상세하게 나온다. 그 건립문에는 건립 취지의 글(위원장 최창규 지음), 동상의 건립 주체(고문, 자문위원, 임원, 후원단체 등)가 나온다. 동상의 하단 좌우의 기단에는 만해의 시, ‘님의 침묵’과 ‘독자에게’가 새겨져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동상 건립과정을 전하는 보훈처의 문건 설명을 제시한다.

1985. 12. 2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남장리 산43-1번지에 만해 한용운 선생 동상을 건립하였다. 만해 한용운선사의 훈업을 민족정신의 지표로 삼고 이 고장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홍주훈의 구심점 강화에 그 건립의 목적으로 삼고자 1985.12.2. 남산 마루에 선사의 동상을 세웠다. 1983년 9월 8일 최창규의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동상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1983년 12월 4일 각계 각층의 의견과 충분한 고증을 거쳐 1984년 3월 15일 동상 제작 계획을 확정하고 건립기금으로 도비 4천만원과 군비 2천5백만원을 지원받아 주민부담 9천만원 총 155백만원을 들여 제작했다. 동상은 두루마기를 입은 모습에 왼손에는 독립선언문을 들고 오른손을 높이 치켜 올린 40대 당시의 입상으로, 동상의 자체 높이는 3.2m이고 무게는 1.5톤으로 이화여대 강태성이 제작을 담당하였다. 33인중의 1인을 나타내는

5) 『동아일보』 1982.6.24, 「만해 한용운시비 26일 제막」.

6) 동상에는 ‘근海 韓龍雲 禪師 像’이라고 새겨져 있다. 그러나 동상 안내판에는 ‘한용운 선생 동상’이라고 나온다.

7) 『동아일보』 1985.12.2, 「한용운 선생 동상제막」.

8) 『조선일보』 1985.12.3, 「한용운 선생 동상 어제 제막」. 여기에서는 참가자가 5백여명이라 하였다.

동근원과 좌대는 승려 시인임을 표현하고 있다. 1985년 6월 13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기부금 9천만원의 모금 승인을 받아 공사비를 충당하게 되었으며 조경 분야에 있어서는 총부지 2,746평 중 우선 가능한 공사 부분부터 시행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96회에 걸친 총회 및 회장단 회의와 홍성주민 회장단의 680여회 모금 활동이 있었다. 동상의 글은 동상건립추진위원장 최창규가 짓고 글씨는 한국미술협회 고문 정향섭이 썼으며 조각은 이대교수 강태성이다.

만해 한용운선사 동상건립추진위원회 기구는 다음과 같다.

고문에는 유태흥 대법원장을 위시하여 11명이고 자문위원회에는 조광휘 군수를 위시하여 64명이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에는 최창규 위원장을 위시한 24명의 이사와 그 외 9명의 위원이 있었으며 후원단체로는 21개 단체 등이 협력하였다. 3각 날개에는 선사의 시인 「님의 침묵」이 쓰여 있다.⁹⁾

이와 같은 설명문에서 동상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다. 이 설명에서 나온 추진의 개요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983. 9. 8 ; 추진위원회 구성
위원장 ; 최창규(홍성 국회의원, 서울대 교수)
- 1984. 3. 15 ; 동상 계획 확정
- 1985. 6. 15 ; 모금 승인
도비 ; 4천만원
군비 ; 2천 5백만원
주민 부담 ; 9천만원
- * 회의 ; 96회
홍성 주민, 모금 활동 ; 680회

위와 같은 개요에서 드러난 동상 건립의 연유를 살피겠다. 첫째, 건립의 계기는 김동욱 교수가 주도한 시비 건립이 자극이 되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그 당시 전국적으로 추진된 독립기념관 건립 운동(1982~ 1987)도 자극이 되었을 것이다. 동상 건립문과 동상 건



▲ 한용운 동상

9) 대전 보존지정 홈페이지.

립의 추진 주체들의 성향을 보면 이런 측면을 동의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최창규는 당시 홍성·예산·청양의 국회의원이었다. 그는 면암 최익현의 현손의 청양 출신으로,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를 역임한 민족정신에 관심이 많은 정치인이었다. 그는 그 후에는 독립기념관 관장, 성균관 관장, 순국선열 유족회 명예 회장을 역임하였다. 셋째, 동상 건립은 홍성군 차원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홍성군 수가 주도하였고, 도비와 군비가 투입되었고, 실무 회의는 96회, 주민들의 모금 활동이 680회나 있었음에서 알 수 있다. 이런 배경에서 나온 건립문을 역사 기록의 차원에서 전문을 제시한다.

無等等 呪의 禪에는 平等의 참 根源이 있었고 有國의 情熱에는 나라 위한 큰 사랑이 담겼어라.

淸淨한 禪의 光明이 나라 위한 큰 사랑으로 만나 民族思想의 위대한 불꽃으로 타오르니 그 活性은 곧 저 三·一 運動의 높은 光茫이었다.

卍海 韓龍雲 先生

이 고장 洪州가 낳았고 歷史를 바르고 또 힘차게 살아주신 우리들의 영원한 님이다.

佛性を 그대로 現實 속에 꽃 피우니 高潔한 禪師요 그 禪을 웅혼한 民族의 氣魂으로 노래하니 克明한 겨레의 文士며 다시 民族代表 三十三人으로 歷史를 부동켜 안으니 民國의 毅然한 志士요 祖國 위한 그 끝없는 사랑을 不屈의 渾身 一生하니 곧 民族史 위의 우뚝한 스승이라.

님은 가슴마다에 있고 우리들의 가장 큰 님은 바로 이 祖國이다.

乙巳이후 最初의 義兵이 터졌던 忠節의 이 洪州城 산마루턱 바로 님이 出生하신 結城 고향 땅에 가까운 곳.

이제 이 고장의 卍海 님은 온 祖國 앞에 우뚝하게 올라서니 굳게 움켜진 獨立宣言書에는 오늘도 沈默을 깨고 들리는 警世永遠의 民族魂이 우렁차기만 하다.

이는 바로 光復 四十周年에 솟아오른 이곳 洪州城 義兵의 또 다른 民族 喊聲이니 곧 배달 겨레가 살아 있다는 生의 表象이라.

그래서 여기 받든 님의 精誠 속에 오늘도 우리들의 가장 큰 님인 이 民族史의 命運은 온 겨레 앞에 偉儼靑靑하기만 하다.

檀紀 4316년

光復 40주년 12월 2일

卍海 韓龍雲 先生 銅像 建立推進委員會

委員長 崔昌圭 謹撰

鄭恒燮 謹書

姜泰成 彫刻¹⁰⁾

10) 건립문은 홍성군청 공무원(이민수)에게 관련 사진(건립문 비석)을 협조받아 필자가 작성하였다. 비문을 잘못 판독하여, 일부 오자가 있을 수 있다.

위의 문장에 나오듯이 최창규는 홍주 사람들을 대신하여 만해를 홍주의병, 홍주정신을 상징하는 인물로 내세웠다. 그로부터 약 35년 후, 홍성군은 홍성읍내 상권 중심인 명동상가 입구에 만해 동상을 2011년에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세웠다. 군은 그 일대를 '만해로'로 부르고, 만해 동상을 건립했다.¹¹⁾ 그러나 여러 문제가 지적되자¹²⁾ 그 동상을 만해 생가지 근처인 야외로 2015년 6월에 이전하였다.¹³⁾

지금껏 살핀 홍성에서의 시비 및 동상 건립은 1980년대 전반기에 남산공원에, 그후 2011년에는 홍성읍내의 거리에 이루어졌다. 이는 만해정신 계승의 사업에서 선도적인 것이었다. 홍성에서의 이 사업은 그 이후 만해사업의 전위, 선두로서 홍성에서의 만해사상 계승을 추동하였다.

3. 만해 생가의 복원

만해 생가지(홍성군 결성면 성곡리)의 조성, 성역화 사업은 1991년부터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그 당시 홍성군수인 이상선에 의해 시작되었다. 최근(2020.6) 이상선은 지역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그 사정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홍성군 결성면 만해로 318번길 83의 만해 한용운 선사의 생가지(1989. 12. 29. 충청남도기념물 제75호 지정)에 대한 성역화 사업을 위한 첫 삽을 떴던 이상선 전 홍성군수에게 그 사연을 들어봤다.

이 군수에 따르면 “애초엔 생가지임을 알리는 나무 팻말만이 하나 외롭게 서있을 뿐이었다”는 게 당시의 상황 설명이다. (중략)

당시 역대 홍성군수 중에서 처음으로 홍성출신인 이상선 군수가 홍성군 제31대 군수로 1991년 1월 14일 부임했다. 당시 천안출신인 한청수 충남도지사가 홍성 발전의 중요성을 피력하면서 홍성출신인 이상선 충남도청 초대 공보관을 발탁해 보낸 배려였다고 한다. 한 지사의 응원으로 이상선 군수는 고향 군수로 부임하자마자 ‘홍성발전이 정말로 말이 아니라는 생각’에 ‘홍성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홍성의 대 변혁을 위한 기획’을 구상했다고 한다.

우선 물이 잘 흐르지 않아 썩는 냄새가 나는 홍성천의 시내(오관교~소방서) 구간에 대해 부족한 홍성읍내 주차장 해결을 위해 ‘복개 주차장공사’를 시작하고, 비포장 도로였던 광천통 도로포장, 생가지임을 알리는 나무 말뚝 팻말만 서 있던 만해 한용운 선사 생가지와 백야 김좌진 장군 생가지에 ‘생가복원 등 성역화 사업’을 시작한 것이 홍성출신 군수로서의 첫 행보였다고 설명한다.

특히 만해 한용운 선사 생가지 복원공사는 1991년부터 전액 군비로 성역화를 위한 첫 삽을 뜨기 시작해 생가지

11) 『홍성신문』 2011.2.18, 「명동거리에 '만해'가 우뚝 섰다. 동상과 홍상이 섰다고 하는데, 필자는 동상(전신상)만 확인했다.

12) 『홍주일보』 2015.5.1, 「다이소 지키는 만해선사?」.

13) 『홍주일보』 2015.6.29, 「만해 동상 말 많던 명동상가 떠나 생가지로」.

복원을 위한 기공식을 가졌다. 기공식에 광복회 회장과 조계종 총무원장 등을 초청했다. 기공식에 참석한 이강훈 광복회장과 조계종 총무원장을 대신해 참석한 강석주 스님은 만해 선사와의 인연을 소개하며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인사를 나누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후일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법장 스님은 서산의 절에서 조직한 불교합창단을 이끌고 수덕사의 큰 스님들과 함께 기공식에 참석했다고 이상선 전 군수는 회고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선 군수는 ‘만해 한용운 스님, 만해 한용운 선사, 만해 한용운 선생’ 등으로 불리고 있는 명칭에 대해 이날 초청한 스님들과 참석자들에게 “지금까지 스님, 선생, 선사 등으로 부르던 명칭을 불교계의 의견과 고증에 입각해 이제부터 ‘만해 한용운 선사’로 통일해 부르자”고 제안해 참석자들이 만장일치 박수로 동의하면서 “생가지 복원 당시부터 ‘만해 한용운 선사’로 명칭을 통일해 명명하기로 결정했다”고 사연을 소개했다.

당시 기공식 행사에 참석했던 불교계 인사들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만해의 딸인 한영숙 등은 “서울 망우리공원 묘지의 만해 한용운 선사의 묘도 고향으로 이전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생가지 옆의 자리를 함께 둘러보면서 참 좋은 훌륭한 묘 자리라고 찬탄을 했던 기억인데, 아직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며 “앞으로 만해 한용운 선사의 생가지 성역화 사업이 마무리 되는 과정에서는 꼭 실천해야 할 필수적 과제”라고 강조했다.¹⁴⁾

위의 보도기사에 만해 생가지 복원을 주도한 당시 홍성군수인 이성선의 발언이 많이 나온다. 생가 복원의 사업 추진의 성격, 내용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기에 상당 부분을 전재하였다. 위의 기사에서 주목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가 복원의 조성을 위한 출발의 사업비는 군비로 충당하였다는 것이다. 즉 사업은 군 차원에서 추진하였다. 그 이후 도비와 국비가 투입되었겠지만 출발에 있어서는 홍성인들의 자주적 결단에서 시작되었다.

둘째, 생가 정황은 “생가지임을 알리는 나무 팻말만이 하나 외롭게 서 있을 뿐이었다”는 회고에 나오듯이 황무지의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팻말이 누구에 의해 세워졌는지는 알 수 없고, 의아심이 든다. 복원을 시작한 1991년 3월의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¹⁵⁾ 그 터는 도의 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되어 왔다고 한다.¹⁶⁾ 이는 현재 만해 생가터를 설명하는 입간판에 나온 1989년 12월 24일에 충남 기념물 75호로 지정되었음을 알리는 것이라 본다. 이를 보면 그 팻말은 당국에서 세워놓은 것이라 이해된다. 그런데 1984년 5월, 예술인이 주도하여 만해 생가의 복원을 추진한다는 보도기사가¹⁷⁾ 있다. 그 기사에는 그 터에 안내판이 있다고 나오거니와 그 안내판과 나무 팻말은 어떤 상관성이 있다고 이해된

14) 『홍주일보』 2020.7.2, 「만해를 선사를 부르자」.

15) 『동아일보』 1991.3.21, 「만해 한용운 홍성생가 복원 첫삽질」.

16) 추후, 이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17) 『동아일보』 1984.5.3, 「한용운선생 생가 복원, 성역화 추진」, 뮤지컬 「님의 침묵」 공연이 히트를 치자, 이 공연을 주관한 '마당'측이 주도하였는데, 만해기념사업회 및 불교계와 유대를 맺고 추진하였다. 그러자 이에 대한 많은 후원이 있었다. 그러나 그 추이, 결과를 단정하여 말할 수는 없다.



▲ 복원된 한용운 생가(2005년)

다. 한편 만해 생가에 대한 학술적 자문은 손재학(향토사학자)과 전보삼(만해기념관 관장)이 담당하였다고 홍성 지역신문에 나오지만, 이는 신중하게 다룰 문제이다.¹⁸⁾ 손재학은 1989년에 별세하였지만, 생가 터가 충남 기념물로 지정이 될 때에 그가 자문하였을 가능성은 있다. 그는 만해 및 만해 아들과도 인연이 있는 인물이다.¹⁹⁾

한편 생가지에는 만해 집안의 선산이 있었는데, 만해는 그곳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유년(7~9세) 시절에 홍성으로 이주하였다고 한다.²⁰⁾ 그후에는 만해의 형(한윤경)과 후손(한수만)이 살았는데, 그 후손은²¹⁾ 1974년에 인근인 광천으로 나와 살았다. 그래서 1991년 이전에는 거의 훼손되고, 팻말만 남았다.²²⁾ 이런 내용이 홍성에서의 정설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런 정설에 약간의 재검토를 제기한다. 즉 만해 생가지로 지칭된 그 곳은 만해 집안의 선산이 있었고, 만해 집안의 선산을 지켜주는 산지기 집이 있었던 곳은 분명하다. 그래서 만해도 그곳에 인연이 있었다. 그러나 만해는 그곳에서 태어나지도 살지도 않았다

18) 『홍성신문』 2003.10.24, 『"홍성의 청소년이여 21세기 만해가 되어라"』. 그러나 손재학이 담당하였다는 것은 신뢰하기 어렵다. 그는 1900~1989년에 생몰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확인이 요청된다. 손재학은 만해를 결성인으로 지칭하고, 현재의 생가터에서 만해가 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향토사가이다. 고은, 『한용운 평전』, 향연, 2004, p.17.

19) 고은은 그가 만해를 찾아와서 홍성에 와서 강연을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고 서술했다. 고은, 『한용운 평전』, 향연, 2004, pp.311~312. 그리고 그는 해방공간에서 한보국과 활동을 하였는데, 그는 중도우파 노선이었고 한보국은 중도좌파 노선이었다.

20) 이에 대한 문헌 근거는 없다. 구전, 추측이었다.

21) 한수만은 한용운의 형인 韓允敬의 아들인 韓昌國의 둘째 아들이다.

22) 팻말을 세운 주체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생가 복원의 실무 작업은 만해 후손인 한수만이 관여하였을 것이다. 한건택, 『홍성에서의 만해 한용운과 한보국』, p.177.

고 그의 후손인 한수만은 “만해 할아버지는 그곳에서 살지도 안 했어”라고 증언을 했다.²³⁾ 물론 만해 집안의 연고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만해 집안에서 시제를 지냈고, 일제의 압박을 피해 만해의 형(한운경)이 그곳에 들어가서(1919년) 살았고, 그를 계기로 만해의 조카·종손들이 살았던 곳이기 때문이다. 이 내용도 만해의 후손인 한수만의 증언이다.²⁴⁾ 그런데 만해는 살아 생전에 쓴 자필 이력서에 자신의 ‘출생지’를 洪州郡 州北面 玉洞이라고 썼으며,²⁵⁾ 3·1운동 당시 일제의 訊問 조사(1919.8.27, 고등법원) 과정에서 ‘출생지’를 忠淸南道 洪城郡 洪城面 南門里라고 발언하였다.²⁶⁾ 즉 만해의 직접적인 기록에 의하면 홍성의 옥동, 남문리(오관리 212)를 출생지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만해는 유년 시절에 결성면에서 홍성으로 이주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 같이 발언하였는가?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설명 자체가 곤혹스럽다. 만해는 1940년 『조선일보』에 ‘삼국지’를 번역하여 연재를 하여 히트를 쳤다. 그때 『조선일보』에 만해의 역자의 말이 전하는데, 만해는 9살 때에 삼국지를 세 번이나 읽었던 감회가 남아 있다고 고백하였다.²⁷⁾ 그렇다면 만해가 9살 때에 ‘삼국지’와 ‘西廂記’(중국, 삶의 여러 이야기를 모은 책)를 읽은²⁸⁾ 곳은 어디였는가? 결성이었는가, 홍성이었는가? 만해의 출생처가 홍성읍내에 있었음은 1967년의 『동아일보』에서도 보도하였는데, 출생지는 玉洞이라 하였다.²⁹⁾ 만해의 회고와 현재 홍성에서의 인식 사이의 간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결성면의 현재 생가지도 만해 집안의 연고지이기에 광의의 만해 유적지로 볼 수는 있다. 즉 홍성에서 지역 주민들이 계승 사업을 한 30년의 역사 내용은 인정을 한다. 그러나 필자는 미세한 역사적인 측면에서의 관련 사실을 발굴하여, 제시하는 바이다.

셋째, 생가 복원의 기공식 행사(1991.3.21)에는³⁰⁾ 불교측 인사가 많이 참여하여, 만해 사상 계승의 뜻을 분명하게 하였다. 기공식 행사에는 광복회 회장인 이강훈, 조계종의 석주스님(총무원장 역임, 만해 시봉)과 법장스님(수덕사 주지, 총무원장 역임) 등 큰스님이 참석하였다. 당시 보도된 기공식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23) 김광식, 「만해 할아버지를 이야기 합니다.」, 『우리가 만난 한운운』, 참글세상, 2010, pp.213~214.

24) 위와 같음.

25) 이력서는 삼성출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26)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12권(三一運動 II) ; 三 · 一 獨立宣言 關聯者 訊問調書(高等法院)(國漢文), 『韓龍雲 신문조서』.

27) 『조선일보』 1940.10.20, p.2, 「天下奇書 三國志 斯界의 權威 韓龍雲氏 譯筆」.

“역자(譯者)의 말 : 내가 아홉살 날 때 삼국지를 세 번 읽고 어든 感銘은 지금도 머릿속에 기피 색여져 있다. 현대의 조선 사람들로 하여금 삼국지를 한번씩 읽도록 한다는 것은 다만 재미있는 소설 한편을 소개한다는 좁은 범위가 아니라 실로 귀중한 한개의 사업으로 지목할 수 있을 것이니 소설이라면 의례히 속된 남녀관계 범위 벗어나지 못하는 요즘 세상에 있어서 한결 더 그 뜻이 무겁다고 생각된다. 내가 마다 번역의 잘잘못 뒤로 미루고 삼국지란 이름에서 만흔 독자와 큰 기대를 미들 뿐이다.”

28) 한운운, 「시베리아 거쳐 서울로」, 『삼천리』 42호(1933.9).

29) 『동아일보』 1967.3.2, 「한운운 생가와 후손 밝혀져」, 기사에는 홍성에서 만해의 ‘생활 기록’이 발견, 출생지를 홍성읍 오관리 591번지(당시 홍주목 주북면 玉洞)이라 하였다. 그리고 며느리와 손자들은 인천에 살고 있다고 하였지만, 이는 오류의 풍문이다. 그의 아들(한보국)과 며느리는 월북하였다.

30) 『동아일보』 1991.3.21, 「만해 한운운 홍성생가 복원 첫삽질」.

만해(萬海) 韓龍雲 선생의 생가 복원 기공식이 21일 상오 11시께 충남(忠南) 홍성(洪城)군 結城면 城谷리 박철마을에서 韓淸洙 충남도지사 등 기관장 등 7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홍성(洪城)군은 3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만해(萬海) 선생의 생가가 있던 城谷리 박철마을 밭 1천2백여㎡를 구입, 47.19㎡ 규모의 목조 초가 생가를 오는 6월말까지 복원하며 생가 진입로 5백여m도 3천1백만원을 들여 포장기로 했다.

한편 이날 하오 2시 홍성(洪城)군청 대강당에서는 각계 각층인사 3백50명이 참석한 가운데 韓龍雲 시인의 '님의 침묵'(구재기 홍성고 교사), '알 수 없어요'(남선옥 홍성여고 교사) 등의 시 낭독회와 문덕수 홍익대 교수의 '만해(萬海)와 문학사상'이란 문학강연회가 열렸다.³¹⁾

시낭송회라는 부대 행사도 가졌고, 내외 귀빈 7백여명이 참가하는 등 거창하게 열렸던 것이다. 만해 생가지의 복원 사업은 그 이후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다. 1992년 3월 6일, 만해 생가가 복원이 되었다. 그래서 그 기반 하에서 민족시비 공원 조성, 만해사 건립, 만해체험관 등이 정상적으로 생가 주변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래서 만해 고향인 홍성에서 만해사상의 계승 및 구현 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었던 것이다.

4. 만해 묘소 이전

홍성에서의 만해 사업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와 같은 대상은 만해 묘소의 이전 문제이다. 현재의 망우리 공원에서 생가지 주변의 산으로 이전하자는 것이다. 이는 만해의 고향이 홍성이 이라는 점, 그리고 홍성인들이 만해사업의 주도권을 백담사(만해사상실천선양회)가 가져 갔다는 소외감 등이 복합적으로 어울려서 나온 것이다. 홍성은 1980년대 전반기, 그리고 1991년 생가 복원까지는 만해 사업을 선도하였다. 만해 생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만해 묘소 이전도 검토하였다고 한다. 그 세부적인 사정은 전하지 않는다.

한편, 1998년부터 백담사에서 만해사상실천선양회가 등장하여 만해축전, 만해대상 등의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홍성에서의 만해사업(만해제)은 소외되고 위축되었다. 그래서 이후 홍성에서는 만해사업을 성찰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등장하였는데, 그런 구도에서 만해묘소를 고향인 홍성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간헐적으로 등장하였던 것이다.

수년 전인 2013년 7월, 만해 묘소 이전에 대한 문제점과 인식이 홍성 지역 신문에 보도되었다. 그 당시 홍성에서의 만해 묘소 이전은 홍성군, 홍성문화원이 공동으로 추진하였다. 홍성군과 홍성문화원이 그를 추진한 사정은 당시에 배포된 보도자료에서 찾을 수 있다.

홍성군과 홍성문화원(원장 유환동)은 올해(필자 주, 2013) 축제인물이 최영 장군·성삼문 선생으로 바뀔에 따라

31) 『연합신문』 1991.3.21, 「지방 단신」.

그동안 만해제와 홍성내포문화축제를 통해 마련된 만해 한용운 선사의 삶과 업적에 대한 조명 및 평가 작업을 토대로 별도의 만해 한용운 선사 관련 기념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달 29일 홍성문화원 답사팀 30여 명은 만해 열반 69주기 추모다례가 열린 서울 종로구 선학원과 성북구 심우장, 중랑구 망우리묘지공원 만해 묘소 등을 차례로 방문, 만해 기념행사의 연계 여부와 묘소 홍성 이전 가능성을 타진하고 돌아왔다.

이날 오전 종로구 선학원에서 거행된 추모다례에서 만해의 딸인 한영숙 여사가 참석해 고향에서 온 홍성 답사팀을 맞이했다. 만해 묘소 고향 이전에 대해 한영숙 여사는 “아버님의 ‘만인대중과 함께 하겠다’는 유지에 따라 당장 옮길 수는 없다”며 “향후 아버님의 고향으로 묘소를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상의해보자”고 말했다.

이윽고 그는 “아버님의 추모다례를 함께 지내기 위해 이렇게 먼 길을 찾아온 성의는 고맙다. 홍성에서 기념행사가 열린다면 가급적 참석하겠다. 기념행사는 일회성 행사로 끝나면 아예 하지 않는 게 낫다. 아버님과 관련된 여러 사안에 대해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 생각해 보자”고 덧붙였다.³²⁾

그러나 묘소이전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 전후사정은 아래의 『홍성신문』 기사(사설)에 홍성의 입장과 만해 파님의 입장이 집약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만해 한용운 선사 묘소를 고향인 홍성으로 모셔오기 위한 논의를 다시 시작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지 않았는가. 만해를 추모하는 홍성사람들의 지극한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아 이번에는 꼭 성사시키도록 하자.

묘소이전은 홍성 사람들의 오랜 숙원이면서 미완의 꿈이었다. 지난 1992년 만해 한용운 선사 생가복원 및 성역화 사업 당시 사당 건립과 함께 묘소이전을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한 바 있다. 결성면 성곡리 만해 추모공원에는 그 당시 묘역으로 마련해 놓은 터가 아직도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늦게나마 묘소이전이 성사되면 이곳은 명실상부한 항일 민족운동의 성지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현재 결성면 성곡리에 복원된 만해생가에는 사당과 추모공원, 체험관 등이 건립돼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렇다 할 유물이 남아 있지 않아 늘 아쉬움이 남는다.

홍성문화원은 차제에 만해기념사업회를 새롭게 발족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동안 우리 지역에서는 만해 관련 추모 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어 왔지만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못한 것도 추진 주체의 잦은 변경과 부침이 있었기 때문이다. 1992년 성역화 사업 당시 전국규모의 행사로 시작된 만해추모제향, 만해문학의 밤, 만해학회지 발간, 학술대회 등도 중간에 흐지부지 되고 홍성군 축제의 일환으로 편입돼 추모제향과 백일장을 하는 정도로 축소됐다. 정작 만해의 정신을 계승하고 선양하는 학술연구와 문학의 밤 등 중요한 사업은 계속 이어지지 못했다. 이렇게 된 데에는 홍성군의 일관성 없는 문화행정과 무관심 때문이라고 본다. 말로만 충절의 고장, 항일운동의 성지라며 만해와 백야

32) 홍성문화원, 홈페이지, 문화소식, 2013.9.25, 「보도자료」.

등 홍성의 인물을 내세울 일이 아니다. 만해가 홍성을 대표하는 인물이라면 홍성에 가야만이 만나 볼 수 있는 만해의 유물과 사적을 발굴하고 복원하는 일에 누군가가 끈기 있게 매달려야 한다. 역사 속에 사라진 만해가 아닌 오늘 우리와 함께 살아 숨 쉬는 만해를 홍성의 곳곳에서 만날 수 있어야 한다. 시각과 이미지에 치중된 보여주기 식 문화 관광은 낡았다.

만해가 홍성을 떠나기 전 18세 무렵까지 홍성에서 살았던 발자취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또한 홍성에서의 만해를 기억하고 증언해 줄 사람들이 아직 생존해 있다. 광천에 만해의 종손이 생존해 있다. 홍주고등학교 교정에 만해의 부모님 묘소가 있고, 홍성읍 오관리에 만해의 본가가 있던 집터가 있고, 그 집의 구조와 생김새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홍성의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런 깨알 같은 만해의 이야기, 손가락 하나 신발 끈 하나라도 만해의 체취가 닿았던 것이라면 무엇이랄도 찾아내야 한다. 이런 깨알 같은 역사와 이야기를 엮어 전혀 새로운 홍성의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만해의 고향을 찾아 홍성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홍성사람 만해를 만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

만해의 묘소를 홍성에 모시는 일은 다름 아닌 우리 곁에 만해가 영원히 살아있게 하는 일이다. 일제와 한 치의 타협도 없이 “최후의 일각까지” 대항했던 그 다부진 정신과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으로 연인의 심금을 울리는 시심을 동시에 가졌던 그 영롱한 영혼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 안는 영광이고, 축복인 것이다.³³⁾

이렇게 홍성인들은 만해묘소의 이전을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간단하지 않았다. 만해가 1944년 6월에 입적을 하고 그 유해는 망우리 공동묘지에 묻혔다. 그러다가 1960년대부터 만해 묘소를 국립묘지로 이전하거나 혹은 만해 공원을 만들어 만해 위상에 부응하는 방법으로 추모 공간을 만들자는 여론이 있었다. 1965년 5월, 조계종단 기관지인 『대한불교』가 보도한 내용에 나온다.

망우리 공동묘지 한 모퉁이에 풍우에 씻겨 분묘도 없이 버려진 무덤이 하나 있다. 이것이 한용운 선생의 분묘다. 한뼘 가량 되어 보이는 초라한 碑. 그나마 깨어진 이 碑面엔 「韓龍雲之墓」라고 새겨져 있다. (중략)

이러한 가슴 아픈 사연이 전해지자 불교계에서는 선생의 묘를 옮겨 중수하자는 여론이 높아 김경봉 스님과 이범향 스님 등이 앞장 서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12일 禪學院에서 여기에 대한 일련의 회합을 가졌다.³⁴⁾

이렇게 김경봉(통도사), 이범향(선학원) 등이 만해 묘지의 초라한 상황을 알고 문제 해결에 나섰다. 만해 묘지의 실상을 알게 된 승려들은 1965년 5월 12일, 선학원에서 모임을 갖고, 대책을 강구하였다. 그 모임에서 만해 묘소의 이전과 비석의 건립을 결정하였으나, 묘소 이전은 전혀 진척이 없었다. 그 이후에도 만해 묘소를 국립묘지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은 대한불교청년회, 만해기념사업회(1979), 대학생불

33) 『홍성신문』 2013.7.5, 「사설 : 만해 한용운 선사 묘소 고향으로 모시자」

34) 『대한불교』 1965.5.16, 「移葬과 墓碑建立 뒤늦게 推進」.



▲ 한용운선사 묘소

의 ‘만인 대중과 함께 하겠다’는 유지에 따라 당장 옮길 수는 없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아버님의 고향으로 묘소를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상의해보자”고 말하였다. 이는 어떤 결정이 결코 아니었다. 그래서 『홍성신문』에서도 다음과 같이 냉정한 행보를 주문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만해 묘소 홍성이전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아직 유족인 한영숙 여사와 외손주로 2남1녀가 있어 유족과의 의견 조율이 급선무이다. 또 만해 묘소와 나란히 있는 한영숙 여사의 어머니 유숙원 씨의 묘소도 옮겨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어 홍성 이전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설령 유족들을 설득해 홍성이전이 성사된다 해도 망우리묘지 공원 내에 많은 독립운동가, 정치인, 문인, 화가 등이 안장돼 있고, 국가 등록문화재 제519호로 지정되어 묘소 이전에 대해 선뜻 응해줄지 여부도 알 수 없다. 또 국립현충원에서도 애국지사 묘역으로 만해 묘소를 이전하고자 유족들에게 제안한 바 있다. 한영숙 여사는 지난해 2월 한 중앙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망우리로 모시기도 힘들었어요. 친구분들이 어렵게 마련해주신 거거든요. 그대로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거기도 독립운동가들이나 정치인들이 많으세요. 아버지는 와글와글하고 떠받드는 걸 안 좋아했어요. 만약에 망우리가 폐쇄된다면 고향인 홍성으로 모셔야겠지요. 생가 자리도 있고 동상도 있잖아요”라고 이전 시 고향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역의 역사연구가들은 “만해 묘소 홍성 이전이 다 된 것처럼 선불리 접근해서는 안 된다. 홍성 이전 방안을 마련하고 제반 여건을 갖춘 뒤 추진해도 늦지 않다”며 “홍주고 뒤편에 있는 만해 부모 묘소도 생가지 일원 만해 묘소 이전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³⁶⁾

교연합회 등에서 제기하였으나³⁵⁾ 망우리 공동묘지에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렇게 만해 묘소 이전의 문제가 나오면 만해의 딸인 한영숙 여사가 반대하였다. 그는 만해가 국립묘지로 가면, 만해 묘지 옆에 있는 만해의 부인인 자신의 모친(유숙원)은 어떻게 하냐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20년 전부터는 망우리 공동묘지가 문화적으로 수준이 높게 관리되면서 만해 묘소 이전의 주장은 점차 없어졌다. 그러나 홍성에서는 생가지 주변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있어 왔다. 2013년 6월, 홍성인들과 만해 딸(한영숙)이 이 문제를 놓고 대화를 하였다. 그러나 한영숙은 “아버님

35) 『대한불교』 1979.2.18, 「탄신백주년 맞는 만해대선사 유택이 방치돼 있다」, 기사에 한영숙이 “몇 사회 단체에서 이장 문제를 제의해 왔으나 그분의 뜻에 어긋나는 것 같아 반대했다.”고 나온다.

36) 『홍성신문』 2013.7.5, 「만해 묘소 고향이전 추진 … 유족 “차근차근 상의하자”」.

위의 기사에 나오듯 만해 후손인 한영숙은 자신의 입장을 홍성인들에게 개진하였다. 한영숙의 발언에 이전에 대한 모든 것이 나와 있다. 즉, ‘망우리 공원에 그대로 두는게 맞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그는 망우리 공원이 폐쇄된다면 홍성으로 가겠다고 하였지만 이는 현실성이 없는 가정이다. 그래서 2013년 이후, 홍성에서는 더 이상 만해묘소 이전 문제로 논란을 벌이지 않았다. 홍성에 있는 만해의 부친·부인(첫번째)·형의 묘소를 생가지 근처로 옮기거나, 정비를 제대로 하자는 주장은 지속되었다.³⁷⁾ 2014년에 결성된 홍성의 만해기념사업회의 일부 회원들이 만해 묘소를 홍성으로 이전하자는 주장을 제기하였지만³⁸⁾ 이슈화는 되지 못하였다.

5. 결어

이상으로 홍성에서의 만해 기념사업, 만해정신의 계승 등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였다. 여건상 모든 것을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이런 분석, 개진을 통하여 나타난 필자가 생각하고 있는 단상을 피력하고자 한다.

첫째, 만해사업의 위상, 관리 등에 대한 총체적인 정비이다. 홍성에서의 만해 사업은 군청, 문화원 등이 관리를 하여 왔다. 최근에는 관리만을 전담하는 기관(역사문화시설 관리 사업소)를 만들었지만, 만해사업의 경우 정체성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둘째, 홍성의 만해 기념사업회의 재정비에 대한 것이다. 2014년 8월에 기념사업회(이사장, 수덕사 용산스님)가 홍성에서 출범하였지만³⁹⁾ 출범 직후부터 분열, 이원화된 두 개의 사업회가 등장하였다.⁴⁰⁾ 비록 민간 차원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런 이원성, 분열은 홍성에서의 만해사업의 동력 상실이라는 점을 말한다. 최근에는 분열된 모습이 후퇴하였지만, 정상화가 요청된다.

셋째, 만해 사업을 추진, 관리할 인재 양성에 대한 문제이다. 홍성에서의 만해 사업은 공무원이 관리, 감독, 기획을 하고 있다. 필자가 대안을 개진하면 만해 사업만을 전담할 기구, 주체, 인력 양성이 요청된다. 만해사업만을 전담시키지 못하면 문화사업을 전담할 새로운 형태의 기획팀을 별도화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문화사업을 전담할 인재를 인근 대학과 협력하여 교육시키고, 양성하여 가동해야 할 것이다.

넷째, 위에서 지적한 구도하에서 새로운 차원으로 특성화 된 만해 행사를 추진, 기획, 상설화를 해야 할 것이다. 홍성만의, 홍성에서만 하는, 만해를 알리고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것을 만들어내야 한다. 백담

37) 『홍성신문』 2019.2.22, 「만해 '만해의 고장'서 잊혀 간다」.

38) 『홍성신문』 2015.8.26, 「“만해 묘소 생가지 이전 추진”」.

39) 홍성문화원이 중심이 되어 시작되었다. 홍성문화원 홈페이지, 문화소식란의 2014.2.2. 보도자료 ; 「만해 한용운 기념사업회 만든다 문화원 내 달 준비위 구성 서거 70주기 행사 등 추진」.

40) 『홍성신문』 2014.10.7, 「기념사업회 두 개나 ... 만해 행복할까」.

사, 만해마을, 만해기념관(남한산성)과는 차별성이 있는 만해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⁴¹⁾

다섯째, 홍성의 정신, 홍성문학의 정신으로 불리우고 있는 만해정신의 복원 및 계승에 홍성인들의 분발이 요청된다. 이런 내용과 관련하여 홍성인 중에서 만해와 관련이 있는 인물, 사건, 만해사업 등에 대한 정리, 분석이 요청된다. 그런 인물을 필자는 한보국(만해 아들), 손재학(제헌국회 의원), 한계전(홍성 출신, 만해학회 1대 회장, 서울대 국문과 명예교수)이라고 본다.⁴²⁾

이상으로 홍성에서의 만해사업을 새롭게 추진함에 생각할 계기를 줄 수 있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런 의견이 홍성의 만해사업의 기획 및 추진에 참고가 되길 바란다. 88

참고문헌

고 은, 『한용운 평전』, 민음사, 1975.

한계전, 「만해 한용운 사상형성과 배경」, 『선청어문』 29호, 2001.

이변영, 「한용운」, 『용감했던 홍성사람들』, 글을 읽다, 2006.

김광식, 「만해 할아버지를 이야기 합니다」, 『우리가 만난 한용운』, 참글세상, 2010.

, 「한용운의 아들, 한보국 삶」, 『한용운 연구』, 동국대출판부, 2011.

, 「한용운의 불교사상과 독립정신」, 『내포의 불교사상과 문화』,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2015.

, 『한용운』, 역사공간, 2015.

한건택, 「홍성에서의 만해 한용운」, 『홍성문화』 32권 1호, 2013.

, 「홍성에서의 만해 한용운과 한보국」, 『만해학보』 16호, 2016.

41) 『홍성신문』 2005.1.21, 「만해제 주도권 되찾아야 한다」.

42) 한계전, 「만해 정신의 계승과 실천」, 『만해학보』 2호, 1995. 그는 홍성 출신으로, 만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고 만해에 대한 비사도 알고 있다.

91000 78/1/0

氏 名	年 齡	年 月 日 生	指 紋 番 號
韓 龍 雲	身 長	尺 寸 分	
	特 徵		

▲ 한용운이 3.1운동(1919)의 민족대표로 옥중에 수감되었을 당시의 수감기록 카드

91100 (78/1/0)

氏 名	韓 龍 雲	番 指 紋 號	No. 111111
身 長	2772		

4年12月21日刑事課 保存原稿(小) 第11306號

▲ 광주학생 운동이 일어나자 신간회에서 진상 규명을 추진하다가 옥중에 수감된 한용운의 수감카드

홍성의 전설
+

죽도의 아름다운 대나무 숲과 전설
전염병으로부터 마을을 지켜낸 차호부의 넋이 서린 느티나무

김 정 현 (동화작가 · 내포구비문학연구소장)



1. 죽도(竹島)의 아름다운 대나무 숲과 구렁이 전설

우리고장 홍성군 서부면 남당포구 앞바다에 죽도(竹島)가 있다. 죽도라는 지명은 대나무가 많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홍성군에서 유일하게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이다. 옛날에는 죽도를 ‘대섬’이라고 불렀다. 원래는 서산시 안면면이었는데, 1989년 1월 1일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홍성군 서부면 죽도리가 되었다.

죽도는 크고 작은 섬이 모두 12개이며 본섬에만 사람이 살고 있다. 물이 들어오면 보통 7개 섬만 보이고, 물이 빠지면 본섬과 연결된 몇몇 섬들을 걸어서 돌아볼 수 있다. 해돋이와 해넘이를 동시에 감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 모습이 잘 보존된 천혜의 섬이다.

죽도의 대나무 숲과 아름다운 주변 풍경은 일품이다. 죽도 남쪽으로는 안면도가 뻗어 건너다보인다. 안면도는 마치 편안한 자세로 길게 누워 잠자는 모습이다.

죽도는 섬의 명물인 대나무 숲을 이용한 ‘대나무 숲길’이 잘 조성되어 있다. 섬 주변의 대나무 숲길을 걸으며 아름다운 바다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요즘에는 남당항과 죽도를 연결하는 정기 여객선이 운행되면서 홍성군의 최고 관광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죽도 주변의 아름다운 바다 모습과 대나무숲 둘레길을 찾는 이들을 힐링 공간으로 안내하고도 남는다.



▲ 죽도 본섬과 항구 모습



▲ 죽도 대나무숲과 마을 모습

죽도에는 용난뚝병 전설과 구렁이 전설이 전해온다. 두 전설 중에서 죽도 대나무와 관련된 전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옛날 죽도에는 암늪 구렁이가 살았다고 한다. 또한 죽도에서 뻗어 건너다보이는 모산도에는 수늪 구렁이가 살았다고 한다. 옛날 섬지역에서는 커다란 수늪 구렁이를 다른 이름으로 ‘대명이’라고 불렀다.



▲ 죽도 대나무숲과 해변

대명이는 날마다 죽도에 사는 암놈 구렁이를 만나러 바다를 헤엄쳐 건너오곤 했다. 대명이는 덩치가 얼마나 큰지, 바닷물을 헤치며 지나갈 때마다 물살이 거세게 갈라지며 파도처럼 출렁거렸다. 섬사람들은 대명이 때문에 배가 얹어질 뻔한 위험을 여러 번 경험하곤 했다. 바다에 나가려면 대명이 언제쯤 지나갈지 몰라서 큰 두통거리였다.

“저놈의 구렁이를 어떻게 하면 꼼짝 못하게 잡아둘 수 있을까?”

섬사람들은 대명이 바다에 나오지 못하도록 별별 궁리를 다했다.

“구렁이를 퇴치하는 데는 송진 기름이 제일이라더군.”

누군가 소나무 송진으로 기름을 짜서 죽도 바닷가 바위에 칠해놓자고 했다. 사람들은 즉시 소나무 송진으로 기름을 내어 죽도 바닷가에 칠해놓았다. 하지만 그것도 며칠뿐이었다. 바닷가에 칠해놓은 송진 기름은 며칠 못가서 바닷물에 씻겨나가고 말았다.

대명이는 바닷가에 송진 기름이 씻겨나가자 또다시 바닷물을 헤치고 죽도로 헤엄쳐 왔다. 죽도에는 대명과 암구렁이 사이에 낳아놓은 새끼 구렁이들이 들끓었다. 이래저래 섬사람들은 구렁이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

“구렁이는 연기를 싫어한다는데, 바닷가에 불을 피워 놓으면 어떨까?”



▲ 죽도의 가을 모습



▲ 죽도 돌레길



▲ 죽도 용 난 둠벙 모습



▲ 죽도분교의 옛모습(지금은 폐교되어 공원으로 조성되었다.)

누군가 또 다른 방법을 제안했다.

“맞아. 죽도에 지천으로 깔려있는 댓잎으로 불을 피워보자구.”

사람들은 그럴듯한 생각이라고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

죽도에 켜켜로 쌓여있는 댓잎은 연기를 내는 데 그만이었다. 하루도 빠짐없이 댓잎을 긁어모아 불과 연기를 내었다.

그 뒤로 죽도에 대명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죽도에 살던 암늬 구렁이와 새끼들도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어졌다. 아무 데도 쓸데없을 것 같던 죽도의 대나무는, 이렇게 구렁이를 퇴치하는데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

우리의 옛이야기 속에 나오는 구렁이는 재물과 복을 가져다주는 귀한 영물로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구렁이가 집안에 나타나면 업이 들어왔다고 반기며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편히 쉴 장소를 마련해 주기도 했다.

바닷가에서도 구렁이는 두려움의 존재로 생각한 것이 일반적이다. 신출귀몰한 능력을 갖고 있는 구렁이의 미움을 사면, 파도와 바람을 일으켜서 바닷길이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구렁이를 달래어 바닷길을 잘 보호해달라는 제사를 지내는 옛이야기들이 많다.



▲ 죽도 주변의 아름다운 일몰 모습

죽도와 모산도의 구렁이는 그 반대의 경우라서 좀 특이하다. 바닷길을 평화롭게 잘 보호해달라는 의미 보다는, 생업의 방해꾼으로 생각하여 과감하게 맞서서 퇴치하려는 의식이 담겨있다.

죽도와 모산도가 있는 천수만은 옛날부터 왜구를 비롯한 외적의 침입이 빈번한 곳이었다. 이곳 주민들은 외적의 침입에 과감히 맞서서 물리친 역사를 많이 갖고 있다. 모산도에 서있는 ‘김자 전승비’는 바로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구렁이 전설을 통해 죽도와 주변 사람들 정신 속에 살아 있는 강인한 정신의 일면을 엿볼 수 있을 것 같다.



▲ 차부인의 님이 서린 느티나무

2. 전염병으로부터 마을을 지켜낸 차효부(車孝婦)의 님이 서린 느티나무

요즘 우리나라 전체가 코로나 19로 겪는 고통이 참으로 극심하기만 하다. 2020년 초부터 시작한 코로나 19는 1년이 거의 지나가도록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금 세계 모든 나라들이 코로나 19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의술이 발달한 현대사회에서도 전염병에 전전긍긍하는데, 그 옛날에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궁금하기만 하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옛날 충청도 지역의 전염병 창궐 사례가 여러 번 기록되어 전해온다.

1526년(중종 21년) 3월 4일 기록에는,

충청도에 여역으로 사망한 사람이 내포지역 주변에만, 홍주 36명 · 해미 59명 · 보령 52명 · 덕산 33명 등이다.

3월 8일 기록에는,

온양 7명 · 아산 3명 · 예산 6명 · 서천 10명 · 결성 1명 등이 전염병으로 사망했다. 이날 기록에 보면, 도내 다른 지역까지 합쳐서 모두 1백22명이 전염병으로 사망했다.

3월 16일 기록에는

결성 3명 · 홍주 13명 · 보령 16명 · 덕산 1명 등이, 내포지역 인근에서 전염병으로 사망했다. 아마도 이해 3월에는 충청도 전역에 전염병이 창궐하여 상당히 많은 수의 백성들이 사망했던 것 같다.

1554년(명종 9년) 5월 12일에도 전염병 기록이 전해온다.

“청홍도(淸洪道, 당시 충청도 이름임) 홍주(洪州)에 전염병이 치성하여 4백 44명이 죽었고 앓고 있는 사람도 6백 21명이나 되었다.”

1625년(인조 3년) 3월 5일에도 전염병 기록이 전해온다.

“충청도 충주 · 홍주 · 보령 · 황간 등지에 여역이 크게 퍼져 죽은 사람이 각각 70여인씩이나 되었는데, 본도 감사로 하여금 의원과 약을 보내 구료하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요즘 코로나 19로 고통받는 현장에는, 환자들을 치료하며 고군분투하는 의료진들의 모습이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서 과거 전염병이 창궐할 때는 어떤 의인들이 있었을까? 우리 고장 결성에서 전염병 환자들을 돌보며 헌신했던 한 여인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설로 전해오고 있다.

홍성군 결성면 성남리에 중리(中里) 마을이 있다. 중리 마을로 접어들기 전에 길 왼편 아래쪽으로 오래된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있다. 지금은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지만, 옛날에는 이곳이 마을로 접어드는 길목이었고, 서낭당 터였다는 짐작을 쉽게 할 수 있다.

이 느티나무는 마을을 지켜주는 수재리(守災里) 나무로 유명한데, 차씨(車氏)라고 부르는 여인의 감동적인 사연이 아름답게 전해지는 나무이기도 하다.

중리 마을은 몇 십 년 전까지만 해도 천수만으로 이어지는 바닷가 마을이었고 천혜적인 조건을 갖춘 포구였다. 마을 한쪽에는 나라에서 세금으로 받아들이는 물품을 보관해두는 창고가 있었다고 해서, 창말포구(蒼末浦口)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다.

옛날에는 마을이 포구였던 관계로 일감도 많았고 찾아드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런데 어느날부터 마을 사람들이 한둘씩 이름 모를 병에 걸려 앓아눕는 것이었다.

포구를 따라 들어온 전염병이 창궐하기 시작한 것이다. 집집마다 전염병으로 눕거나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늘어갔다. 마을은 밀려드는 전염병에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무방비 상태였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염병을 피해서 마을을 떠나는 길밖에 없었다.

마을에는 차씨(車氏)라고 부르는 부인이 살았는데, 이 닻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이미 남편과 아들은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었고, 시어머니와 딸과 시동생은 드러누워 있었다. 집에서 몸이 성한 것은 차씨 혼자뿐이었다.

포구는 폐항이 되기에 이르렀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마을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차씨에게도 빨리 마을을 빠져나갈 것을 권했다. 하지만 차씨는 전염병에 걸려 누워있는 식구들을 남겨두고 혼자

피할 수가 없었다.

“제가 누워있는 식구들을 버리고 어찌 피난길을 떠나겠습니까? 이 댁으로 시집을 때 부모님께서는 손가락질 받지 않고 사람의 도리를 다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제가 집을 떠나면 어느 누가 식구들에게 물한 모금이라도 떠다드리겠습니까?”

차씨는 이웃들의 간절한 권유를 끝까지 거절했다. 이웃들은 하는 수없이 차씨를 남겨두고 마을을 떠났다. 이제 마을에서 몸이 성한 사람은 오직 차씨 혼자뿐이었다.

마을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여기저기에서 시체 썩는 냄새만 진동했다. 차씨는 누워있는 식구들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마을 집집마다 누워있는 이웃집의 전염병 환자까지 보살폈다. 병을 이기지 못하고 목숨을 잃은 사람들은 시신을 거두어서 매장해 주었다.

차씨는 정신없이 환자들을 보살피며 시간을 보냈다.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도 모르게 몇 달이 흘렀다.

차씨가 혼자서 마을을 지키는 동안, 맹렬하던 전염병의 기세도 꺾이기 시작했다. 차씨의 지극한 정성으로 드러누웠던 가족들은 전염병을 이기고 일어났다. 차씨 덕분에 전염병을 이겨낸 이웃들도 여러 명 있었다.

전염병이 물러간 후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돌아오기 시작했다. 죽었으리라 생각했던 이웃들은 깜짝 놀랐다. 죽은 줄만 알았던 이웃들 여러 명이 살아있는 모습을 보며 두 눈을 의심했다.

사람들은 차씨의 살신성인적인 행동이 하늘에 닿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자신들만 살자고 피난 갔던 행동이 부끄럽기만 했다.

마을은 악몽에서 깨어났고 포구도 다시 개항이 되었다. 마을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통해서 차씨의 선행이 여기저기 알려진 것은 물론이었다.

때마침 마을에 찾아온 관리가 이 사실을 알고 한양에 보고했다. 임금님은 차씨의 선행을 전해 듣고 기뻐하며, “차효부(車孝婦)”라고 부르도록 했다. 그리고 관리를 통해서 많은 하사품을 전달했다.

차부인의 선행과 전염병에 관련된 흔적들은 마을 여기저기에 지명으로 남아서 전해지고 있다.

차효부가 전염병으로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던 집이 있었는데, 이곳을 ‘도당(禱堂)뿌리’라고 부른다. 임금님의 하사품을 싣고 온 관리가 배에서 내린 곳을 ‘승지골’이라고 부른다.

또한 임금님의 명을 받들고 찾아온 승지는, 차부인의 감동적인 사연을 오래오래 기리고자 마을 입구에 느티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 그 나무가 바로 마을 입구를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 느티나무인 것이다.

이 느티나무는 300여년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보호수로 관리되고 있다. 마을에서는 해마다 정초에 나무 아래서 제를 지내며 차부인의 정신을 기리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차부인과 관련한 기록도, 묘소도 없다는 것이다. 마을 입구에 외롭게 서있는 느티나무 혼자서 오가는 이들에게 차부인의 행적을 말없이 전해주고 있을 뿐이다. ❸

기행문

싱가포르의 다양한 무늬를 읽다

시인 정명순



싱가포르의 상징인 멀라이언상과 마리나 베이 샌즈

싱가포르를 다녀와서 (2019. 2. 2. ~ 2. 6.)

마음이 먼저 떠나

여행할 때 꼭 챙기는 것이 하나 있다. 읽었던 책 중에서 한 권을 골라 함께 여행하며 과거의 내 생각을 돌아보는 것. 책꽂이를 들여다보며 선택한 책은 칼릴 지브란과 메리 헤스켈의 러브레터 모음집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은 아주 작습니다” 이다. 표지를 넘기자 ‘1990년 겨울’이라는 메모가 되어 있었다. 그 시절의 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까마득하지만 밑줄 친 부분에서 울고 웃고 위안을 받았을 것이다.

어느 거대한 낮선 도시에 들어서게 되면 / 나는 낮선 방에서의 잠/
낮선 곳에서의 식사를 사랑합니다.

이름 모를 거리를 거닐며 / 스쳐가는 모르는 이들을/
바라보는 것을 사랑합니다.

나는 즐겨 / 외로운 나그네이고자 합니다.

1911년 5월 16일 칼릴 지브란

2019년 2월 2일 오후 5시 늦은 출발이었다. 여섯 시간 반 정도의 비행이 될 것이라고 했다. 도착하면 싱가포르의 밤을 만나겠지. 흐린 날씨를 뚫고 비행기가 하늘로 오를 준비를 한다. 비행기를 타면 가장 흥분되는 순간은 구름을 뚫고 올라 파란 하늘을 만나는 순간이다. 구름 뒤에 약속처럼 햇살이 있음을 확인하는 순간 짜릿한 전율을 느낀다. 비행기 날개가 숨을 고른다. 그 위에 내 호흡을 살짝 얹어 놓는다.



윤슬

구름바다 멀리 붉게 해가 지고 / 별들이 하나 둘 등을 밝혀/
온 하늘에 일렁 일렁 / 먼별의 존재가 확연해집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님을 / 여전히 그곳에서 빛나고 있었음을

2019년 2월 2일 정명순

어떤 곳일까

도시국가 정도의 크기인 싱가포르공화국은 수도 이름도 싱가포르이다. 해발 150M정도로 대체로 평탄한데 가장 높은 티마산은 165M에 불과하다. 싱가포르섬과 70여개의 작은 섬으로 구성된 섬나라로 서울보다 작았지만 매립으로 지금은 서울보다 약간 크다. 인구는 580만 정도, 말레이반도의 최남단에 위치하며 적도와 가까워 평균기온이 32도, 습도도 매우 높다. 번기의 물을 안 내려도, 껌을 가져가도 씹어도 안 되는 벌금의 나라. 아직도 때리는 형벌인 태형이 있는 나라. 대부분이 면세이지만 자동차, 술, 담배에는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 잘살며 깨끗하고 안전하지만 매우 까다로운 나라.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던 바로 그 곳.

정원 속의 도시

싱가포르의 첫날, 커튼을 열어보니 구름 사이로 파란하늘이 보였다. 우기라 비가 많이 내릴까 걱정했는데 다행이었다. 첫날 일정은 주룽 새공원, 보타닉가든, 멀라이언공원 등 도시 속의 정원을 돌아보는 것이다.



▲ 주룽 새공원

매우 작은 나라라 이삼십 분 정도면 목적지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가이드의 설명이 끝나자마자 주룽 새 공원에 도착했다. 아시아 최초 새들만의 공원으로 원래 공업지역이었던 주룽 지역을 자연 친화적인 곳으로 만들려는 노력으로 800여종, 8000여 마리의 새들을 세계 각지에서 들여와 공원으로 꾸몄다고 한다.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새들을 종류 별로 만나보며 쉬며 즐길 수 있었다. 잠시 앵무새 쇼를 감상하는 기회도 가질 수 있다.

아시아 음식 뷔페에서 점심을 먹었다. 다민족 국가답게 요리도 다국적이다. 싱가포르에서 전통음식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전통음식이라는 것이 있기는 한 걸까. 중국, 인도, 아라비아 등 아시아 음식에 서구적인 것까지 모든 것이 섞여있다. 그게 전통이라면 전통이다.



▲ 보타닉 가든

국적이 묘한 퓨전 요리로 마음에 점을 찍고 유네스코에 등재된 보타닉 가든으로 향했다. 보타닉 가든은 영국인이 향신료를 연구하며 실험용으로 식물을 심었던 곳인데 점차 규모가 커지고 정리 되면서 싱가포르 최대의 식물원이 되었다. 도심 속의 오아시스로 열대 정원과 꽃, 연못과 산책로 등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싱가포르는 ‘싱가푸라’의 영어식 표현으로 사자의 도시라는 뜻이다. ‘싱가’는 사자라는 산스크리트어의 ‘심하’가 말레이어로 변형된 말이고, ‘푸라’는 산스크리트어에서 유래된 도시라는 의미이다. 전설에 따르면 인도의 왕자가 이곳에서 처음 본 동물이 사자라고 한다. 그래서 사자를 싱가포르의 상징으로 삼게 되었는데, 전설 속 사자의 머리와 섬나라의 특성을 살려 인어의 몸을 형상화하여 만든 것이 멀라이언상이



▲ 멀라이언상에서

다. mermaid(인어)와 lion(사자)의 합성어 멀라이언(merlion)이 만들어진 것이다. 입에서 물을 쏟아내는 사자가 싱가포르의 가장 대표적인 명물이라면 좀 의아하지만 그만큼 전통적인 것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더운 나라인 싱가포르에서 정원은 매우 중요한 휴식처이다. 그래서 곳곳에 다양한 정원을 꾸미다보니 정원의 도시로 발전 한 것이다. 가든스 더 베이(Gardens by the bay)도 그 중의 하나이다.



싱가포르에는 ‘베이’가 들어가 이름이 많이 있다. 면적이 작아 매립으로 20%정도 늘어났는데 ‘베이’는 만(灣)이라는 의미로 매립한 곳에 같이 붙여 쓰인다고 한다. 싱가포르는 하나의 계절 밖에 없어 다양한 식물을 키울 수도 볼 수도 없다. 그래서 인공적인 시설들을 만들어 세계 각지의 식물들을 가져다 키우고 있었다. 꽃돔, 구름돔 등 돔 형태의 건물 안에 다양한 꽃과 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돔 안을 걷고 있는데 바닥에서 에어컨 바람이 올라오고 있었다.



▲ 마리나 베이 샌즈의 야경

오후가 되자 점점 도시의 건물이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아침부터 유난히 눈에 띈 건물이 하나 있다. 바로 마리나 베이 샌즈(Marina bay sands)로 싱가포르의 상징적인 건물이다. 더 뿌듯한 건 우리나라 기업인 쌍용이 2년 6개월에 걸쳐 하루도 쉬지 않고 만들었다는 것. 건물 세 동 위에 배가 올라가 있는 모습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나의 작품이다. 공중에 떠있는 배 위에 수영장이 있다. 참 놀라운 발상이다.

하루 종일 돌고 돌았는데 나중에 보니 거기가 거기, 모두 한 구역에 있었다. 도시국가라는 것이 실감났다. 어둠이 내리고 싱가포르 리버를 따라 배를 타고 야경을 감상했다. 도시가 대부분인 이곳은 역시 밤이 아름다웠다. 그 중심에 마리나 베이 샌즈가 우뚝 서 있었다.

아품을 엿보다

싱가포르의 역사는 정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란스러웠다. 섬이라는 특성상 어부들이 살았고 교통의 길목에 있으니 상인이나 해적이 꼬였을 것이다. 슈리비자야, 자바, 말라카 등의 지배를 받다가 16세기 서양 세력의 아시아 진출이 시작되었을 때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는다. 17세기 네덜란드에게 넘어갔다가 19

세기 영국의 동남아시아 식민활동의 중심지가 되었다가 직할 식민지가 된다. 이후 동서양 무역의 중심지로 크게 번영하게 되는데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영국이 해군기지를 건설하며 전쟁의 한복판이 되고, 1942년 일본이 말레이 반도를 침략해 1945년 항복할 때까지 일본의 지배를 받는다. 일본의 항복이후 영국으로 돌아갔다가 1957년 자치권을 획득, 1963년 말레이시아의 일부로 속해 있다가, 1965년 주권 국가로 독립하였고, 1971년 영국군이 철수하면서 오늘이 이르고 있다.

현재의 싱가포르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나라는 영국인데, 인구의 대부분은 중국계여서 마치 작은 홍콩을 보는 듯하다. 중국인이 싱가포르에 많이 살게 된 까닭은 동서 교류의 거점이 필요했던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1819년 싱가포르를 사들여 항구로 개발하면서 시작된다. 그 때만해도 싱가포르에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았다. 아편전쟁이후 중국에 진출한 영국이 중국에서 이민자를 모집하여 이주시켜 현재 75% 정도가 중국인 후손이다. 원주민인 말레이계가 15%정도,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다민족 도시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언어도 영어, 중국어, 말레이어, 인도계의 타밀어 4가지를 공용어로 사용한다.

여행 혹은 사랑

기대하며 다가가고
실망하며 도망치지 말기

그 곳은 원래
그 사람은 원래
그 모습이었던 것

기대와 실망의 크기는
내가 만들어 부풀린 것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2019년 2월 3일 정명순



싱가포르 리버에서

온도를 직접 느끼며

둘째 날은 자유여행, 지하철과 택시로 싱가포르의 중심을 돌아 보았다. 우리나라의 명동에 비유되는 오차드, 싱가포르 리버, 차이나타운 등 마음 가는대로 느긋하게 싱가포르의 온도를 느끼며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오차드(ORCHARD)거리다. 호텔과 가까운 거리라 택시를 이용했다. 싱가포르는 자체 생산되는 것이 거의 없다. 그래서 전 세계의 브랜드가 다 모여 있고, 고가의 매장 아니면 아주 저렴한 매장, 중간이 없다고 했다.



▲ 카야 토스트를 수란에

일단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잔을 하고 도시를 감상하며 걸었다. 신호는 보행자 중심으로 되어있고 영국 지배의 영향으로 운전석의 방향은 우리와 반대였다. 도로와 건물 사이사이 나무가 우거져있고, 그다지 크지 않은 거리는 조금만 걸어도 끝이 보였다.

싱가포르는 건물을 지을 때 허가 조건이 까다롭다. 첫째 독특한 디자인, 둘째 아름다움, 셋째 실제 평수만큼의 녹지대. 도시 전체를 하나의 예술품으로 만들려는 장기적인 계획인 것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물들이 많아 거리를 걸으며 작품을 감상하는 느낌이 든다. 그 건물들 중에 대한민국 작품이 많다는 것이 새삼 자랑스러웠다.



싱가포르 리버 야경

싱가포르에서 유명한 것으로 카야잼이 있다. 그래서 점심 메뉴는 야쿤(亞坤)식당의 카야 토스트로 선택했다. 코코넛으로 만든 잼인데 부드럽고 많이 달지 않았다. 식빵에 카야잼을 바르고 버터 조각을 넣은 뒤 숯불에 구워 바삭하고 달콤한 토스트를 수란에 찍어 먹는데, 그냥 먹어도 고소하고 달콤했다.

잠시 차이나타운에 들러 명절을 맞이한 떠들썩한 분위기 속에서 발맛사지를 받으며 피로를 풀었다. 밖으로 나오니 갑자기 어두워지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지하철을 타기위해 내려갔는데 잔돈이 없어서 표를 살 수가 없었다. 잔돈을 바꿔주는 곳도 없었다. 우리나라 지하철은 천국이다.

한참을 헤매다가 결국 다시 올라와 걸어서 싱가포르 리버로 향했다. 노을에 대한 기대는 사라졌으나 비를 한차례 만난 것도 행운이었다. 이곳에서는 열대성 스킨을 '레인'이 아니라 '샤워'라고 부른다. 빗줄기가 거세기 때문에 곤충도 없고, 꽃은 있지만 벌은 없다고 했다. 자연은 알수록 신비하다. 한바탕 샤워를 끝낸 도시는 시원하고 말끔했다.

싱가포르 리버 주변은 파라솔을 연결하여 잦은 비를 막고 조명을 설치하여 인공적인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었다. 강가에 위치한 멕시코 식당에서 즐기는 여유로운 저녁, 어둠이 내리자 조명이 하나 둘 켜지며 순식간에 빛의 향연이 시작되었다. 음력으로 2018년 마지막 날, 호텔 근처 차이나타운은 새해를 맞으려는 기대로 매우 분주했다. 0시가 되자 새해맞이 불꽃놀이가 펼쳐졌다.

다양한 무늬를 읽다

짧은 여행, 벌써 마지막 날이다. 아쉬운 맘으로 짐을 챙겨 버스에 올랐다. 화려한 도심을 약간 빠져나와 도착한 곳은 아랍인의 거리. 가난을 아라베스크 무늬로 채색하고 있었다. 상가와 주택이 이어진 거리를 따라 올라가니 이슬람교 사원인 술탄 모스크가 보였다. 일부 말레이인과 인도인 중에 이슬람교도가 있어 싱가포르 종교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었다. 아라베스크 무늬로 장식된 모스크 내부에 앉아 잠시 이방인의 종교 속으로 빠져들었다.

아라베스크무늬를 읽다

단순한 반복

한방 같은 특별한 것은 없다

선과 선이 시간을 따라

흐르고 만나고 헤어지고

다시 만나기를 반복한다

그 사이사이 붉은 꽃이 피고

푸른 잎이 돋는다

오늘이 가면 내일이 오는

우주의 진리를 받아들이며

거미줄처럼 생을 엮고

이슬방울 꽃을 피우며

완성해가는 하나의 그림

가만히 귀를 대고

말씀을 받아적는다

2019년 2월 4일 정명순



아랍인의 거리에서

현대적인 도시 싱가포르에서 전통을 찾기 어려워지자 정부는 특징적인 거리를 지키고 되살려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정통성의 문제이기도 하고 관광의 목적이기도 하다. 싱가포르 경제는 관광수입의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잘사는 동네라는 느낌은 없었지만 맛있는 싱가포르의 색다른 무늬를 보는 느낌이었다.

인력거를 타고 돌아본 아랍인의 거리와 인도인의 거리는 깨끗한 싱가포르의 모습은 아니었다. 이들이 싱가포르의 경제적 하위층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 맘이 찼했다. 빈부의 차이를 받아들이며 사는 가난한 모습이 거리 곳곳에서 거뭇거뭇 묻어났다.

버스로 이동하는 중간 중간 공원에는 진풍경이 펼쳐진다. 수 백 명의 여성들이 잔디밭이나 벤치에 앉아 떠들며 먹으며 휴식을 즐기고 있다. 가사도우미들이라고 했다. 주변의 가난한 나라에서 돈을 벌기위해 온 사람들로 주말이 되면 비싼 쇼핑센터나 식당에 갈 수 없어 공원에 나와 자기들끼리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 싱가포르는 물가도 비싸고 임금도 높지만 이들은 최저 임금도 보장 받지 못한다고 한다. 수요에 비해 일하러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점심 식사로 삼겹살을 먹었다. 이슬람교도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고, 힌두교도들은 소고기를 안 먹고, 금기도 많지만 각각의 풍습과 전통을 인정해주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다양한 민족과 신앙이 공존할 수 없을 것이고, 하나의 나라로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다.



점심 식사 후 센토사섬으로 향했다. 원래 사람이 살지 않는 죽음의 섬으로 불렸는데 영국의 군사 기지로 사용되다가 싱가포르 정부가 섬의 이름을 공모하고 개발을 했다고 한다. 1970년에 선정된 이름이 센토사, ‘평화롭고 고요하다’는 뜻이다. 본섬에서 800M정도 떨어져 있는데 케이블카를 설치하며 관광명소로 개발했다. 우리나라의 놀이공원 같은 느낌이다.

여행을 마무리하며 해가 지고 있었다. 잠깐 두 개의 쇼를 구경하고 공항으로 가기로 했다. 8시마다 펼쳐지는 ‘스펙트라(Spectra)쇼’는 마리나 베이 샌즈를 배경으로 분수의 물결 속에 레이저 빛이 스며들면서 음악과 함께 장관을 연출했다. 8시 40분 가든스 더 베이에서 펼쳐진 ‘랩소디쇼’는 감성을 자극하는 아름답고 고요한 쇼였다. 인공으로 만든 나무트리에 전구를 장식하여 낮에 빛을 모았다가 밤에 터트리 15분 정도 음악을 배경으로 쇼를 펼친다. 높기 때문에 누워서 보는 쇼로 많이 알려져 있다. 섬세하고 아름다운 불빛의 향연에 여행의 피로가 녹아내렸다.



▲ 스펙트라 쇼

다 있는데 계절이 없다

삼일동안 돌아본 싱가포르는 “이거다” 라고 할 정도의 독특한 매력은 없었다. 하지만 악조건 속에서도 끈질기게 살아남아 최고로 성장하고 있는 청량고추같은 나라였다.

날씨는 매우 덥고 습하고, 땅덩어리도 작고, 여러 민족이 섞여 불화의 요소도 많고, 생산되는 것도 별로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딱 하나 교통의 요지라는 점을 붙잡고 성장한 나라다. 그것 때문에 침략을 수없이 받기도 했지만 결국 그것을 삶의 불씨로 살려낸 것이다.

작은 나라를 관리하는 방법 중 하나가 땅이었다. 싱가포르의 85%가 나라 땅이고 99년간 임대 가능하다고 한다. 나머지는 사유재산인데 그 값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부 아파트에 거주하여 큰 부담 없이 지낼 수 있고 땅 투기도 불가능 하다. 땅 투기는 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부족함이 거의 없는 싱가포르에 사람이 어찌지 못하는 것이 있다. 바로 계절. 사계절을 가졌다는 것은 또 얼마나 큰 행운인가.

싱가포르의 노을을 생각하며 만들었다는 칵테일 ‘싱가포르 슬링’(Singapore Sling)을 한 병 사서 비행기에 올랐다. 손톱만큼 느끼고 가는 여행이지만 보이지 않는 여운이 노을처럼 따라 왔다. 동행한 시집의 한 구절과 함께.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은 아주 작습니다.
그 뒤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위대함에 견주어 보면.

1922년 4월 28일 칼릴 지브란



▲ 렉소디 쇼

나의 삶 나의 예술
+
내포에 자리 잡은
동화작가 장수민

글 · 조 성 미
(흥성문화 편집위원장)



상처받기 쉬운 어린이에게 치유와 성장을 돕는 환타지 동화 계속 쓰고파

〈열린 아동문학상〉 창비 〈좋은 어린이책〉
우수상 받으며 문단에 입지 굳혀



하늘을 올려다본다. 맑고 고즈넉한 가을 아침이다. 그는 주로 집에서 글을 쓴다고 했다. 혼자 살고 있는 아파트가 살림집 겸 작업실인 셈이다. 작가와의 만남 못지않게 작가의 작업실을 방문하는 일은 무척 설레는 일이다. 한 작품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수 없이 새로 쓰고, 다듬고, 고치는 치열하면서도 내밀한 창작의 공간을 엿보는 일이 인터뷰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만의 오랜 믿음이자 즐거움이다. 한껏 들떠서 향기로운 화분을 하나 들고 갈까 싶어 단골 꽃집에 들렀더니 너무 이른 아침이라 개점 전이다. 잠깐 망설이다가 화분 대신 달짝지근한 간식거리를 사들고 걸음을 재촉했다.

엘리베이터가 열리자마자 “여기에요 어서 오세요”하며 작가가 현관문을 활짝 열어준다. 남동향으로 통창을 내고 방과 거실을 일자형으로 배치한 아파트 내부는 아침 햇살로 가득 차 눈부시다. 혼자 지내는 적적함을 달래줄 우아한 고양이 한 마리, 혹은 여러 가지 화초들이 자라고 있을 베란다를 상상한 나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아무 장식도 아무런 물건도 없이 비어있는 거실에 공기청정기와 작업 테이블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다. 그 아무것도 없음에 적잖이 놀란 나는 묻지 않을 수 없었다.

“화분 같은 거 안 좋아 하시나 봐요? 고양이라도”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작가의 대답은 간명했다. 글 쓰는 일 외에는 어떤 일도 만들지 않으려면 아무 것도 들이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다시 보니 부엌살림도 더 없이 단출하다. 이 삭막할 정도로 텅 비어있음은 오직 글 쓰는 일에만 몰입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구나! 뒤늦게 고개가 끄덕여졌다. 이토록 막막한 비어있음을 작품을 잉태하기 위한 치열한 창작의 노동으로 채워야 하다니 ... 허전하게만 보이던 빈 공간이 갑자기 꽉 차 있는 것 같이 느껴졌다. 글쓰기는 생각보다 힘든 육체의 노동이라더니 내 멋대로 낭만적 분위기를 상상한 것이 조금 멋쩍다. 서가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봤다. 아동문학과 관련된 책들로만 간결하게 정돈된 책장을 등지고 면벽한 작은 책상에 노트북 한 대가 놓여 있다.

“주로 이 방에서 글을 쓰시나 봐요?”

“아니요. 여기 저기 옮겨 다니며 써요”

앞으나 서나, 거실에서도 서재에서도 노트북을 끼고 오직 글쓰기에 매달리는 작가의 모습이 절로 그려졌다. 대략 집 구경을 마치고 찻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작품을 내는 족족 큰 상을 받으셨네요?”

미리 읽어두기 위해 준비한 작가의 책 <비밀귀신>(푸른자전거)과 <헛다리 너형사>(창비)를 꺼내자 작가는 얼른 신작 창작집을 한 권 더 꺼내 보탠다. “아니, 이것은 곧 나온다던 그 신간!! 반가운 마음에 얼른 집어 들고 자세히 본다. <괴물 말고 형!!>(라임). 올 8월 31일 초판 1쇄를 찍었으니 아직 딱딱딱한 세 번째 창작집이다. 흥성에 내려와서 힘든 적응기를 거치면서 완성한 첫 책인데다 최선을 다했으니 판매 부수와는 무관하게 만족스럽고 뿌듯하다고 했다. (작품의 완성도 못지않게 마케팅도 작가에게는 은근 신경 쓰이는 일인가보다.)





2012년 제2회 열린 아동문학상을 수상한 <비밀귀신>, 제21회 창비 좋은 어린이책 공모 우수상을 받은 <헛다리 너형사> 그리고 딱딱딱한 신작 <괴물 말고 형!!> 이렇게 세 권의 창작집을 꾸집하게 쌓아 놓고 인터뷰를 하니 듣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았다.

“작품을 내는 족족 큰 상을 받으셨네요?”

“제가 동화작가로 등단은 1998년 대학 4학년 때

했지만, 작가라는 타이틀만 얻었을 뿐 졸업하고 출판사에 취업해 직장생활을 하느라 작품 활동이 그리 활발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동문학 계간지 <열린 아동문학>에서 원고청탁을 받게 됐고, <비밀귀신>을 발표하게 되었어요. 그러고는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잡지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열린 아동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어리둥절하고 깜짝 놀랐지요.”

장수민 작가는 8년 전 일이지만 첫 수상의 감격이 다시 되살아나는 듯 잔뜩 상기된 얼굴로 그 특별한 시상식 이야기를 들려줬다. 계간지 <열린 아동문학>이 매년 시상하는 이 문학상은 지금은 동화 동시 작가라면 누구나 받고 싶어 하지만 당시만 해도 잘 알려지진 않았다고 했다. 계간 <열린 아동문학>은 배익천 동화작가와 홍종관 발행인 등이 의기투합하여 창간한 아동문학 전문 잡지로 “이름보다 작품을 우선하여 신는다”는 것을 모토로 내세워 좋은 작품을 써놓고도 발표할 지면을 찾기 어려운 무명 작가들의 수준 높은 작품들을 발굴하고 알리는 등 문단에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장수민 작가가 제2회 수상자니까 초창기라 작가도 어떤 상인지 잘 모르는 채로 시상식에 참가하게 되었단다.

고성에 가면 동화작가 장수민 나무가 있다.

이 상의 시상식이 특별하고 놀라운 것은 한둘이 아니었다. 우선 손으로 직접 쓰고 작가의 초상화를 그려 넣어 액자로 만들어 주는 상장부터가 너무나 인상적이고 감격스러웠다고 했다. 상장에는 작가의 작품에서 한 구절을 인용하여 새겨 넣었다. 더 특별한 것은 바로 ‘동시동화나무의 숲’이다. <열린 아동문학>을 발행하는 사단법인 동시동화나무의 숲 출판사가 있는 경남 고성군 대가면의 한적한 임야에 조성된 이곳은 아동 문학가들이 동화적 상상력으로 만든 유토피아에 비유되곤 한다. 자연의 숲에 해마다 <열린 아동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의 나무를 심고 그 아래 자연석으로 작가의 이름과 작품명을 새겨 넣어 동시동화나무의 숲을 조성해 문학의 향기가 흐르는 아름다운 숲으로 가꾸어 가는 중이다. 지금도 장수민 작가는 그 숲에 ‘동화작가 장수민 나무’ 이름표를 단 나무가 자라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자부심과 함께 계속 좋은 작품을 써야겠다는 창작의 열정이 솟는다고 했다.

등단한지는 10년이 넘었지만 아직 첫 창작집도 내지 못 해 자칭 타칭 “중고신인작가”로 불리고 있던



때 <열린 아동문학상>은 장수민 작가에게 신인작가의 초심을 되살려주었고, 선배 작가들의 과분한 칭찬과 격려에 좋은 작품으로 보답해야 된다는 생각에 첫 창작집 <비밀귀신>원고를 들고 여기저기 출판사의 문을 두드릴 용기를 얻게 됐다고 했다. 열 번도 넘게 거절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게 했던 힘 역시 과분한 칭찬과 격려를 보내 준 <열린 아동문학상> 덕분이다. 2015년 드디어 푸른 자전거 출판사에서 계약하자고 연락이 왔고 첫 창작집 <비밀귀신>을 출간하게 되었다. 그리고 2년 뒤 <헛다리 너형사>가 제21회 창비 ‘좋은 어린이책’ 공모에서 우수상을 받으면서 동화작가로서 확고한 발판을 마련한다. 한국문학을 대표하는 메이저 출판사에서 공모를 통해 뽑는 창비 문학상은 작가라면 누구나 받고 싶어 하는 최고의 명예이다. 이 상을 받고 장수민 작가는 비로소 “너는 계속 동화 써도 돼”이런 용기와 확신 같은 것은 얻게 됐다고 했다.

“지금도 여러 경로를 통해 수많은 작가들이 배출되고 있지만 사실 동화 동시를 써서 원고료나 강연 수입만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작가는 정말 소수거든요. 그 불확실성과 생계의 문제 때문에 수 없이 자신에게 묻게 되더라고요. ‘내가 정말 동화를 계속 써도 될까?’ 이런 자문을 계속 하면서 머뭇거리는 시간이 길었지요.”

장수민 작가는 3년 전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으로 내려왔다. 3년을 채우고 이제 야 좀 적응이 되는 것 같다는 작가는 “제가 뭐든지 좀 느리거든요”라며 무심한 듯 말했지만 갑작스레 변

화된 환경에 적응하고 이런 저런 일들을 한꺼번에 겪어내느라 어지간히 몸살을 앓았나 보다.

창비‘좋은 어린이책’ 수상으로 동화작가로서 확실한 관록을 얻게 되었고, 등단 20년 만에 자타 공인 동화 작가로서 이제 본격적인 작품 활동에 들어갈 시기에 느닷없이 귀향을 결정했을 때 주변의 동료작가들은 의아해하며 말리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귀향의 이유는 그저 단순했다. 복잡하고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서울보다는 한적한 시골이 글을 쓰는 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고, 기왕이면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이 좋겠다 싶어서 망설임 없이 이사했다. 이런 저런 우려를 뒤로하고 고향에 새 둥지를 튼 지난 3년 작가는 더 좋은 작품을 내놓기 위해 더 고심해야 했을 것이다.

고3 딸, 작가의 꿈 응원해준 부모님 부친의 권유로 문예창작과 진학

장수민 작가는 중앙대학교 문예창작과에 입학하면서 본격적인 작가수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고등학교 때 까지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는 평범한 학생이었다. 작가를 양성하는 문예창작과는 평범한 학생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학과는 아닌 것 같아서 궁금증을 자아냈다. 장수민 작가는 홍성고등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직(2010년)하고 늦깎이 수필가로 등단하여 왕성한 저술활동을 하고 있는 장재현씨(72)의 1남 2녀 중 맏딸이다. 장재현 선생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수민씨 얼굴만 봐도 대번 그의 부친을 연상할 수 있



을 정도로 얼굴까지 쏙 빼닮았다. 수민씨는 부친이 청양에서 교편생활을 시작하여 살고 있을 때 태어나 예산에서 초등학교 4학년 까지 성장하다가 부친의 발령지를 따라 홍성으로 이사했다. 홍주초와 홍성여중 홍성여고를 졸업했다. 문예창작과를 지원하게 된 것은 부친의 영향이 컸다고 했다.

“저는 문예창작과가 있는 줄도 몰랐었죠. 대학 진학을 앞두고 아버지께서 ‘너는 무얼 하며 살고 싶으냐?’고 묻더라고요. ‘글을 쓰는 작가가 되고 싶어요’라고 대답했어요.”

교육대학에 가서 선생님이 되길 바라시던 어머니는 조금 아쉬워하셨지만 아버지께서 선뜻 작가가 되겠다는 수민씨의 꿈을 지지해주시며 중앙대학교 문예창작과에 진학해보면 어떻겠냐며 적극적으로 작가가 되는 길을 알아봐 주셨다고 했다. 고교시절에는 그저 막연하게 글을 쓰는 일을 좋아했



다면 문예창작과에 진학하면서 동화작가로 구체화되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자기소개를 하면서 선배들 앞에서 앞으로 동화를 쓰고 싶다는 포부를 밝힐 정도로 수민씨는 자신의 생각을 뚜벅뚜벅 밀고 나가는 당찬 면이 있었다. 당시에는 문예창작과에 동화장르가 따로 없어서 학부에서 소설작법을 배웠고, 건국대학교 대학원 동화미디어창작과에서 본격적인 동화창작 수업을 받았다. 장수민 작가는 대학원

에서 평소 존경하던 이금이 작가를 은사로 만나 사제의 연을 맺었다. 한국아동문학을 대표하는 이금이 작가는 수민씨에게 작가로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까지 모든 면에서 전범이 되어 주시는 은사이다. 멈추지 않고 늘 쓰는 성실함, 한 곳에 안주하지 않고 늘 새로운 시도를 멈추지 않는 작가로서의 자세는 스승인 이금이 작가를 보며 배우고 있다고 했다. 성실하고, 조용하면서도 치열한 자기갱신을 멈추지 않을 때 더 큰 작가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작가로서 수민씨가 지키고 싶은 삶의 태도이다.

세 번째 신작 창작집 <괴물 말고 형!!> 본격 한타지 동화로 들어가는 입구 될 것

장수민 작가는 저학년을 위한 이야기책을 주로 쓰고 있다. 동화는 어른들이 어린이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이고, 어린이들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와 여러 가지 모험과 상상,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체험을 통해 변화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장수민 작가 역시 어린이의 '성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작품을 쓴다고 했다. 어린이 독자들이 동화를 읽고 난 후에 어떤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문학의 본질이라고 믿는다. 직접적으로 세상은 이렇단다 가르치기보다 이야기를 통해 저절로 터득하는 것이 삶의 진실에 더 가깝게 닿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장수민 작가는 한타지 동화를 주로 쓴다. 동화는 어떤 문학 장르보다 역사가 오래된 만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신화나 옛이야기 같이 인류의 원시적 상상력이 빚어낸 오래된 이야기들이 모두 한타지 동화의 원류로 볼 수 있겠다. 그의 이야기 속엔 현실 속 인물들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화된 동물들과 상상 속의 어떤 존재, 귀신이라든가 도깨비들이 등장한다. 장수민 작가의 장점은 언어를 다루는 솜씨가 뛰어나다는 것이다. 문장이 매끄럽고 대화의 흐름이 자연스러워 소리 내어 낭독하고 싶게 만드는 글맛이 있다. 탄탄한 이야기의 구조와 등장인물 하나하나 개성 넘치는 성격의 캐릭터가 생생하게 살아있다. 첫 창작집 <비밀귀신>은 몰래 다른 사람을 헐뜯는 이야기가 묵어서 귀신이 되어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한바탕 소동을 긴장감 있고 흥미진진하게 풀어냈다. 또 <헛다리 너형사> 역시 여우뿔을 도둑맞은 사건을 해결하는 너구리 형사를 등장시켜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추

리기법으로 맛깔나게 이야기를 풀어가는 솜씨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이번에 새로 나온 세 번째 이야기 <괴물 말고 형!!>은 말썽대장 형 민준이와 형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는 왕소심쟁이 동생, 두 형제의 티격태격하는 이야기에 그림책 속 괴물과 현 책방에 살고 있는 도깨비 같은 환타지를 버무려 사건을 해결하고 화해하는 과정에서 한 뼉뼉 훌쩍 자라는 감동적인 성장 이야기이다. 전작에 비해 등장인물들의 캐릭터는 더 생생하게 다가왔고 뒷부분으로 갈수록 흥미진진하며 뜻밖의 반전으로 등장하는 도끼비이 이야기 또한 자연스럽고도 친근하다. 장수민 작가는 이번에 내놓은 <괴물 말고 형!!>의 뒷부분에 깜짝 등장하는 도깨비는 자신이 앞으로 쓰고 싶은 작품의 방향과 모티브를 살짝 보여준 것이라고 귀뜸해 준다.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집안에 갇혀 지내는 어린이들을 보면 안타깝고 마음 아프다는 작가는 전쟁 때문에 집안에 갇혀 지내야 했던 상황에서 <나니아 연대기>같은 환타지 문학이 탄생했듯이 언택트 시대를 살아야 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마음껏 상상과 모험의 세계로 떠날 수 있는 <나니아 연대기>같은 본격적인 환타지 동화를 쓰고 싶다고 말했다. 다음엔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벌써부터 다음 작품이 기대된다. 



Y문영

제2회 열린아동문학상

동화 비밀 귀신

장수민

문득 이야기가 오래 묵으면 귀신이 된다는 말이 떠올랐어요. 어쩌면 돼지 저금통안에 가둬 둔 비밀 이야기가 귀신이 된 건지도 몰라요.

“산각사각사각사각사각...”

계속 숨을 죽이고 돼지 저금통을 살펴봤어요. 조금 지나자 사각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사람이 응얼거리는 것처럼 들리더니 또렷한 말소리로 변해갔어요.

나는 돼지 저금통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덜컥 겁이 났어요. 다 내가 비밀 쪽지에 적은 이야기였어요.

<부분>

2022년 5월 12일

열린아동문학상

열린아동문학상 운영위원장 김병규

+
홍성의
문화예술동아리 ②

달빛
아코디언
합주단

글 · 서다래
(홍성문화 편집위원)

“하루라도 빨리 도전해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요”

만추의 계절 심금을 울리는 소리
희망을 이야기하는 광장의 악기 아코디언

아코디언은 지상의 삶을 위한 악기이다. 왼손이 베이스와 박자를 담당하고,
팔과 어깨가 숨을 만들어 내고, 오른손 손가락으로 희망을 이야기한다.

-존 버거 <한때 유로파에서> ‘아코디언 연주자’ 중



존 버거는 그의 단편 ‘아코디언 연주자’에서 천국에는 하프나 플루트나 바이올린은 있을지 몰라도 아코디언은 없을 것이라며 위와 같이 덧붙였다.

해 질 녘의 거리, 시끌벅적한 시장 한 구석, 퇴근 후 선술집에서 만나도 어색하지 않은 서민의 악기, 화려한 무대 위 성장(盛裝)한 연주자에게서 들을 수 있는 음악이 아니라 우리 이웃의 ‘지상의 삶을 위한 악기’가 바로 아코디언이다. 배우기 쉽고 이동이 간편하며 조율 없이 즉석에서 연주가 가능하다는 점이 아코디언을 광장의 악기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무릎에 올리고 두 팔과 어깨로 감싸 안아 연주하는 모습마저 외롭고 지친 삶을 위로하는 듯하다.

아코디언이 19세기 독일에서 만들어진 이래 빠른 속도로 전 세계에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은 각지의 민속음악과 대중음악이 특유의 매력적이고 풍부한 음색과 잘 어울렸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중음악인 트로트와도 구성진 소리가 무척 잘 어울린다. 단풍이 곱게 물들어 가는 만추의 계절에 어울리는 애잔한 소리. 그래서인지 인생의 황혼기에 있는 노년층에게 더 사랑을 받는 악기이다.

홍성문화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달빛아코디언합주단> 회원들 역시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 주를 이룬다. 하지만 아코디언에 대한 열정은 나이를 무색하게 한다. 최악의 전염병으로 온 세상이 멈춰버린 지금도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마스크로 무장한 채 조심스럽게 모여 각자 연습해 온 곡들을 합주하는 시간을 갖는다.

달빛아코디언합주단 서준원 단장(81·전 혜전대 교수)은 아코디언에 입문한 지 올해로 10년째다. 아코디언의 정감 있는 소리에 이끌려 문화원을 찾아온 이래 아코디언 동아리의 가장 열성적인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는 홍성문화원 문화학교에서 신입회원들을 지도하고 있다. 그동안 문화학교에서 서 단장의 가르침을 받은 이는 수십 명이지만 대부분 포기하고 남은 사람은 여섯 명뿐이다. 아코디언이 여타의 악기보다 배우기 쉽다고 하지만 처음 배우는 이들에게는 엄청난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베이스의 연주법, 바람통과 몸의 호흡, 생소한 건반 위치 때문에 의외로 친해지려면 시간을 제법 투자해야 한다. 적어도 1년 정도 기초과정을 익혀야 기본적인 연주가 가능하다.

적은 인원으로 달빛아코디언합주단이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온 데에는 서 단장을 비롯한 김정호(77), 최종락(80) 씨 3인방의 노력이 컸다.

김정호 씨는 홍성문화원 문화학교에 아코디언 반을 처음 만든 이다. 열차에서 우연히 만난 아코디언 연주자 이영희 씨에게 배움을 청해 아코디언반의 첫 수강생이 됐다. 노래도 잘하고 음악에 재능이 있어 아코디언 연주도 수준급이라고 서준원 단장이 귀땀한다.

최종락 씨는 음악에 문외한이었지만 TV에서 본 아코디언 연주에 매력을 느껴 일흔이 넘는 나이에 문화원을 찾았다. 한 곡 한 곡 연주곡을 완성하며 아코디언의 매력에 푹 빠져 있던 무렵 이영희 선생이 개인사정으로 떠나게 되자 서준원 단장과 함께 강사를 수소문하며 동아리의 명맥을 잇기 위해 애를 썼다.

서준원 단장은 아코디언 합주단의 두 번째 스승인 오운상 씨를 모셔오기 위해 삼고초려를 마다하지 않았다고 회상한다. 오운상 씨는 당시 청양, 온양, 천안 등지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던 지역의 몇 안 되는 아코디언 연주자로, 바쁜 일정 때문에 이들의 청을 마다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서준원 단장은 최종락 씨와 함께 오운상 씨의 예산 집까지 찾아가 동향 사람임을 강조하며 설득해 마침내 허락을 받아냈다. 현재는 오운상 씨가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며 하산을 권유해 강사 없이 유지하고 있다.

서준원 단장은 아코디언 배운 후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김정호 씨의 칠순 잔치에서 연주한 일을 꼽을 정도로 세 사람은 서로에게 애뜻한 존재가 됐다. 김정호 씨 역시 10년 동안 동아리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연주실력이 늘어나는 만큼 회원 간의 친분이 두터워졌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현재 달빛아코디언합주단은 신입회원은 서준원 단장이 지도하고, 공연반은 한경분(56) 씨가 실질적인 리더로 활동하고 있다. 한 씨는 4년 전 동아리에 합류했다. 피아노 연주가 능숙해 같은 건반 악기인 아코디언도 빠르게 익혀 지금은 공연반의 최고 실력자라고 한다.

한경분 씨는 아코디언의 매력으로 ‘소리의 다양함, 운반의 편의성, 쉬운 연주’를 꼽았다. 아코디언은 한 대의 악기로 선율과 반주를 함께 연주할 수 있으며 다채로운 음색 효과를 낼 수 있어 오케스트라 구성이 가능하다. 또한 음색이 강렬하고 음량이 크다. 무게도 12kg 정도로 운반이 쉽다. 이러한 여러 매력이 한경분 씨를 아코디언의 세계로 이끌었다.

박옥선(63) 씨는 아코디언을 배운 기간은 불과 1년 남짓이지만 실력은 다른 공연반 회원들 못지않다. 한경분 씨처럼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담당했던 이력이 있다.

“아코디언은 배울수록 참 잘 만들어진 악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키 하나로 화음을 낼 수 있으니 기가 막히죠. 참 묘하고 매력적이에요. 만든 사람이 머리가 좋다, 대단하다고 감탄을 합니다.”

코로나19가 일상을 바꿔놓은 후, 공연예술계는 침체를 넘어 생존을 고민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지역의 여러 행사에 단골 초대 손님이었던 달빛아코디언합주단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예년 같으면 벌써 여러 차례 무대에 올랐겠지만 올해는 단 두 차례 연주 기회가 주어졌다. 자신들을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연주하는 것을 최고의 보람으로 여기는 회원들에게 아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그래도 연주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참가한 ‘2020 실버문화페스티벌 <사이니스타를 찾아라> 충남 지역 오디션’에서 라이징스타상을 수상했다. 관객이 없어 흥이 나진 않았지만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라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아코디언 연주를 계속하고 싶다는 서준원 단장과 단원들은 모두 아코디언 인구가 늘어나 동아리가 활성화되는 게 가장 큰 바람이라고 입을 모은다.

“악기를 연주할 때 느끼는 즐거움은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죠. 새로운 악기를 배우는 일에 두려움을 느끼기 전에 한 살이라도 빨리 배워 노후를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



장터 - 참꼬막

현 자

전날 살조개라 불리던 참꼬막
붓장 좋은 아버지 갈산장 보신 날 한 자루씩 메고 오셔서
기다리다 지쳐 선잠 든 자식들 들으라고
토방 위에 짜르르 부어놓으시던 참꼬막
잠결에 벌떡 일어나 한 사발씩 배급받아 품에 안고
때쫂 킨 손톱으로 눈 빠질라 까먹던 참꼬막
단단하고 야문 껍데기 짹 벌리면
그 안에 참말 통통하고 간간하니 맛난 갈미* 참꼬막
그 순간만은 어머니도 모처럼 자식 챙기지 않고
돌아앉아 몇 대접씩 냅냅 까먹던 우리들의 참꼬막
장독대에 수북하게 쌓이는 고막 껍질 절반은 어머니
밤새 까먹다 엄지손톱 다 닳아 없어진 줄도 몰랐으니
어디 어디 꼬막 맛나다 자랑마라,
갈미장 참꼬막이 진짜였느니
비록 천수만 물길 막혀 그 흔한 자취 사라졌어도
말만 들어도 침 고이는 갈산 참꼬막

| 프로필 |

「오늘의 문학」 신인작품상 수상(1995)
「시와 표현」 신인상(2013)으로 등단
충남 예술인 공로상(2004)
한국문인협회 홍성군지부장, 충남문협 이사,
홍주문학회장(8대) 역임
시집 「화요일 오후」 「그래도 풀씨를 날리며」
(현) 시와 표현, 홍주문학회, 충남문인협회 회원, 갈산중 교사



시 & 수필
+
홍성문인협회

흰 갈꽃 바람에 흔들리고

김기정

회색빛 하늘아래
들판의 풍요는 색을 잃고
비워져 간다.

가로수는 옷을 벗어
다가올 거친 바람에
가벼이 몸을 사리고

가지 않으면 세월이 아니라 하듯이
나만의 인생도 저만의 자연도
모든 것은 지나가리

백년이 가고 천년이 가며
또 다른 삶이 찾아와
이어지는 한 점일 뿐

너그라이
바람에 몸을 맡겨 춤추는 몸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비워진다는 것은 채워지는
기다림이 있다.

하얀 갈꽃 흔들림에
내일을 기다리는
설렘을

우리는 담고져.

| 프로필 |

『수필시대』 수필 등단, 2003년

『미래시학』 시 등단, 2012년

시낭송 지도자(현대문학 신문, 2014)

한국문인협회, 충남문인협회, 홍성문인협회 회원
현) 아파트 관리소장



시 & 수필
+
홍성문인협회

산 행

조 종 수

요즘 들어 등산인구가 많이 늘었다. 그래서인지 아웃도어 용품점이 시내 곳곳에서 눈에 띄고 등산복 차림의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된다.

방송에 조금이라도 나온 산에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간혹 건강을 위하여 홀로 산에 오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개는 산악회에 가입을 하여 버스를 타고 단체로 산에 다닌다. 나도 여느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산악회에 가입하여 단체 산행에 나서곤 한다.

산에 오른다는 것은 산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의미한 행동일지도 모른다. 혹자는 말한다. 올라가서 금방 내려올 텐데 뭣하러 올라가느냐고. 그러나 산에 오른다는 것은 인생에 비유할 만큼 오묘한 의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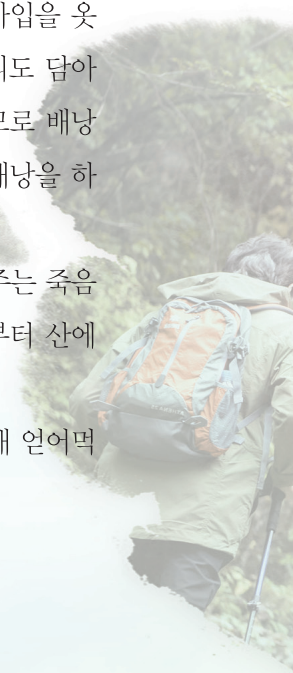
산에는 우리의 인생처럼 함께 가지만 결국은 혼자 가는 외로운 길이다. 두 어깨에 짊어진 배낭의 무게와 나의 무게를 오롯이 혼자 감당해가며 올라야 한다. 숨이 가빠진다면 잠시 쉬어갈수는 있지만 누가 나를 업고서 올라가주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평소 쓰지 않는 근육을 사용해야 하므로 근육이 당기고 무릎이 시큰하고 숨이 차오르고 땀이 흘러 옷을 적신다. 정상에 오르는 내내 포기하고 내려갈까 하는 마음이 자라난다. 이쯤하면 많이 올라왔다는 그래서 이만 내려가도 될 거라는 자기 합리화의 유혹도 받게 된다. 이렇듯 끊임없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야 비로소 정상에서의 쾌감을 맛 볼 수 있는 것이다.

산행은 대개 새벽 5시나 6시에 출발하기 때문에 전날 미리 배낭을 꾸려야 한다. 배낭에는 우선 생수를 담아야 하고 모자, 장갑, 그리고 산위에서 먹을 도시락, 땀을 닦을 수 있는 수건, 하산 후 목욕용품, 갈아입을 옷 등등 준비물들이 수없이 많다. 심지어는 산행 중간중간 일행들과 함께 나누어야 할 간식거리, 막걸리도 담아야 해서 배낭은 금방 꽉차기 일쑤다. 더군다나 막걸리는 생수를 두어개 열려서 함께 넣어야 시원하므로 배낭의 무게는 천근만근이다. 그래서 궁리 끝에 좀 넉넉하고 하중의 분산이 잘되어 가볍게 느껴진다는 배낭을 하나 구입했다. 그리고 산행에 필요한 준비물을 사려고 마트에 갔다.

평소 습관대로 막걸리를 사려고 할 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침 뉴스에서 들은 '산행시 음주는 죽음을 부를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순간 나는 술을 과연 먹어야 할까하는 고민에 빠졌다. 그리고 이제부터 산에서는 술을 먹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들었던 막걸리를 도로 내려놓았다.

막걸리를 내려놓으니 당연히 안주의 필요성도 없어졌다. 간식은 다른 사람도 많이 가져오니 한두 개 얻어먹



으면 되므로 굳이 살 필요도 없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것 빼고 저것 빼면서 새로 산 가방에 많은 여유가 생겼고 또 가벼워 졌다.

드디어 산행 당일 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대충 세면을 하고 옷을 입고 도시락을 챙겨 집을 나섰다. 가벼워진 배낭의 무게만큼 뭔가 허전한 기분이 들었다. 이 찝찝한 기분은 뭐란 말인가. 무언가 놓고 가는 듯한 느낌은 있는데 딱히 뭘지 알 수가 없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던 버스에 몸을 실었다. 아직 잠이 덜 깬 상태로 나왔기 때문에 달리는 차안에서 잠을 보충하며 목적지인 충북 영동에 있는 민주지산으로 향했다.

자다 깨다를 반복하며 꿀잠을 자던 중 뭔가 하나 빠져있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등산용 지팡이인 ‘스틱’이었다. 나는 무릎이 좀 약한 편 이어서 하산 길에는 통증이 오곤 한다. 그래서 올라갈 때부터 스틱을 이용하여 무릎에 전해지는 하중을 줄여야 한다. 그런데 스틱을 놓고 온 것이다. 놓고 오는 것에 정신이 팔려 정작 중요한 것을 빼놓고 온 것이다.

수없이 나를 자책했지만 도리 없는 노릇이다. 산에 도착하기까지 스틱이 없다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산행이 시작되기도 한참동안은 무릎이 과연 견딜 수 있을지를 걱정하며 무리가 안가도록 신경을 써야 했다. 상황이 이런데 등산의 즐거움은 반감될 수밖에…….

그렇게 천천히 정상에 오르고 얼마 안가서 도시락을 먹기 위해 일행과 함께 둘러앉았다. ‘어라? 이번에는 간 이 의자를 안가지고 왔네?’

산에서는 깔판이나 간이의자가 없으면 맨땅에 앉아야 하는데 땅이 젖어 있거나 차가워서 불편한 게 이루 말할 수 없다. 나는 또다시 나를 자책하면서 밥을 먹어야 했다. 다들 의자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혼자 땅바닥에 앉아 밥을 먹으려니까 스스로 곤궁해보이고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

밥을 먹고 하산하는 길에 먼저 엉덩이에 얼얼함이 전해져왔다. 그리고 드디어 무릎에 찌릿찌릿 전기가 오는 듯 하더니 통증이 오기 시작했다. 다행히 제법 지팡이로 쓸 수 있을 만한 나뭇가지가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여 이것에 의지하면서 무사히 주차장까지 내려올 수는 있었지만 순탄치 않았던 산행이었다.

나 편한 대로 이것저것 빼버리고 생략하는 것이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다. 무엇이랴도 더 가져가면 다 쓸데가 생기게 마련이고 없는 것 보다 있는 것이 낫다는 생각에서이다.

다행히 이번이 마지막 산행이 아니고 다음 달에 또 갈수 있어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시행착오가 없을 것이다. 또한 의학의 발달로 인생도 더 길어졌고 앞으로 더 길어진다고 하니 살아가는 동안 더 담아가야 할 것들과 짊어질 짐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다. 

| 프로필 |

시인, 수필가, 여행가로서 한국문인협회, 담쟁이문학, 화백문학, 국제문학, 가온문학, 홍주문학 회원
시집 <인생에 생각을 묻히면>, 여행에세이 <중국 배낭여행 철길 따라 꿈 따라>, 공저 <담쟁이문학>의 다수



시 & 수필
+
물양금시문학회

월급통장

송 미 경

마치 영화처럼

비행접시가 낮게 내려와

온 몸의 수증기를 빨아들이고 있다

거죽만 남기고 탈탈 털린 채

허연 물결이 되어

겨우겨우 연명해 가고 있는데

조금씩 기운을 차릴 때마다

어김없이 비행접시가 날아와

영혼까지 탈탈 털어간다



따리

박미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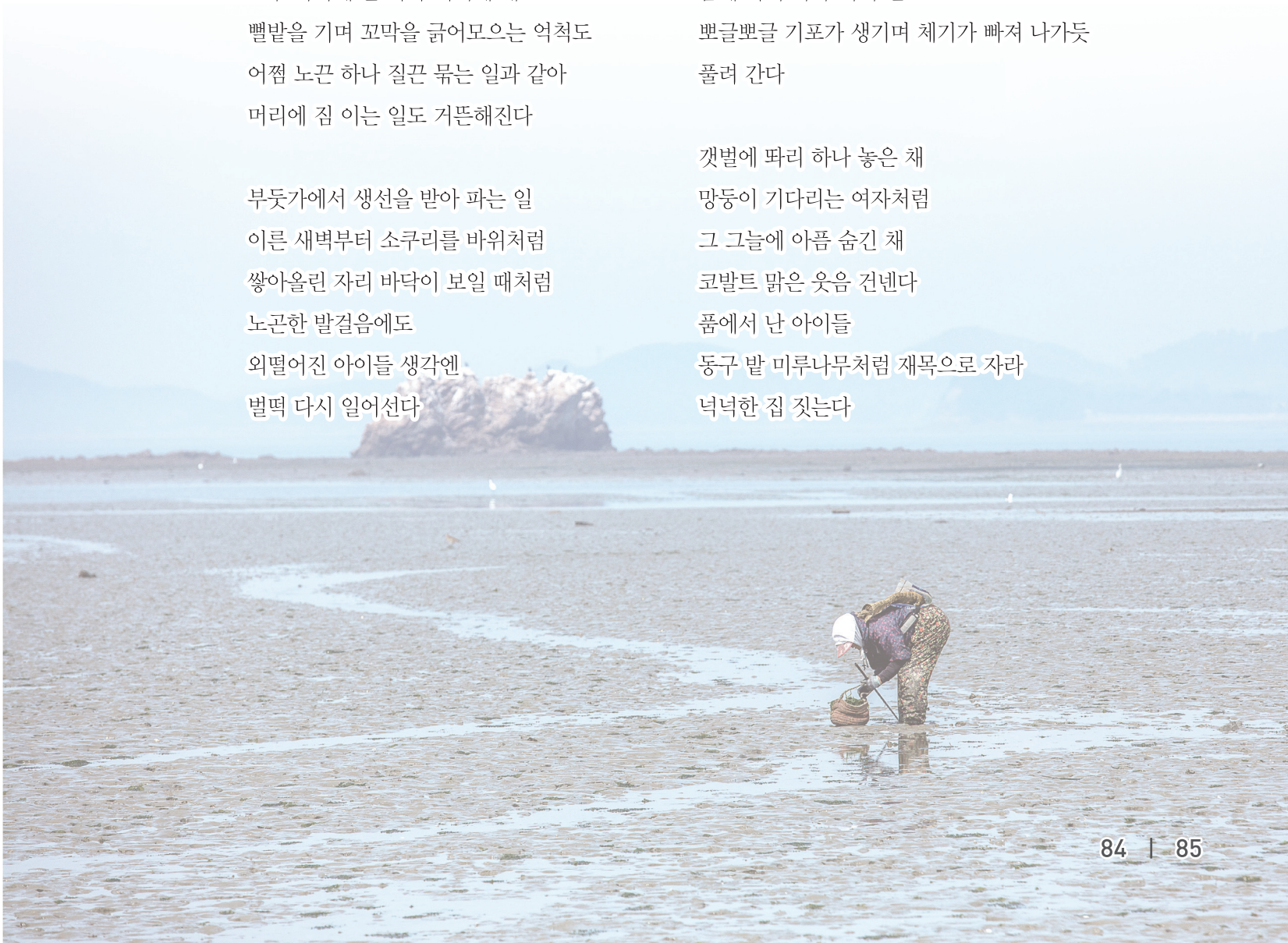
웃음 구멍처럼 함뻑해서
구김 없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가끔은 그늘 밑 뱀 살갓 만지듯
차갑게 위장하기도 한다

고무 다라에 끈 하나 허리에 매고
빨발을 기며 꼬막을 굽어모으는 억척도
어쩔 노곤 하나 질끈 묶는 일과 같아
머리에 짐 이는 일도 거뜬해진다

부둣가에서 생선을 받아 파는 일
이른 새벽부터 소쿠리를 바위처럼
쌓아올린 자리 바닥이 보일 때처럼
노곤한 발걸음에도
외떨어진 아이들 생각엔
벌떡 다시 일어선다

우물가에서 빨래터에서
동네 소문들 다 알아 차리고도
너스레로 웃는
빨발처럼 철퉁이고
늪처럼 정체되어도
틈에 따리 하나 꺾 주면
뽀글뽀글 기포가 생기며 체기가 빠져 나가듯
풀려 간다

갯벌에 따리 하나 놓은 채
망둥이 기다리는 여자처럼
그 그늘에 아픔 숨긴 채
코발트 맑은 웃음 건넨다
품에서 난 아이들
동구 밭 미루나무처럼 재목으로 자라
넉넉한 집 짓는다



홍성문화원, 2020 지방문화원의 날 기념식, 종합경영분야 우수상 수상

지난 10월 23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2020 대한민국 문화원상 종합경영분야 우수상 수상



▲ 충남문화원 수상자들(왼쪽부터 보령문화원 황우호 원장, 부여문화원 정찬국 원장, 한국문화원연합회 김태웅 회장, 홍성문화원 유환동 원장, 천안서북구문화원 이종석 원장, 태안문화원 정지수 사무국장)



▲ 유환동 원장이 수상하는 모습

홍성문화원이 지난 10월 23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2020 지방문화원의 날 기념식’에서 종합경영분야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지방문화원의 날(매년 10월 10일) 기념식에서 진행되는 대한민국 문화원상은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행사로, 우수문화원 활동에 대한 홍보, 우수프로그램 확산, 문화원 종사자의 모범활동 선정 및 격려를 위해 마련된 자리다.

올해는 종합경영분야, 우수프로그램분야, 인재분야, 지역 문화 창달 분야로 나눠 지난 1년간 문화원의 지역문화 발전 기여, 프로그램 발전을 위한 노력, 프로그램 성과, 문화인력 양성 및 교육 등을 종합 판단하여 심사·선정하고 있으며, 작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수상(홍성문화원 유환동 원장)에 이어 종합경영분야 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제2회 홍성의 무형문화재 전시회 개최

지난 11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홍성문화원 2층 전시실에서
홍성의 충남도지정 무형문화재 4개 분야 참여



충청남도가 지정한 충남 무형문화재의 작품을 한곳에서 볼 수 있는 제2회 홍성의 무형문화재 작품 전시회가 지난 11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홍성문화원 2층 전시실에서 열렸다.

이번 작품 전시회에는 한지를 꼬아 끈으로 만들어서 작품을 만드는 지승제조 최영준(충남 무형문화재 제2호), 땃대이덩굴을 사용하여 작품을 만드는 땃대이장 백길자(충남 무형문화재 제31호), 전통기법으로 진흙을 반죽해 옹기를 제작하는 옹기장 방춘웅(충남 무형문화재 제38-1호),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금속품을 만드는 홍성의 마지막 대장장 모무회(충남 무형문화재 제41-2호) 등 기능보유자 4분이 참여했다.

개막식에서 유환동 원장은 “두번째 작품 전시회를 통해 우리지역 무형문화재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우리의 소중한 문화자산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면서, “우리 모두 건강관리를 잘해서 코로나19을 이겨내고 내년에는 우리 문화예술계가 더욱 풍성해 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성문화원 소식 2020 문화의날 기념식 행사

문화의 날 기념식 개최

지난 10월 31일, 홍성문화원 1층 공연장에서
지역문화예술동아리 문화공연 실시



2020 문화의 날 기념식 행사가 지난 10월 31일에 홍성문화원 1층 공연장에서 열렸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홍성군내 기관단체장과 문화예술인 50여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예전보다 적은 규모로 축소해서 개최하였다.

문화의 날 기념 행사는 문화의 날을 맞아 문화예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식을 갖고 지역문화예술발전 유공자를 발굴, 표창하여 문화예술인들의 사기를 높여주고 전시예술 동호인들에게 전시공간을 제공하고 공연예술 동호인들에게 공연기회를 제공하여 숨겨진 끼와 재능을 선보이고, 군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며 지역의 문화예술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오전 9시부터 홍성문화원 2층 전시실에서 묵향담은 우리 그림, 홍주 서학회, 보광 서학회에서 준비한 작품 전시회가 진행 되었고, 오전 10시부터 식전공연 팬여울 앙상블의 연주를 시작으로 기념식이 진행되었다.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한 황유정씨에게 홍성군수 표창패를, 홍성문화원 부원장 박정숙씨에게 국회의원 표창장을, 무형문화재 최영준씨에게 공로패를, 홍성군 의회 이병희의원과 김은미의원, 홍성군청 천셋별 주무관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한 ‘2020 샤이니스타를 찾아라’ 온라인 충남지역 오디션에서 수상한 달빛 아코디언, 돌돌 합창단, 달빛 색소폰 합주단에게 샤이니스타상을 시상 하였다.

한편, 유환동 원장은 “10월 문화의 달은 지나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제정되 올해로 49회째를 맞고 있으며, 올해는 최소한 인원으로 열게 돼 안타깝다.”며 “우리 모두 방역지침을 잘 지켜 코로나19 감염병을 슬기롭게 이겨내 내년에는 더욱 활발한 문화예술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행사를 통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우리지역 문화예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기념사 및 축사에 이어 파랑새 오카리나 앙상블, 달빛 아코디언, 가야소리, 밴드노트 동아리에서 다양한 장르의 신명나는 무대가 펼쳐졌고,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제1회 보광서각회 작품전시회 개최

지난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홍성문화원 2층 전시실에서
보광서각회 9인이 참여 ...



제1회 보광서각회 작품전시회가 지난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홍성문화원 2층 전시실에서 열렸다.

홍성문화원이 주관하는 보광서각회 작품전시회는 우리지역의 문화예술단체 전시 및 공연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에서 오랫동안 서각예술활동을 벌이고 있는 ‘보광서각회’의 작품전시회를 지원하여 문화예술인들의 사기진작 기회를 마련하고 문화예술 증흥에 기여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열게 됐다.



이번 작품전시회에서는 보광서각회 9인(지도강사 보광사 주지 지법스님, 회장 송암 김광수, 청송 이광희, 성보 윤만호, 자광 이종구, 도파 이종욱, 춘헌 김단해, 천종 배승빈, 월영 임종수)의 작품 70여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각문화의 홍보와 대중화를 위하여 매일 관람객을 상대로 추첨을 통해 작품을 기증하는 이벤트도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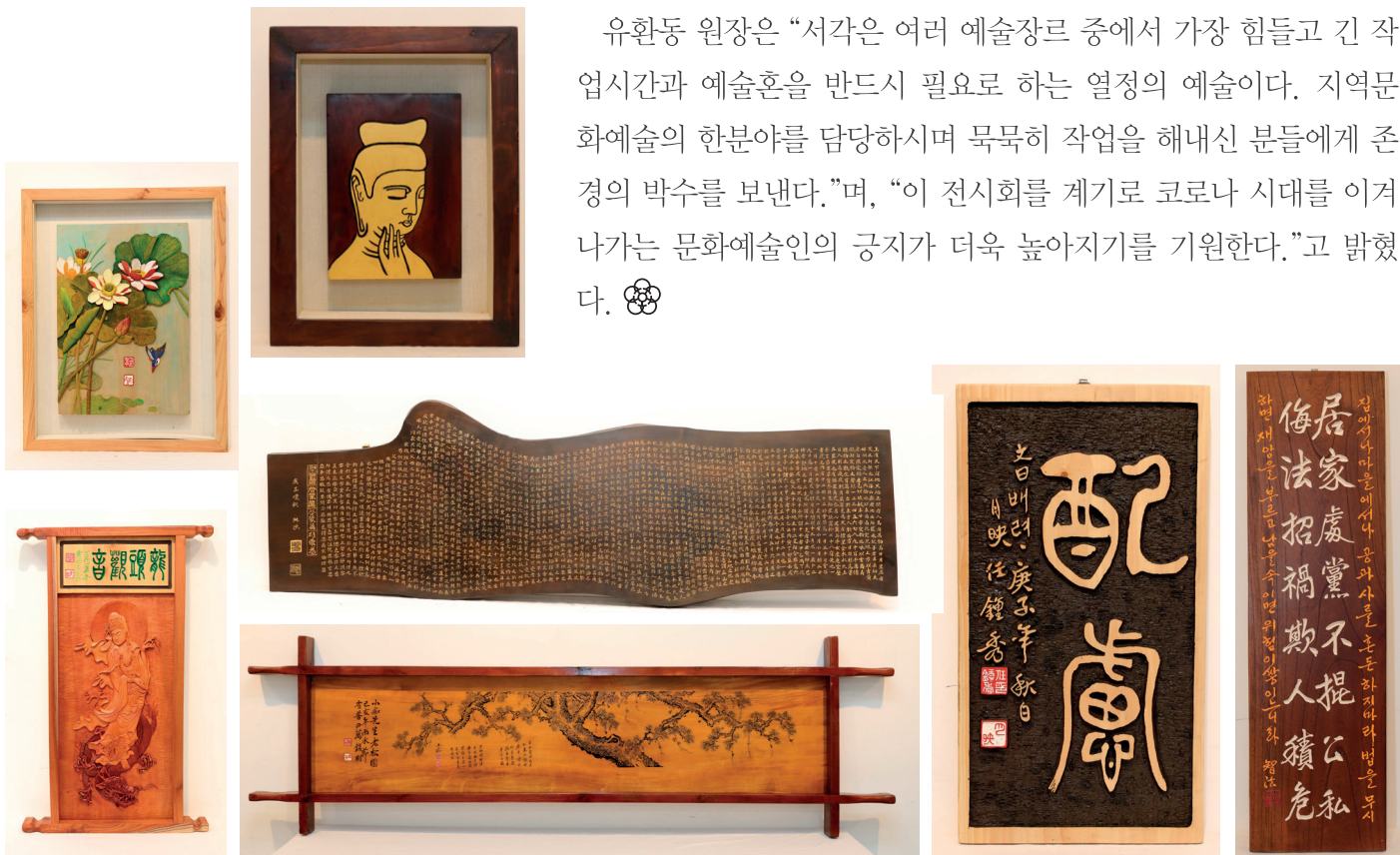


개회식은 11월 18일 오후 2시부터 홍성문화원 2층 전시실에서 홍성군내기관단체장 및 보광서각회 회원, 관람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감염병 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되었다.

전시회에 참석한 관람객들은 서각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무에 새긴 아름다운 글씨와 그림을 감상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추첨을 통한 작품 증정 이벤트가 호응이 좋았으며, 전시회가 진행되는 4일동안 40여점의 작품이 증정되었다.

유환동 원장은 “서각은 여러 예술장르 중에서 가장 힘들고 긴 작업시간과 예술혼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열정의 예술이다. 지역문화예술의 한분야를 담당하시며 묵묵히 작업을 해내신 분들에게 존경의 박수를 보낸다.”며, “이 전시회를 계기로 코로나 시대를 이겨 나가는 문화예술인의 긍지가 더욱 높아지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제25회 만해추모다례

8월 29일(토) 오전 11시~ 12시, 만해생가지 일원에서 홍성군내 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매년 불교사상가이자 독립운동가이며 시인이신 만해 한용운 선사의 위대한 업적과 숭고한 정신을 기리며, 청소년에게는 자긍심 고취와 애郷심을 심어주고자 개최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 추모다례는 만해 탄신 141주년을 맞아 홍성군립무용단의 '진혼무'를 시작으로 수덕사 정경스님의 행장소개와 주경스님의 축원, 김석환 군수의 추모사, 만해한용운선사기념사업회 이사장 오산큰스님의 법어, 만해 시낭송과 참석한 내빈 헌화 순으로 봉행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참석인원 및 행사를 축소하여 진행하였다.



2020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찾아가는 문화로 청춘'

색소폰, 아코디언, 가야금병창, 사물놀이 등 아마추어 어르신들의 문화예술활동과 공연기회를 제공하는 어르신 공연단을 구성하여 지역의 전통시장 등으로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실시, 지역 전통시장의 관광 활성화와 실버문화예술동아리의 육성 및 활성화를 기대하며, 어르신들의 예술적 성취감 제고와 삶의 활력을 부여하고자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지원을 받아 마련됐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의 전통시장 등으로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실시하지 못했지만 10월부터 11월까지 홍성문화원 공연장에서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제공하는 방식으로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촬영한 영상은 홍성문화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볼 수 있다.



2020 제4회 충남생활문화축제 참가

10월 23일 오후 6시30분, 당진문예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예술의 사사로운 일상생활·문화를 주제로 한 충남생활문화축제가 열렸다. 홍성문화원에서는 3팀의 공연영상을 사전에 촬영하였고 20여점의 작품을 전시했다.

이번 행사는 충남문화재단과 충남문화원연합회가 주관한 충남 도민 및 생활문화인과 동호회를 대상으로 생활문화축제의 장을 열어 일상속 문화향유와 생활문화동호회 활동 촉진 및 자발적 문화활동의 확산 계기를 마련하고자 비대면으로 개최되었다.



제30회 충청남도지사배 민속대제전 참가

11월 14일 오전 10시, 홍주문화체육센터에서 충남도지사배 민속대제전에 홍성군 선수단 및 임원 30여명이 참가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별 각각 진행하였고, 인원 및 경기를 축소하여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는 중도일보가 주관하고 충청남도가 후원하여 충청남도내 15개 시군이 참가하는 충남도민의 민속한마당축제로, 다양한 민속경기를 통해 잊혀져가는 우리 전통민속문화를 계승·발전시키며 도민 화합을 도모하고자 매년 실시해오고 있다.



2020 제1차 홍성문화원 임시총회

11월 20일 오후 2시, 홍성문화원 1층 공연장에서 유환동 원장과 이사를 비롯한 회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시총회는 제20대 홍성문화원장 선출을 위해 개최하였는데, 단일 후보로 임시총회에서 현 유환동 원장이 당선된 것을 선포하였다.

유환동 원장은 “앞으로 지역문화예술발전과 문화원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문화원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마무리하고 문화원이 군민 문화의 전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하겠다.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며 소감을 밝혔다.



근·현대 구술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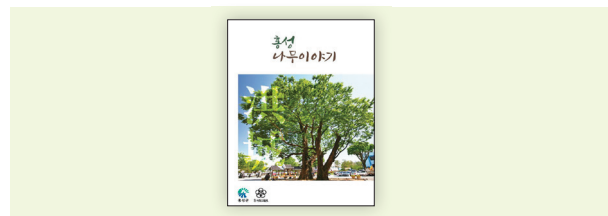
올해로 2년째를 맞고 있는 근·현대 구술채록 사업은, 우리지역의 사라져가는 많은 역사문화, 민속에 대한 발굴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겨 놓은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홍성의 옛 포구> 15곳을 발굴하였고 올해는 <홍성의 옛 장터> 10개소를 발굴하여 채록하였다. 채록된 원문과 영상은 추후 우리지역의 향토문화에 관한 큰 유산이 될 것으로 기대하여 앞으로 다양한 방면의 사라져가는 우리지역의 역사문화를 발굴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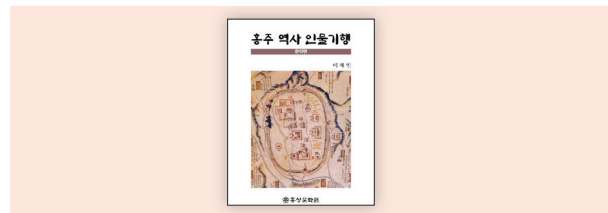
홍성의 사투리 책자발간

홍성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우리고유의 사투리를 종합하여 책으로 엮어내었다. 사투리의 특징과 사투리의 모습 그리고 사투리 용례를 통하여 지역의 사투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홍성의 나무이야기

우리지역의 보호수를 취재하여 그 내용을 파악하고, 나무에 얽힌 다양한 역사와 전설을 실은 책을 펴냈다. 홍성군 각 읍면에 위치해 있으면서 오랜 동안 지역주민들의 삶을 지켜보며 화노애락을 함께한 여러 이야기가 담겨있다.



홍주역사인물기행

홍성이 낳은 역사인물 중 문학에 조예가 깊은 이들을 집중 조명하여 그들의 문학세계를 살펴본 책이다. 손곡 이달, 김호연재, 송파 임식, 조준성, 송옥, 약천 남구만, 만해 한용운의 사상과 인생이 담겨있다.



홍성의 노동요 CD제작

홍성문화원에서 1994년 제작한 홍성지역의 노동요 테이프를 디지털로 복원하여 제작하였다. 30여년 전 실제 녹음된 음원을 되살려 후손에게 귀중한 자료를 물려줄 수 있게 되었다.



향토문화소식지 『홍성문화』 발간

홍성의 역사,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문화유산과 소식을 기록하고 해석, 발전시켜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에 대한 인식 향상과 우리 고장을 더욱 알리는 역할을 도모하고자 '홍성문화'를 연 2회 발간, 매년 6월 말과 12월말에 각 1,000부씩을 발행한다.

홍성군민, 기관단체를 비롯한 전국 지방문화원과 유관 기관, 도내 도서관, 문화원 회원, 지역주민, 출향인사 등을 대상으로 무료로 배포해 오고 있다.



향토도서관 운영

문화 가족 및 지역주민들에게 문화함양과 여가선용을 제공하기 위해 향토도서관을 연중 운영, 홍성문화원 회원이면 도서관의 모든 도서 및 자료(DVD, CD) 등을 열람하고 대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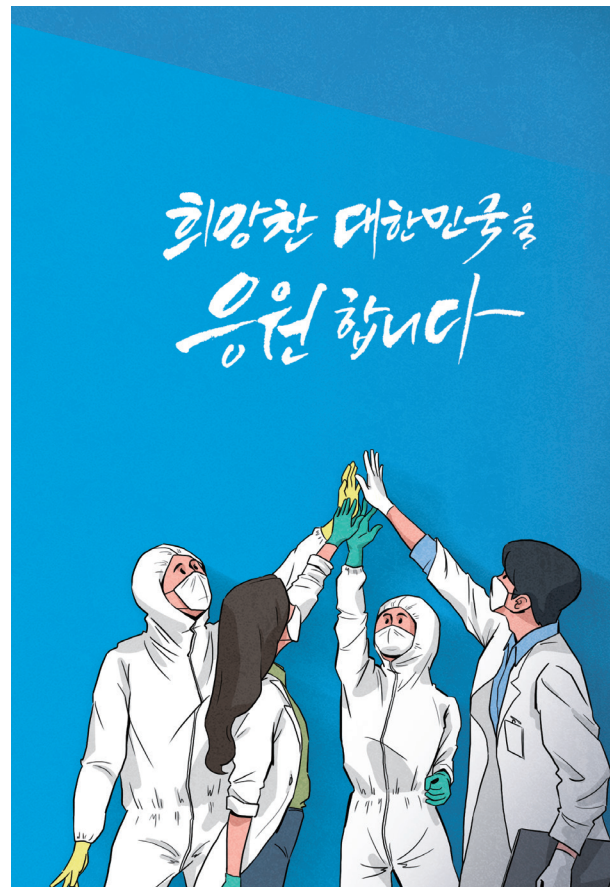
이용시간은 평일 월~금 오전 9시부터 6시까지이며, 이용방법은 신분증을 지참한 후 문화원 사무국을 방문하여 희망하는 도서 및 자료를 열람하거나 대여하면 된다.



문화학교 강좌 운영

홍성군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문화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 학교를 연중 운영, 매년 다양한 문화강좌를 실시해오고 있다.

이번 하반기는 한글서예, 첼로, 신바람댄스, 국선도, 요가, 문인화, 다도, 줌바댄스, 라인댄스, 성악, 플루트, 핑크에어로빅, 서양화, 오키리나, 성인발레&댄스, 직장인생활스피치, 통기타, 발레핏 필라테스, 에어로빅 필라테스, 난타, 민요, 팬플룻, 풍물놀이, 바이올린, 풍수지리, 노래, 아코디언, 명리학, 한문서예 등 36개 강좌를 운영 중이다.



홍성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홍성문화원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홍성문화원 회원 모집 안내

홍성문화원은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의거,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문화관광부 산하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향토문화 계승·보존과 지역문화 예술 발전을 위한 다양한 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 상 : 누구나 / 연회비 : 50,000원



총회 의결권 부여(12개월 이상 납부자)



정기간행물인 『홍성문화』 무료 우송



문화탐방 및 기행프로그램에 우선 초대



각종 문화예술행사에 우선적으로 초청



문화학교 강좌 프로그램의 수강료 30% 할인(일부 강좌 제외)



홍성문화원 도서관의 모든 간행물 및 자료(DVD, CD) 열람 및 대출

※ 회원가입은 문화원 사무국에 비치되어 있는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 문 의 ☎(041) 632-3613



『홍성문화』 원고모집

독자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원고를 모집합니다.

홍성문화원을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홍성문화』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모집분야

시, 소설, 에세이 등 : A4 2~5장, 글자 10Point
사진 또는 그림이미지 : 고해상도 원본파일

보내실 곳

32234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절로951번길 16
홍성문화원 사무국
T. 041-632-3613 F. 041-633-1199
E. hscult@naver.com

비 고

원고를 송부하실 때에는 성명, 전화번호를 꼭 기재하여 주시고
필자의 사진과 원고관련 사진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